

제 1 편

자 연 (自然)

제 1 장 자연환경

제 2 장 거제의 섬

제 3 장 거제의 지질 · 산 · 하천 · 항만

제 4 장 식 물

제 5 장 동 물

제1편 자연(自然)

제1장 자연환경(自然環境)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거제는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다. 1971년 거제대교가 육지와 연결되어 교통이 편리해졌고, 섬의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벽파수도에 거제의 본도(本島)와 칠천도, 가조도 등 유인도 11개와 갈도, 대소병대도 등 무인도 51개로 형성되어 산과 계곡, 해안선의 풍광이 아름답다.

섬이란 지리적 여건에서도 물이 풍부하고 기후가 온화하며, 강우량이 많아 벼, 조, 콩을 비롯한 각종 곡식과 채소가 잘 자란다. 섬 주위는 난·한류가 교차되는 청정해역으로 많은 어종과 해산물이 풍부하다. 맑은 바다와 비옥한 땅이 있기 때문에 인삼, 유자, 옷, 왜딱(倭楮), 수달(水獺), 문어, 전복, 조개, 홍어, 청어, 미역, 대구, 해삼, 전어, 준치, 조기, 소금, 치자 등의 많은 토산품이 진상되기도 했다. 현재는 대구, 조기, 소금 등은 생산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면 자연환경도 많이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멀리서 바라보면 여인이 치마폭을 사리고 다소곳이 앉아 있는 듯하다. 섬의 중앙에 계룡산이 주산으로 우뚝 솟아 있고, 동서남북에 웅장한 산들이 응위하고 있다. 정기 서린 곳에는 열대식물을 비롯하여 후박나무, 동백나무, 생달나무, 희양목 등의 상록 활엽수와 해송, 섬 향나무 등 상록 침엽수가 울창하여 거제 봉산이라 했다. 고려 때는 거제에서 자생한 자작나무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고 한다. 산과 들에는 야생화를 비롯하여 많은 꽃들이 사시사철 훈향을 피운다.

조선 초기에 귀양을 왔던 이행(李荇)의 시다.

森森喬木陰 나무들은 뽕뽕이 우거지고
 決決清流瀉 맑은 물은 쿵쿵 쏟아지네
 常有白雲宿 항상 구름이 머물어 있고
 千年閱壯觀 천년토록 아름다움을 간직하였구나

이 시를 보면 당시의 자연적인 환경은 태고의 신비가 곳곳에 서려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거제대교가 개통되고 대우, 삼성조선소가 들어오고부터 조선산업 기지가 들어서면서 외부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신흥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도 많이 변했다. 그러나 섬 자락에는 억겁의 세월동안 파도에 씻긴 흑진주 같은 몽돌과 백설 같은 모래가 그런대로 잘 보존되고 있다. 굴곡진 해안선에는 동백과 해송이 어우러져 세속을 잊게하고 청량한 바람, 한가로운 물새들의 춤과 잔파는 자연의 교향곡으로 들린다.

제 1 절 위 치(位置)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거제시는 경도는 동쪽이 동경(東經) 128° 45' 28", 북위(北緯) 34° 49' 26"로 능포 양지암 끝이 되고, 서쪽은 W 동경 128° 27' 25", 북위(北緯)는 34° 50' 04"로 둔덕면 술역리이다. 남단 S는 동경 128° 37' 14", 북위 34° 40' 45"로 남부면 다포리 대병대도이고, 북단 N은 동경 128° 40' 54", 북위 35° 02' 18"로 장목면 구영리이다.

면적은 399.89km²이고 동서로 약 22km, 남북으로 약 39km이고, 해안선 길이는 본섬 386.6km(유·무인도 포함 408.6km)이다. 약 9백7십리가 넘는 해안선은 굴곡이 많은 절경지이다.

서남에서 동쪽으로 해안선이 길고, 그 연안에는 많은 섬들이 있다. 동북으로 가덕 수도를 건너 낙동강하구에 대저벌판과 접하고 있고, 동으로 부산시 영도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에 있다. 북으로 호수와 같은 잔잔한 내해를 끼고, 진해와 마산에 달하고, 서로는 풍광이 수려한 한려수도를 베고, 통영시와 고성군에 접한다. 남으로는 노도와 같은 푸른 물결이 먼 수평선을 이룬 대한해협을 건너 멀리 일본 대마도가 아련히 바라 보인다.

동으로 옥포항을 빠져나가면 부산과 진해, 마산의 뱃길이 있다. 바다 건너에 가덕등대가 보인다. 그 서쪽은 낙동강 하류가 되고, 가덕의 동단에는 부산 다대포와 영도가 마주한다. 북으로는 황포 앞 바다를 건너면 진해와 마산이다. 창원 및 김해와 이어져 있고, 서쪽으로는 한려수도 뱃길인 견내량 해협을 사이로 하여 통영과 고성에 접해 있다. 이 지역은 부산, 여수의 뱃길로 좁은 바다가 마치 강이나 호수처럼 잔잔하다. 동남으로는 망망대해의 대한해협이다. 통영시 한산도와 홍도(鴻島) 갈매기섬이 다도해를 이루고 있다. 이 섬들은 1900년 진남군 설치 이전에는 거제의 땅이었다. 대한해협 너머로 대마도가 아련

히 보인다. 거제의 지세를 칠언 절구 한시로 나타내고 있다.

제 2 절 지 세(地勢)

백두산의 정기를 받아 태백의 준령이 남으로 내려 뻗어 힘차게 달려오다가 금강 설악의 영맥(靈脈)이 아름다운 준악(峻岳)을 이루었다. 그 힘찬 골격이 동으로 이어져 울산의 울기등대를 돌아 진해의 천자봉에서 멈췄다가, 준령이 천성 가덕의 바닷가에서 자맥질하여 다시 치솟아 저도(猪島)와 이수도(利水島)의 섬을 만들었다. 힘찬 산맥이 부상하여 거제의 북악 대금산을 만들고, 그 산맥이 서남으로 뻗어 국사봉, 옥녀봉, 굴재봉, 양산을 형성하여 계룡산과 응대하니, 응비의 기상이 장관이다. 또한, 소백의 지맥인 지리산이 남으로 달려오다가, 고성 벽방산(碧芳山)과 통영의 제석봉(帝釋峰)이 견내량에서 바다로 빠졌다가, 다시 치솟아 통영과 거제를 갈라 놓았다. 이 해협이 견내량(見乃梁)이다. 호수같은 바다에 빠졌다가, 오랑 앞에서 힘차게 솟은 산이 시래봉(始來峰)이다. 육지로부터 처음 이어진 산이란 뜻이다. 이 산이 동서로 치달아 우두봉(牛頭峰), 산방산(山芳山), 노자산(老子山), 가라산(加羅山)이 계룡산(鷄龍山)을 휘감았다.

대금산은 태백의 줄기이고, 계룡산은 소백의 줄기이다. 양대 산맥이 어울려 산맥을 형성하고, 계곡과 들, 포구를 만들었다. 그 형상이 마치 여인이 파란 비단폭에 다소곳이 앉아 치마폭을 사리고 있는 모습과 같다.

그런 형상을 이름하여 상군(裳郡)이라 하여, 치마 상(裳)자를 썼다. 서기 667년 신라 30대 경덕왕 때 상군이라 했다. 이보다 앞서 삼한시대 변한 12국의 하나였던 두로국(瀆盧國)이라 한 것도 두루다 치마와 같은 두루기 도롱이에서 나온 말이다. 지명은 지형의 생김이나 특징을 따서 지어졌다.

태백의 마지막 원맥(原脈)이 진해 천장산과 소백의 영맥(靈脈)이 벽방산에서 서로 힘을 뻗어 한반도 남쪽 바다에 꽃처럼 만들어 놓은 섬이 거제다. 태백산과 소백의 가지끝에 활짝 핀 꽃의 형상을 한 거제는 기상이 장엄하고 산수가 아름답다.

동으로 옥녀봉(玉女峰), 서쪽은 산방산(山芳山), 남으로 가라산(加羅山)과 노자산(老子山), 북으로 대금산(大錦山)이 감싸고 있고, 중앙에 용트림하는 계룡산이 하늘로 비상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 동서남북과 중앙에 있는 거제의 5대 산은 마치 음양 오행의 형상과 같이 짜임새 있게 배치되어 웅장한 모습을 하고 있다.

제 3 절 기 후(氣候)

1. 지형적 특성

거제지방은 경남의 남해안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으로 동쪽으로는 부산 가덕도와 직선거리 9km에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통영시와 거제대교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북서쪽 해안은 진해만을 끼고 진해·마산·고성과 마주하고 있다. 지형은 주로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으며, 동쪽 해역은 한·난류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각종 어류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거제의 해안은 리아스(rias)식 해안으로 다도해를 이루어 주위에는 11개의 유인도서와 51개의 무인도서가 산재해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부근 해역은 청정해역으로 지정·보존되고 있다.

또 해양의 영향으로 기온의 일교차·연교차가 적고 연중 온화하며, 장마와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강수량이 많은 다우지역으로 쾨펜의 기후구분에 의하면 온대다우기후(Cfa)에 속하고, 보다 세분하면 남해안형(김광식, 이영택)에 속한다.

그리고 해발 500m대의 산들이 섬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총면적의 75% 이상이 산지(임야)여서 지역에 따라 강수량과 바람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2. 국지기후의 특성

온대해양성 기후지역으로 한서의 차가 심하지 않으며, 연교차는 24.2℃, 연평균 강수량은 1,727.8mm로 다우지역이나 섬이기 때문에 집중호우 재해는 적은 편이며, 남해동부해상의 연중 폭풍특보 발효일이 140여일로 해상의 악기상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표 1-1-1〉

거제 지역의 극 기 후

요 소	나타난 값	나타난 날	비 고
고극기온	38.6℃	'94. 7. 20	
저극기온	-10.1℃	'77. 2. 16	
일 최다 강수량	438.3mm	'85. 5. 5	
1시간 최다 강수량	74.0mm	'83. 8. 24	
최심적설	10.6cm	'82. 2. 4	
최대풍향·속	NW 19.0m/s		

1) 기 온

(1) 평균기온

거제지방의 연평균기온은 13.8℃로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온난한 지역에 속한다. 인근의 마산에 비해서 1.0℃ 낮고, 통영·부산보다 0.5~0.8℃ 낮으며, 남해와 비슷하다. 거제지방의 연교차는 24.2℃로 남해보다 0.4℃ 작고, 통영·부산·마산보다 0.5~0.8℃ 크다.

연평균기온의 경년변화를 보면, 1973년 이후 기울기 0.0325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계절별 평균기온을 인근지역과 비교해 보면 여름에는 통영·부산에 비해 거제의 기온이 높고, 나머지 계절에는 거제가 낮다. 한편, 마산은 연중 다른 비교지점보다 높다.

(2) 최고기온

거제지방의 최고평균기온은 18.3℃로 통영·부산과 같고, 마산·남해에 비해 1℃ 내외가 낮다. 거제지방의 여름철 최고평균기온은 마산·남해보다는 낮으나, 통영·부산보다는 0.5℃ 이상 높다.

이것은 거제의 관측지점이 섬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남쪽으로 해발 566m의 계룡산이 위치하고 있어서 해풍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거제의 일최고기온이 30℃ 이상 올라가는 일수는 연평균 26일이며, 열대야(일최저기온 $\geq 25^\circ\text{C}$) 현상은 연평균 8일 나타난다. 거제의 최고기온 극치는 38.6℃이며, 1994년 7월 20일에 나타났다.

거제에서 가장 더운 시기는 8월 상순으로 일최고기온이 평균적으로 30℃ 이상 올라간다.

〈표 1-1-2〉 지점별 최고평균기온 (1973~1998년)

월 지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거 제	6.2	7.9	12.3	17.9	22.3	25.0	28.0	29.6	25.7	21.3	14.8	9.0	18.3
통 영	6.8	8.0	12.1	17.4	21.5	24.4	27.4	29.4	26.1	21.7	15.4	9.7	18.3
마 산	7.6	9.5	13.2	19.2	23.0	25.7	29.0	30.4	27.0	22.7	16.1	10.3	19.5
부 산	6.8	8.4	12.5	17.1	21.4	23.7	27.1	29.3	25.8	21.7	15.7	9.7	18.3
남 해	6.7	8.3	13.1	18.8	23.3	26.1	28.8	30.4	26.5	22.1	15.3	9.5	19.1

(3) 최저기온

거제지방의 최저평균기온은 9.3℃로 남해와 같고, 통영·부산·마산에 비해 1℃ 이상

낮다. 거제지방의 겨울철 최저평균기온은 남해보다 0.5℃ 정도 높고, 통영·부산·마산 보다는 1℃ 이상 낮다. 영하의 기온(일최저기온)은 평균적으로 11월하순 초반부터 3월 하순 초반까지 74일 정도 나타난다.

얼음이 어는 기간은 평균 11월 중순부터 3월 하순까지이며, 연간 80일 정도이다. 서리는 11월 초순부터 3월 하순까지 연평균 50일 정도 내린다. 거제의 최저기온극치는 -10.1℃로 1977년 2월 16일 나타났다. 가장 추운 시기는 1월 중순으로 일최저기온이 평균적으로 -3℃ 이하로 떨어진다.

〈표 1-1-1〉은 1973년 이후 지금까지 월별 고극·저극 기온이다. 최한월인 1월에도 17.0℃까지 기온이 올라간 기록이 있고, 최난월인 8월에 15.2℃의 낮은 기온이 기록되었다.

2) 강수량

(1) 연·월평균 강수량

거제지방은 연평균강수량 1,728mm로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은 다우지역에 속한다. 거제의 연평균 강수량은 남해와 비슷하고 통영·부산·마산보다는 300mm 이상 많다. 거제의 월평균강수량은 연중 인근지역보다 많으나, 특히 4월부터 7월까지 많음을 볼 수 있다. 연평균강수량에 대한 월별 평균강수량의 비율을 보면 7월이 300mm를 넘어 19%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6월, 8월의 순으로 많다. 여름 3개월간의 강수량이 연강수량의 46%에 이르고 4, 5, 9월에도 월평균 200mm 가량의 비가 내린다. 연강수량의 경년변화를 보면 기울기 6.4의 완만한 상승세이고, 여름 3개월(6,7,8월)의 강수량은 12.1의 기울기로 연강수량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 최다 강수량과 호우시기 및 무강수

거제지방의 일최다강수량은 438.3mm로 통영·마산·남해보다 10mm이상 많은 강수량 극치를 나타내고 있고, 2일간 연속강수량은 무려 635.5mm의 기록적인 강수가 최근에 있었다. 이러한 거제지방의 강수량 집중도를 감안하여 호우로 인한 재해예방에 타지역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1시간 최다강수량은 74mm, 10분 최다강수량은 21mm가 기록되었다.

거제지방의 최다우 시기는 장마기간인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까지와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대체로 열흘 동안 10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 거제지방의 최소우 시기는 12월과 1월 중순으로 순평균 10mm 미만의 강수가 있다. 한편, 거제지방에는 59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기록도 있다.

거제지방의 연평균 운량은 4.8할이며, 4월에서 9월까지는 평균 5할이상 구름이 끼고,

7월에 구름이 가장 많이 낀다.

〈표 1-1-3〉 최 다 강 수 량 (1973~1999년)

(단위: mm)

지 점	일 최 다	출 현 일	1시간 최다	출 현 일	10분 최다	출 현 일
거 제	438.3	'85. 5. 5	74.0	'83. 8. 24	21.0	'81. 9. 24
통 영	340.5	'79. 8. 25	86.5	'99. 7. 30	23.0	'99. 7. 30
마 산	268.0	'99. 7. 30	86.6	"	28.0	'99. 9. 10
부 산	439.0	'91. 8. 23	86.7	'84. 9. 3	40.0	'81. 8. 24
남 해	324.5	'79. 8. 25	112.5	'93. 8. 21	28.0	'93. 8. 21

3) 바 람

(1) 풍 향

거제지방의 연간최다 풍향은 NW이며, 계절풍의 영향이 뚜렷하여 여름에 SE, 겨울에 NW풍이 탁월하다.

〈표 1-1-4〉 연평균 Win Rose -거제 (평년값)

(단위 : clam=17.8)

풍 향	바람횟수	0.3~3.3%	3.4~7.9%	8.0~13.8%	13.9% 이상
NNE	6.7	4.4	2.3	0.0	0.0
NE	10.9	9.0	1.9	0.0	0.0
ENE	0.9	0.7	0.2	0.0	0.0
E	2.3	1.4	0.9	0.0	0.0
ESE	0.2	0.2	0.0	0.0	0.0
SE	0.9	0.9	0.0	0.0	0.0
SSE	1.4	1.4	0.0	0.0	0.0
S	7.6	6.9	0.7	0.0	0.0
SSW	1.6	1.4	0.2	0.0	0.0
SW	3.5	2.8	0.7	0.0	0.0
WSW	2.1	1.4	0.7	0.0	0.0
W	7.4	5.8	1.6	0.0	0.0
WNW	2.5	1.4	1.2	0.0	0.0
NW	16.7	9.7	6.9	0.0	0.0
NNW	10.4	7.2	3.2	0.0	0.0
N	6.9	4.6	2.3	0.0	0.0

(2) 풍 속

거제지방의 연평균 풍속은 2.0%이며, 겨울과 봄에 풍속이 강하고 가을에 가장 약하다. 또한, 남해보다는 다소 강하며, 다른 비교 지역보다는 약하다. 일최대풍속 8.0%이상의 강풍은 4월에 가장 많고 9, 10월에 가장 적다.

〈표 1-1-5〉 월 별 평 균 풍 속 (1973~1998년)

월 지점	%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거 제	2.2	2.2	2.1	2.2	2.0	1.9	2.0	1.9	1.5	1.5	1.8	2.1	2.0
통 영	2.5	2.8	2.8	2.9	2.4	2.2	2.6	2.5	2.1	2.0	2.3	2.4	2.5
마 산	2.4	2.4	2.5	2.6	2.4	2.5	2.7	2.4	2.1	2.0	2.0	2.1	2.3
부 산	4.5	4.6	4.5	4.6	4.6	4.7	4.0	3.8	4.4	4.2	4.0	3.8	4.3
남 해	1.8	1.9	2.0	2.1	1.9	1.7	1.6	1.7	1.6	1.5	1.6	1.7	1.8

자료 : 2000년 12월 거제기상관측소

3. 거제 기후의 특성

기후는 기온, 강수, 바람 등을 말한다. 이런 것들은 지역과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통하여 여러가지 기단(氣團)의 지배를 받는다. 겨울에는 한대 대륙성 기단인 시베리아 기단에 덮혀 한랭 건조한 기후이고, 여름에는 열대 해양성 기단인 북태평양 기단에 의해 고온 다습한 기후를 이룬다. 여름 한때는 적도 기단의 영향을 받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된다. 또 봄과 가을은 아열대 대륙성 기단인 양쯔강의 영향을 받아 시원하다. 늦여름과 초가을은 한대 해양성 기단이 냉습한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 이루어지는 장마전선에 의해 태풍과 장마가 오래 간다.

기후는 계절적인 요인 외 지리적인 조건에 의해 다르기도 하다. 위치·지형·해류 등이 원인이 된다. 이런 것들은 기후가 지역적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대륙 동쪽에 위치한 반도로서 대륙과 해양성 기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른바, 동안기후(東岸氣候)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이고, 북부와 동부는 높고, 남서부는 낮은 산지의 구릉지대로 되어 있는 척량산맥이 태백산맥을 경계로 하여 동서로 기후 차이를 나타낸다. 북부의 고원은 높은 고도와 대륙성 기후를 이루고 있다.

거제도도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면이 바다로 되어있는 지역특성으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고온 다습한 기후이다. 봄철은 시베리아 기단의 쇠퇴한 기온과 더불어 기압 배치가 무너지는 시기이다. 3월이 되면 약화된 대기는 상층의 편서풍에 밀려 동진하게 된다. 이동성 고기압이 지날 때는 맑고 따뜻한 전형적인 봄날씨다. 이동성 고기압이 통과하고 나면 그 뒤를 따라 저기압이 접근해 와서 구름이 끼고, 봄비가 내린다. 시베리아 기단이 물러가면서 꽃샘추위가 따른다. 춘분이 지나면 일사량이 길어져 기온이 올라가 각종 꽃들이 개화하고, 봄 풀이 돋아난다. 봄철 습도는 낮고, 강수(降水)는 적다. 북동절 기후의 교차시기로 바람이 많다. 서해안을 타고 오는 황사 현상도 일어난다. 늦은 봄부터 초여름까지는 높새바람(북동풍)이 분다. 이 바람은 외해(外海)에서 파도를 일으켜 장목, 외포, 장승포, 일운, 남부 지역에서는 출어에 지장을 받는다. 바람이 세고 메마른 봄철은 건조한 날씨로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5월에서 6월이 되면 시베리아 기단은 완전 물러가고, 북태평양 기단이 상륙한다. 이 때가 되면 북태평양권의 고기압과 오호츠크해의 고기압 사이에 놓여 장마가 계속된다. 장마기간 동안 한 시간에 50mm 이상 내리는 폭우는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 거제지역의 토질은 마사(磨砂)토가 많기 때문이다.

장마는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한달 간이다. 이 기간 중에 맑은 날씨가 2~3일간 계속된다. 이런 때를 장마 휴식기간이라 한다.

장마전선이 만주지방으로 북상하면서 고온 다습한 태평양 기단에 머물면서 한여름이 된다. 이때가 가장 무더운 계절이다. 평균 기온이 30℃로 34~5℃도 계속되는 날이 여러 날 있다. 그러나 바람이 많은 해양성 기후로 체감온도는 크게 덥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연간 평균 기온은 14.4℃, 최고 기온 34.4℃이며, 이보다 높이가 올라갈 때도 있다. 강수량은 연간 2,035.5mm이다. 습도는 평균 60%이고, 낮을 때는 16%가 된다. 평균 기압은 1,015.7h/pa이고, 운량은 4.7%이다. 일조 시간은 2,270.9h이고, 풍속은 평균 1.5%이며, 최대 풍속은 8.4%이다.

위의 내용은 일년간의 평균치이다.

8월 하순부터는 태평양 기단이 물러나고, 북상했던 장마전선은 다시 남하하여 초가을 장마를 가져온다. 이때 온냉 기온이 교류하면서 폭풍우를 동반하기도 한다. 우리 거제는 이때 폭풍우의 피해를 제일 많이 입는다. 9월 3일부터 15일까지다. 1970년대부터 1999년까지 9월 3일, 9월 5일, 9월 9일, 9월 14일 등의 수해가 대부분 이때 있었다.

추분이 지나면 시베리아 대륙이 냉각되고,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그 세력의 여파로 우리나라는 온화한 가을 날씨의 고기압권에 들어간다. 거제도에는 열은 구름이 일면서 마지막 더위가 9월 하순경 되어서야 물러간다.

늦가을의 저기압 통과로 비가 오고 나면 초겨울 추위가 시작된다. 이때가 11월 말경

제1편 자 연

부터다. 이때 부터 동백이 피기 시작한다. 거제의 겨울은 기온의 변화보다 바람의 체감 온도에서 느끼는 차이가 크다.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겨울 날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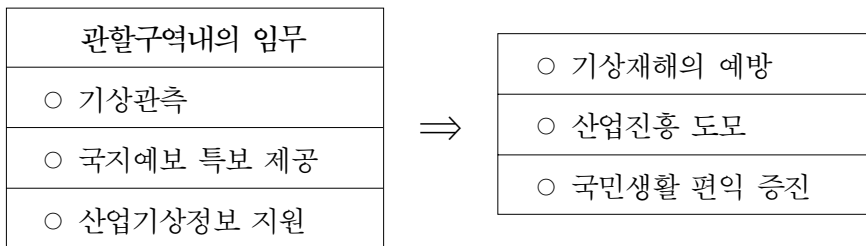
일기 일수는 연중 124일이 맑고, 103일이 흐린 날이다. 비가 오는 날이 101일, 기타가 37일이다. 눈은 적설을 겨우 보일 정도로 눈이 오는 해는 드물다. 대기권 오염과 생활환경의 주변 온도 변화로 지상 온도가 상승한다.

4. 거제 기상 관측소

거제기상관측소는 1970년 7월 18일 중앙관상대 진주측후소 거제분실로 출발. 1971년 정규관측을 개시하였으며, 1985년 7월 2일 충무측후소 편입 및 거제기상관측소로 개칭되었고,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70. 7. 18 : 진주측후소 거제분실 창설
- 1971. 4. 1 : 정규 관측 개시
- 1985. 7. 2 : 충무 측후소 편입 및 거제기상관측소로 개칭
- 1992. 3. 13 : 충무기상대 거제기상관측소로 개칭
- 1995. 2. 24 : 통영기상대 거제기상관측소로 개칭
- 1995. 12. 5 : 신현읍 장평리 770-27 현 청사 이전 관측개시

1) 거제기상관측소 임무



2) 거제기상관측소 정원

(정원/현원)

구 분	7 급	8 급	기 능 직	계
거 제 기상관측소	1/1	1/1	1/1	3/3

〈표 1-1-6〉

경남의 기상관측소

지점번호	지 명	북 위(N)	동 경(E)	해발고도(M)	기아계고도(M)	관측개시일
284	거 창	35° 40′	127° 55′	224.9	226.9	1971. 1. 1
285	합 천	35° 34′	128° 10′	30.9	32.1	"
288	밀 양	35° 29′	128° 45′	12.5	13.5	"
289	산 청	35° 25′	127° 53′	106.6	108.0	"
294	거 제	35° 53′	128° 37′	12.0	13.5	"
295	남 해	35° 40′	127° 54′	15.0	16.0	"

〈표 1-1-7〉

간 이 관 측 소

관 측 소 명		주 소	북 위(N)	동 경(E)
울 산	양산농촌지도소	경남 양산군 동면 석산리 45-1	35° 18′	129° 03′
마 산	의창농촌지도소 대산지소	경남 의창군 대산면 일동리 290-36	35° 19′	128° 42′
충 무	해금강 석곡관측소	경남 거제군 남부면 갈곶리 14-77	34° 44′	128° 41′
	서이말등대	경남 거제군 일운면 지세포리	34° 47′	128° 44′
진 주	사천농촌지도소	경남 사천군 사천읍 수석동 126	35° 10′	128° 02′
	삼천포농촌지도소	경남 삼천포시 동금동 361	34° 56′	128° 05′

〈표 1-1-8〉

등 대 관 측 소

관 측 소 명		주 소	북 위(N)	동 경(E)
충 무	간 절 갑	경남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109	35° 21′	129° 22′
	울 기	경남 울산시 일산동 907	35° 29′	129° 27′
진 주	홍 도	경남 통영군 한산면 매죽리 홍도 산 54	34° 32′	128° 44′
	소매물도	경남 통영군 한산면 매죽리 산 65	34° 37′	128° 32′
	가 덕 도	경남 의창군 천가면 대항리 산 13-2	34° 59′	128° 49′

제2장 거제의 섬(島嶼)

섬의 개념은 바다 물이나 육지 물로 둘러싸여 있는 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섬은 3,151개로 무인도 2,673개이고, 유인도 478개이다. 거제는 서남에서 동쪽으로 해안선이 길고 그 연안에는 많은 섬들이 있다. 본도(本島)를 비롯하여, 6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유인도가 11개, 무인도가 51개이다. 섬면적은 20,427km²이고 해안선은 22km이다.

섬의 지리적 성격은 육지와 떨어진 외딴 곳이며, 반드시 육지나 이웃 섬에 가기 위해서는 배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섬의 자연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생활문화가 있다. 외부의 문화가 들어오면 섬 사정에 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 그래서 섬의 문화에는 폐쇄성과 독자성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통신, 교통, 생활문화가 발달하여 옛 섬의 문화는 찾을 길이 없다. 오히려 생활문화는 소득수준이 높은 섬일수록 더 발전되어 있다.

제1절 거제연안의 도서

거제의 남서 해상에 있는 이웃 통영의 섬들은 거제 사람들의 어업 생활권에 있다. 남부면 갈곶리 해금강에서 약 21km 떨어져 있는 높이 106m의 홍도(鴻島)를 비롯하여, 많은 섬들이 펼쳐진 열도(列島)는 다도해의 비경지로 관광자원이 된다. 홍도는 남해안의 갈매기 서식지로 보호되고 있다. 서쪽과 동쪽, 남쪽에 있는 작은 도만(島灣)은 풍랑을 막아서 작은 배가 정박할 수 있다. 조선시대까지는 이 섬이 거제에 속해 있었다.

축파수도(築波水道)는 남부면 대포, 홍포에서 육지도까지의 뱃길이다. 대포 망산각에서 5,800m 떨어진 대매물도와 8,300m 거리에 있는 소매물도는 통영군에 속해 있는 섬이다. 대매물도는 어유도가 북단에 있다. 이 섬은 망산각에서 4,900m 떨어져 있다. 대매물도의 동서 길이 2.8km, 폭 740m, 최고봉은 196m의 장군봉이다. 동쪽의 작은 만(灣)에는 작은 배가 정박할 수 있다.

남서쪽에 소매물도가 있고, 높이 152m의 돌섬에 등대가 있다. 동쪽은 절벽 암반과 동서로 뚫린 굴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동쪽에 또 다른 작은 돌섬은 거대한 해수관음(海水觀音) 불상과 같이 장엄하게 서 있다. 매물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3.3km 해상에 등가

도(登加島)가 있고, 서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소지도(小知島)가 있다. 이 섬의 높이는 132m이다. 그리고 남쪽 6~8km 지점에는 대구을비도(大九乙非島)와 소구을비도(小九乙非島) 등이 있다. 매물도의 남서방 약 1.5km에 높이 324m의 험한 국도(國島)가 있고, 국도의 서북서방에 약 8.3km 지점에는 남북으로 줄지은 좌사리제도(佐沙里諸島)가 있다.

국도는 대포 망산각에서 20,840m로 서남에서 동북으로 길게 놓여 있다. 소매물도와 국도 중간 지점에 대구을비도와 소구을비도가 있다. 망산각에서 11,780m 서남에 있는 소지도는 대소 매물도와 국도, 연화도의 중심에 있다.

연화수도는 연화도 옥지도 사이 해로를 말한다. 연화도를 중심으로 하여 우도, 우서, 북뢰, 마뢰, 봉도, 적도를 연화 열도라 하고, 남도, 하서, 하노대도, 노대도, 사이도, 소두방서 일대를 옥지도 북단의 노대군도라 한다.

우도는 대포 망산각에서 21,200m, 적도는 24,000m, 봉도 25,000m, 옥지도 26,400m, 초도 26,300m, 소초도 24,700m, 좌사리도 25,000m거리다.

소지도의 서방 약 8km에는 높이 216m의 연화도(蓮花島) 및 반도(半島) 등을 포함한 연화열도가 있다. 연화도의 동북 약 5.5km에는 외부지도(外夫支島)는 남부 근포에서 16,700m, 내부지도(內夫支島)는 근포에서 16,800m, 연대도는 근포에서 16,200m, 오곡도는 근포에서 14,000m에 있고, 연화도 그 서북방에 노대군도(老大群島)이다. 그 사이는 높이 95m의 봉도(蓬島)가 있다. 죽도는 근포 서쪽 4,400m에 있고, 그 너머 용초도가 6,450m 거리다.

장강수도는 저구만에서 장사도를 지나 봉암도와 용초도 사이 뱃길을 말한다. 대포 망산각에서 서남으로 200m 떨어진 장사도는 긴 뱀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장사도(長蛇島)라 하고, 높이 105m이다. 동단에 소덕도와 대덕도가 나란히 있다. 장사도 서북방에 죽도와 용초도가 있고, 용초도 동쪽에 비진도가 있다.

감굴재배와 고구마 산지로 유명한 옥지도(欲知島)는 대포 망산각에서 26,400m거리다. 거제의 서남단에 있는 이 섬은 길이 약 6.5km, 남북의 폭이 약 3.7km의 큰 섬이다. 해안의 굴곡이 심하고 북쪽 해안은 배의 접안이 용이한 어항이다. 섬의 정상은 서쪽으로 기울어진 기형의 천왕봉(天王峰)이 있다.

옥지도의 동남 해안에는 초도(草島)와 소초도(小草島)가 있고, 남서방 약 6.5km 해역에 127m의 갈도(葛島)가 있다. 갈도의 남서방 약 11km 떨어진 곳에 높이 77m의 세존도(世尊島)가 있다. 북방에는 크고, 작은 10여 개의 노인섬(老大群島)이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섬이 상노군도(上老群島)이다. 이 섬의 크기는 길이 약 2.8km, 높이 205m이다. 대노군도의 서북쪽에는 높이 467m의 험한 두미도(頭尾島)가 있고, 두미도와 미륵도(彌勒島)의 중간 부분에 추도(楸島:가래섬) 195m가 있다. 사랑도는 미륵

도의 서방에 위치한다. 북서 동남간의 길이 약 10km의 섬으로 상도(上島), 하도(下島)로 나누어져 있으며, 산허리는 진달래꽃이 봄을 장식한다. 또 사랑도와 남해 창선도의 중간 부분에는 동서의 길이 1.8km, 높이 199m의 험한 수우도(樹牛島)가 있다.

한산수도(閑山水道)는 울포만, 가배만에서 한산도 북단 통영까지의 수로다. 쌍근 서쪽에 봉암도가 있다. 높이 256m의 추봉리 망산과 높이 238m의 대봉산이 동서로 우뚝 솟아 있고, 북단에는 어항으로 발달하였으며, 서쪽은 한산도와 접하고 있다. 6·25 동란 때 이 섬에 약질 포로를 수용하였다. 남부 쌍근에서 1,770m, 산달도 등주말 남서쪽에 송도·서좌도·한산도가 있다. 둔덕어구에서 차도선이 다닌다. 둔덕 어구 아지랑에서 남쪽 송도 1,170m, 남서로 서좌도 130m, 어구의 서쪽 비산도 1,400m, 녹산 서만쪽 화도 1,770m, 대죽도 3,880m, 한산도 2,500m, 소록도 160m, 술역서방 방화도 1,870m이다.

가덕수도(加德水道)는 가덕에서 진해 앞까지의 뱃길이다. 거제 장목 유희마을 앞과 가덕 사이에 있는 섬들이 병산열도다. 그리고 거제의 북단 장목과 부산, 진해의 해협에 많은 섬들이 있다. 유희에서 7,570m 지점에 있는 가덕도는 21.9km²로 김해, 진해, 부산으로 통하는 길목이다. 그래서 거제와 가덕간에 대교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 대교 이름을 거가대교(巨加大橋)라 이름 지었다.

가덕도는 그 남단의 동쪽 끝을 정점으로 삼등변(三等邊)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주봉인 연대산(烟臺山)은 459m이고, 안봉(雁峰)은 358m, 국수봉 269m 등이 솟아 있어 해안이 가파르다. 평지가 적고 천성리(天城里) 외에는 그다지 좋은 항구도 없다.

가덕수도의 동쪽이며, 쥐섬(鼠島)의 남방 약 5.5km되는 곳에 높이 59m 나무섬 일명 목섬(木島)이 있고, 목도의 남남서 약 5.5km되는 곳에 높이 40m의 북형제도와 남형제도가 있다. 이수도 동쪽 약 1.8km에 높이 11~19m의 암석군도인 갈산도(葛山島)다. 장목 유희에서 미박도 3,600m, 중중도 4,000m, 대죽도 46,000m, 호도 5,200m이다. 상유 동북에 연도 5,650m, 호란도 830m, 입도 8,850m, 토도 8,240m, 수도 5,800m, 을미도 6,500m, 송도 6,560m, 연도 5,630m, 구영 개다리치 북쪽 웅도 3,230m, 소고도 4,870m, 음지도 6,050m, 우도 5,560m다.

가덕수도의 중앙에는 3개의 원추형(圓錐形)의 병산열도(山列島)가 있다. 그 중에서 대죽도(大竹島)는 높이 117m로서 가장 큰 섬이다. 가덕수도 서북쪽은 낙동강 하구다. 서쪽은 진해항과 마산항이 있다.

유희앞 사근여(巳根嶼) 서북쪽에는 59m의 망와도(忘蛙島)가 있고, 가조도 서쪽에 109m의 연도(椽島)가 있다. 연도 북방에 가늘고 긴 솔섬(松島)과 물섬(水島)이 있다. 대금 동북 격도 대금에서 1,000m, 백서 4,100m, 갈산도 4,650m, 이수도에서 가덕 동두발까지 8,800m, 외포 북형제도 22,500m, 남형제도 21,500m, 외포북동방 목도

24,500m이다.

부도수도(釜島水道)는 진해항 입구에 있는 부도를 중심으로 한 뱃길이다. 여기는 진해 해군기지의 출입항로다. 장목 황포의 광지말에서 북쪽으로 잠도 1,830m, 부도 6,200m, 서도 8,700m, 황포 북서에서 진해만 남도 10,800m, 송도 11,500m, 황포 광지말 서북에서 실리도 4,070m에 높이 85m다.

부도수도 중앙에 가로놓인 가마섬(釜島)은 높이 98m로 이 부근에서는 제일 큰 섬이다. 동쪽의 진해만 입구의 동단 사이에는 꽃섬(花島)이 있다.

부도의 북서쪽 약 3.7km 즉, 마산항 입구 모도(毛島 小毛島)가 있고, 남쪽으로 염포만 입구 남단에서 그 북쪽에 송아도(松兒島), 서쪽에 길이 980m, 폭 550m, 높이 65m의 누애섬(蠶島 또는 臥島)이 있다.

칠천도 연구리 앞 통영항로 뱃길에 대광이도, 소광이도가 있다. 섬의 생김이 귀(耳)와 같이 생겼다. 연구리에서 대광이도 4,200m, 소광이도 3,500m다. 대곡 서북 황덕도 160m, 칠천도 남쪽 칠천량 슬능도, 가조도 신호 서쪽 수도 2,200m, 어이도 2,500m, 창촌 신호 저도 7,100m, 춘도 6,500m, 입도 7,000m, 형제도 5,700m, 사등 지석 서쪽 미도 지석에서 2,150m, 호도 2,760m이다.

견내량 해협에는 신계 후포앞에 있는 섬 지도는 신계에서 3,300m, 고도 5,150m, 시연도 3,900m, 사등 오랑 서쪽 명등도 오랑에서 840m, 신계에서 고개도 350m, 광리서 해간도 560m, 대류도 학산에서 460m, 소류도 390m, 사서 1,530m이다.

제2절 도서 현황

〈표 1-2-1〉

도 서 현 황

읍·면	리·동	도 서 명	관련지번	유 무 인 도		해안선 단위(m)	면 적 단위(m ²)	비 고
				유인도	무인도			
신 현	장 평	죽 도	산1-1		○	630	18,522	
	〃	유 자 섬	산130		○	170	2,975	
일 운	구조라	윤 돌 도	산72		○	360	2,975	
	와 현	내 도	산99	○		2,650	254,470	
	〃	외 도	산109 산114	○		1,450 690		

제1편 자연

읍·면	리·동	도 서 명	관련지번	유 무 인 도		해안선 단위(m)	면 적 단위(m ²)	비 고
				유인도	무인도			
		계	2필			2,140	146,139	
	옥 립	지 심 도	산1	○		3,580	336,086	
동 부	오 송	솔 도	산23		○	450	12,992	
	가 배	구 도	산81-1		○	900	47,363	
거 제	법 동	고 승 도	산161		○	280	5,256	
	"	복 도	산75		○	160	2,083	
	"	산 달 도	산9	○		7,060	2,547,735	
	소 량	전 도	산18		○	70	298	
	오 수	소 송 도	산9		○	400	9,818	
둔 덕	술 역	항 도	산167-1		○	395	8,232	
	학 산	유 대 도	산134		○	270	11,009	
	어 구	소 록 도	산67-23		○	1,400	84,978	
	술 역	화 도	산180-1	○		7,160	1,022,926	
	"	방 화 도	산124-1		○	1,460	33,137	
사 등	오 량	등 대 도	산155-1 산155-2		○	240	3,471 793	
		"	산151-1 산153		○	1,220	41,653 3,570	
		계	3필			1,460	49,487	
		소 고 개 도	산150	○		280	4,364	
	창 호	가 도	산3-1		○	540	9,515	
	"	계 도	산285	○		700	15,273	
	"	범 벽 도	산31		○	360	8,331	
	"	장 도	산1		○	400	6,029	
	"	취 도	산288		○	190	1,884	
	"	만 금 포 도	산298		○	36	79	
	"	가 조 도	산5-3외	○		17,880	5,782,563	
	사 곡	사 두 도	산3		○	750	20,939	
하 청	석 포	항 도(목도)	산68		○	470	12,496	
	연 구	씨 룡 도	산77-1		○	1,840	81,236	
	"	동 굴 도	산76		○	170	2,281	
	"	소 광 이 도	산157		○	420	9,025	
	"	대 광 이 도	산158		○	360	17,058	

읍·면	리·동	도 서 명	관련지번	유 무 인 도		해안선 단위(m)	면 적 단위(m ²)	비 고
				유 인 도	무 인 도			
하 청	대 곡	려 봉 도	산33-1		○	1,500	82,258	
	어 온	칠 천 도	산1외	○		19,720		
	대 곡					5,570		
	연 구					11,650		
		계				36,940	5,782,563	
	〃	황 덕 도	산104	○		2,940	215,082	
장 목	장 목	대 뽕 북도	산131		○	390	9,521	
	〃	소 뽕 북도	산132		○	240	3,868	
	구 영	광 지 말도	산91		○	900	35,802	
	관 포	각 도	산65		○	230	4,066	
	시 방	백 사 도	산96		○	220	3,426	
	〃	백 여 도	산97		○	280	4,922	
	〃	갈 산 도	산98		○	280	5,713	
	외 포	대 동 도	산326		○	200	2,896	
	〃	소 동 도	산325		○	120	922	
	유 호	망 와 도	산4		○	450	15,074	
	〃	저 도	산88-1		○	3,150	434,181	
	시 방	이 수 도	산42	○		2,600	37,587	
남 부	다 포	대 병 대 도	산43		○	860	368,364	
			산49		○	630	18,843	
			산50		○	280	6,331	
			산51		○	410	14,039	
			산1-1외		○	430	7,332	
			계	5필			2,610	84,132
남 부	다 포	소 병 대 도	산44		○	190	2,579	
			산45		○	430	11,504	
			산46		○	450	12,397	
		계	3필			1,070	26,480	
		다포도	산22		○	350	8,430	
			산23		○	160	1,581	
		계	2필			510	10,011	
	탑 포	죽 도	산71		○	460	10,810	
	갈 곳	송 도	산41		○	380	8,331	
		갈 곳 도	산1		○	1,620	121,488	

제3장 거제의 지질·산·하천·항만

제1절 지 질

우리나라는 면적의 약 50%가 선캄브리아기 암석으로 되어 있다. 선캄브리아기 변성암류는 고생대와 그 뒤에 퇴적된 지층으로 덮여 있다. 한반도의 대부분이 이런 지층 아래 있는 선캄브리아기의 암석을 기반으로 한 육괴(陸塊)라 한다.

선캄브리아기의 암석들은 동아시아에 있는 시베리아 순장지와 관련이 있는 선캄브리아기의 무리가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이어진 육괴였다.

선캄브리아기의 암석은 크게 세 개의 육괴로 구분한다. 영남육괴, 소백산육괴, 경기육괴, 낭림육괴다. 영남육괴와 경기육괴 사이에는 옥천대(沃川帶)라 한다.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을 결정편마암계와 화강편마암계로 나눌 수 있다. 결정편마암은 모든 퇴적암에서 변성된 것이고, 화강편마암이 변성된 퇴적암에 관입한 화강암의 변성물이라 한다. 이들을 세분하면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이다. 영남권은 신라층과 낙동층에 속한다. 낙동층은 소백산맥에서 낙동강을 따라 형성된 지질이다. 우리 거제는 퇴적암인 낙동층군(洛東層群)과 화성암의 화강암층 지질로 형성되어 있다.

낙동강의 지맥이 연유(緣由)된 사등, 신현, 거제, 하청, 장목, 장승포, 동부 일부까지는 퇴적암이고, 둔덕, 남부, 동부 일부와 일운은 화성암 계층의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1. 비옥한 토지

거제의 주산인 계룡산 아래 고현지역은 거제의 중심 도시로 시청이 자리하고 있다. 상동, 용산들과 수양, 장평들에는 6·25때 포로 수용소가 설치되었던 곳이다. 그 북단 장평지역에는 1974년에 삼성조선소가 들어섰다. 산(山)의 배후에는 조선시대 거제부(巨濟府)의 고도였던 거제면을 비롯한 동부 일대의 넓고 비옥한 땅이 펼쳐져 있다. 이곳은 내륙 지역으로 거제 옥산에서 동부 구천까지 10km의 들이 펼쳐 있다. 거제에 처음 와 본 사람은 이렇게 넓은 농토가 있는 것을 보고 경탄을 한다.

대금산 아래는 장목, 율천, 외포, 덕포, 하청들을 만들어 놓았다. 이 산의 정기를 받아 많은 인재가 났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 산 정기를 받아 큰 닭섬(大鷄)에서 났다. 옥

너봉 아래는 아주, 옥포, 지세포들이 있다. 고려시대 아주현(鵝洲縣)이 자리하였던 곳에 1973년에 세계 굴지의 대우조선소가 들어섰고, 국제무역항의 장승포항을 비롯한 지세포항 등은 상고시대 일본 배길의 중요한 나루터였다. 지금은 국제무역항으로, 어업전진기지로서 이름난 곳이다.

가라산과 노자산은 고려시대 송변현(松邊縣)이 있었던 곳으로 다대, 다포, 대포, 율포, 부춘의 넓은 들이 있다.

산방산 아래는 거제의 곡창지대인 둔덕들과 오량, 언양, 광리(번덕), 술역들이 있다. 식량은 자급자족이 된다. 농경사회가 어느 지역보다 발달하였고, 따라서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자원이 풍부했다. 그래서 일찍이 삼한시대 두로국(瀆盧國)이란 거대한 부족 국가가 거제에 있었다.

거제는 서북쪽으로 가로지른 계룡산과 동남으로 치누운 대금산이 주맥이 되어, 중앙 협곡을 따라 넓은 들이 만들어져 있다. 10대 평야지(平野地)라 불리어 졌던 곳이다.

- 둔덕들 ⇒ 옥동 마을에서 하둔까지의 들을 말한다.
- 동부들 ⇒ 구천동과 부춘에서 산양 산촌에 이르는 들이다.
- 명진들 ⇒ 거제면 지역은 옥산과 내간, 외간에 넓은 들이 있어도 명진들을 제일로 친다. 명진들은 동부 산촌과 경계한 오수마을에 이르는 들이다. 이 지역은 신라시대 명진현이 있었던 지역이다.
- 고현들 ⇒ 고현들은 문동에서 용산, 상동, 고현에 이르는 들이다. 6.25동란 때 유엔군이 포로수용소를 설치하였다. 북부지역 일부는 고현 시가지의 주거지에 편입됐다.
- 장평들 ⇒ 계룡산 북단 바닷가에 길게 뻗어, 장평 와치에 이르는 넓은 들이다. 들이 길기 때문에 장평(長坪)이라 했다. 6.25동란 때 포로수용소의 비행장이 설치되었고, 1974년에 삼성조선소가 들어섰다. 지금은 이 일대가 조선소와 주거지로 변했다.
- 아주들 ⇒ 아주, 아양, 내곡, 탑골 앞들이다. 옥포만 주위에 있는 들이다. 1973년에 옥포 대우조선소가 들어섰다. 신라시대 아주현이 있었던 곳이다.
- 유계들 ⇒ 하청면 유계리와 대곡들을 말한다. 이 지역은 묵개 바다와 접해 있는 곳이다.
- 연초들 ⇒ 죽토마을에서 연사 임전포로수용소 MP 다리 있는 곳까지다.
- 지세포들 ⇒ 지세포와 소동앞까지를 말한다. 지세포는 해안변에 마을이 차지하고 있다.
- 율천들 ⇒ 장목 밤개에서 대금 앞까지의 들을 말한다.

제2절 산(山)

우리나라의 산맥은 중국방향산계, 요동방향산계로 나눌 수 있다. 중국산계방향 산계는 한반도의 남북방향 또는 북서방향의 구조선을 따라 형성된 것이다. 이 상계에 속하는 것이 태백산맥, 낭림산맥, 마천령산맥 등이고, 중국방향산계는 북북동 남남서 방향의 산맥들로 소백산맥, 노령산맥, 차령산맥, 광주산맥, 마시령산맥 등이다.

우리 거제의 산맥은 태백산맥계가 북으로부터 이어졌고, 소백산맥계가 서남에서 견내량을 건너 시래봉에서 시작되었다. 이 두 산맥이 서로 휘감아 산을 만들고 섬을 만들어 놓았다.

1. 거제봉산(巨濟封山)

섬이면서 산지(山地)가 깊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기후와 습도가 맞아서 숲이 울창하고 곧으며, 바른 거목의 용재림이 많이 생산된다.

옛부터 산자수려한 곳으로 알려져 벌목을 허가 없이 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았다. 이를 봉산(封山)이라 한다. 숲이 울창하고 새털 같다고 하여, 봉산(鳳山)이란 말도 사용하고 있다.

〈거제봉산의 노래〉

가세가세 나무하러 가세
거제 봉산에 나무하러 가세
앞산에 올라 소목 내고
뒷산에 올라 대목 내어
기와 삼칸 집을 지어
우리 님을 맞이하세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열대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기후가 따뜻하고 강우량이 많다. 이런 조건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좋은 특성을 갖고 있어서 자작, 동백, 팔손이, 후박, 참나무 등 많은 수종이 자생하고 한난(寒暖)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야생초도 많이 자라고 있다.

고려 때 팔만대장경을 만든 자작나무는 거제의 봉산(封山)에서 자란 나무다.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고려 고종(23년)에 판각한 불경(佛經) 국보 제32호 81,258매, 이 가운데 후대에 판각된 15종의 문헌은 보유판(補遺板)이다. 처음 제조한

대장경과 후속 대장경이라 한다.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1236년(고종 23년) 당시의 수도였던 강화에서 시작하여, 1251년 9월에 완성되었다. 이 사업은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주도했으며 거제도, 제주도, 완도 등지의 섬에서 나는 자작나무로 만들었다.

계룡산(鷄龍山), 산방산(山芳山), 대금산(大錦山), 가라산(加羅山), 노자산(老子山), 남여산(南呂山), 북병산(北屏山), 선자산(扇子山), 옥녀봉(玉女峰), 망산(望山), 양산(鶯山), 국사봉(國士峰) 등이다.

2. 계룡산(鷄龍山)

거제 중심지에 있는 산이며 높이 566m이다. 이 산 동북은 거제시청 소재지인 고현이며 남서로 거제면, 동부면이다. 북단에는 1974년도에 삼성조선소가 들어섰다. 산의 형태는 구천담에서 서북쪽 가조도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다. 그 생김이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비계포란형(飛鷄抱卵形)이라 한다.

산정상엔 닭의 머리를 닮았고, 꼬리는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계룡산이라 한다. 아홉개의 꼬리가 구천계곡에 뿌리를 박고 있다. 이곳을 구룡호 또는 구천계곡이라 하는 심산유곡이다. 1987년 11월 21일에 준공한 구천담이 있다.

정상에서 거제쪽 바위틈 밑에 의상대(義湘臺)가 있다. 바위가 병풍을 두른 곳에 50여 평 남짓한 절터가 있는데, 신라시대 화엄종의 개조였던 의상(義湘) 대사가 암자를 짓고 수도한 곳이라 전해오고 있다. 1960년경 이곳 대하(臺下)에서 금동 불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절터에서 고현쪽으로 내려오는 8부능선에 집터가 있다. 이곳도 절이 있었던 곳이라 하는데,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주위는 대나무와 우물이 있다.

정상으로 오르는 바위틈에 장기관 바위가 있는데, 신선이 놀던 곳이란 전설이 있다. 불이문을 지나면 억새풀밭 평지가 있고, 태고 때 캐악이란 신선이 무를 심고 살았다는 무밭 등이다. 그 뒤쪽에 거북이가 하늘로 승천하듯이 기어오르는 바위가 있다.

거제면 소재지에서 고현으로 넘어 다녔던 용산재가 있다. 이 재를 고자산재라 부른다. 그 위쪽 음달바위 정상에 6.25때 포로수용소를 감시하던 UN군 통신대 잔해가 있다.

거제의 수봉(首峰)으로 우리나라 십승지(十勝地)의 하나로 알려진 곳이다. 정감록 비결에 있는 계룡산하구백만(鷄龍山下救百萬)이라 말한 명승지이다.

6.25동란 때 주민 10만, 피난민 20만, 포로 17만이 이 산 아래서 목숨을 구했다. 그 후부터 이 산을 정감록이 말한 진짜 계룡산이라 한다.

산을 오르는 길은 고현과 거제쪽이다. 고현에서는 기독병원 뒷길, 계룡사 뒷길, 공설운동장 뒷길, 장평 사기장골 등이 있다. 7부능선에 임도(林道)가 있어서 용산마을과 심적사에서 이 길따라 거제 열 마지기 고랑으로 갈 수 있다.

거제에서는 거제여상 옆길이 있고, 서정리 뒷피길은 임도가 정상까지 나 있다.

〈등산로〉

고현중학교 앞 → 계룡사 → 약수터 → 의상대 → 정상, 고현 공설운동장 → 체육공원 → 김현령비석 → 약수터 → 임도 → 정상, 기독교병원 옆 정수장 → 임도 → 포로수용소 잔해 → 통신탑 → 정상, 용산마을 뒤 임도 → 고자산치 포로수용소 잔해 → 통신탑 → 정상, 거제 옥산금성 뒷길 → 저수지 옆 → 묵밭등 → 포로수용소 잔해 → 통신대

3. 산방산(山芳山)

거제시청 소재지의 서남쪽 둔덕면 옥동, 산방과 거제면 송곡마을 뒷산이다. 높이 507.2m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산정상이 온통 바위산으로 마치 금강산을 보는 듯하다. 신라시대 귀절암(貴絶庵)과 설매암(雪梅庵)이 있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산의 생김새는 피 산(山)자같이 생겼다. 이 산을 거제의 필봉이라 한다. 3개의 봉우리가 붓통에 꽂혀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옥동마을과 산방마을을 경유하여 산을 오르는 등산로가 있다. 그리고 옥동에서 옥산으로 넘어가는 고개에서 임도가 나 있다. 옥동마을쪽 산록에는 1936년(丙子) 3월에 대덕암을 짓고 통영 용화사 말사로 이용하다가, 1965년경 이상주 스님이 덕봉암으로 개칭한 것을, 1985년 다시 대덕암으로 변경한 절이 있다. 산방에는 1945년(乙酉) 3월에 보현암이란 절을 창건했다.

산정상을 돌아 바위틈을 타고 내려가면 오색터(五色基)가 있다. 바위틈 아래 물이 나는 샘이 있다. 이곳을 무지개터라 한다. 산방쪽으로 내려가면 임진란 때 옥씨가 피난했다는 옥굴이 있고, 그 아래 염소굴, 벼들굴, 미륵굴이 있다. 미륵굴에는 삼존불상이 있었는데, 불상 하나는 간 곳이 없고, 두 개는 목이 잘려 있다.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호국 석굴이다.

산에는 진달래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자생식물이 자라는 곳이다. 5월 단오날과 칠월칠석에 통영을 비롯하여, 원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에 올라 소원을 기원했던 명산이다.

등산길은 산방의 보현사 뒷길, 옥동 대덕암 뒷길, 옥동농장 윗길, 상죽전에서 무지개터 가는 길, 거제 옥산길, 옥동 임도길 등이다.

4. 대금산(大錦山)

거제의 북악(北岳)이라 하는 이 산은 장목면 대금, 시방, 외포, 대계, 소계 뒷산이 되고, 장승포 덕포와 연초 명동리 일부에 속해 있다. 높이 437.5m으로 부산항을 굽어보면서 진해 천자봉과 응대하고 있다. 산 정상에서 보면 진해, 마산, 부산이 눈아래 내려다보인다. 신라시대 금과 은을 팠던 곳이라 하여 큰 대(大)자, 쇠 금(金)자를 썼으나, 조선조 중기에 와서 산이 비단결같이 아름답다고 하여, 비단 금(錦)자를 써서 대금(大錦)산이라 했다고 한다.

대금산은 산세가 웅장하면서도 나무가 없다. 북쪽으로 진달래가 중금산까지 군락을 이루고 있고, 동남 서로 한길에 넘는 풀이 비단폭같이 덮여 있다. 이 풀을 뜯어먹고 자란 염소는 불로영약이라 할만큼 약효가 난다. 동해에서 솟는 해와 일출은 장관이다. 외포와 연초 명동에서 차가 오를 수 있는 임도가 있다.

대금산 아래 중금산성이 있다. 이 산정상에 1875년 고종 을해에 강석원(姜錫元), 정춘근(鄭春根), 김정헌(金正憲) 세 사람이 외침을 방어하기 위해 울천·대금·시방 3개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성을 쌓았다. 남해안의 군량을 비축하는 성으로 사용했다. 성내는 봉화를 올렸던 봉화터가 있다. 그 산아래는 생수가 솟아나는 샘이 여러 곳 있다. 장목 흙골, 절골을 비롯하여 연초 명동 도천골 등은 약수같은 샘물이 평평 솟아난다. 명동마을 위쪽 7부능선에 무지개 약수터가 있다. 이 약수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솟아 넘친다.

5월 단오날과 칠월칠석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 물을 떠서 마시고 목욕을 했으며, 만병 통치수 약물로 전해져 온다.

〈등산로〉

시방마을 → 절골 → 임도 → 참꽃등 → 정상, 외포 → 상포마을 뒤 임도 → 차도(車道) → 진달래 꽃등 → 정상, 외포 → 점골 → 임도 → 차도(車道) → 진달래 꽃등 → 또는 역새 풀밭등 → 정상, 연초 명상 → 차도(車道) → 진달래 꽃등 → 정상

5. 가라산(加羅山)

동부면에서 동남방 30여리 지점에 있다. 노자산과 연결되어 있는데, 가라산은 바다 쪽이다. 학동 오지막계곡을 좌우로 하여 가라산과 노자산으로 구분한다. 가라산은 거제에서는 제일 높고, 높이는 585.5m이다. 이 산은 남부면 다대, 다포, 저구 뒷산이 된

다. 가라산 봉우리가 동으로 구불구불 칙닝쿨처럼 달려오다가, 갈곶리 앞 바다에서 섬이 생겼다. 이 섬이 칙섬인 갈도(葛島)다. 3개의 봉우리가 부용(芙蓉)이 떠 있는 것같은 아름다운 섬이다. 바다의 금강이라 하여 지금에 와서는 해금강(海金剛)이란 이름이 더 잘 통한다. 가라산 정상에는 가뭄 때 기우제를 지내던 제단이 있고, 남해안을 경계하던 봉수대가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 地勝覽)에 보면 가라산 남쪽10리에 송변현(松邊縣)이 있었다고 한다. 가라산 봉수대는 남해안을 경계하는 전초기지로 해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거제의 주봉인 계룡산 봉수대와 한배곶(閑背串) 봉수대에 알렸다.(한배곶 지금의 한산도)

가라산 남쪽 송변현의 뒷산 증봉에 산성이 있다. 이 산성이 다대산성이다. 고려시대 축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산성은 외침을 막기 위해 축성된 성이라 전해 온다. 성안에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단이 있고, 성주위는 고목이 우거져 있고, 성벽은 잘 남아 있다. 등산길은 다대마을저수지, 다대초등학교 뒤편, 저구마을 뒤 도로변, 탑포마을 뒤 도로변이다. 산이 험하고 가파르다.

산에 오르면 막막한 바다 수평선 위로 솟는 일출과 낙조가 장관이다. 다도해의 푸른 물결 사이로 오가는 어선들이 한가롭다.

산정상 남쪽은 천길 절벽이다. 이 절벽 아래 신라시대 견암사(見岩寺)란 절이 있었다고 한다. 절터의 주초와 외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절에는 많은 스님이 있었는데, 스님이 먹을 밥(供養)을 짓는 쌀뜨물이 바다까지 흘러가서 왜적이 이것을 보고 많은 승병(僧兵)이 살고 있는 줄 알고 겁을 먹고 도망을 갔다는 전설이 남아 있다.

〈등산로〉

학동 오지막 → 야생화 군락지 → 정상, 남부 탑포 뒤 오른쪽 산길 → 정상, 저구 주요소 → 다대산성 → 헬기장 → 정상, 다대 초등학교 → 농장 → 다대 산성 능선길 → 정상, 다대산성 → 헬기장 → 정상

6. 노자산(老子山)

계룡산의 동남부에 있다. 능선이 가라산과 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노자산인지 분별이 어렵다. 동부면 학동리 내출마을의 계곡을 경계로 하여 학동쪽에 있는 산이 노자산이다. 동부면 학동, 율포, 부춘의 뒷산이며 높이는 565.0m이다.

천연기념물 233호의 동백군림과 팔색조의 서식지이다. 뿐만 아니라 자작나무, 박달나무 등의 희귀목이 자생한다. 합천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판 나무가 거제도에서 나는

자작나무와 박달나무로 만들었다고 한다. 노자산·가라산을 비롯한 거제의 5대 산에서 나는 박달나무, 자작(白樺)나무를 잘라서 바다로 이동하여 강화도로 옮겨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상사화(相思花) 등 많은 식물이 자생한다. 수목이 울창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다. 불로영약의 산삼이 있다고 하여, 노자산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산이다. 정상에 기우단(祈雨壇)이 있고, 북단에 기도원과 혜양사(慧洋寺) 절이 있다. 혜양사 계곡에는 용추폭포(龍秋瀑布)가 있다.

가라산 북단 중허리를 동부 평지에서 울포로 넘어가는 임도(林道)가 개설되어 있다.

등산길은 혜양사 옆 능선, 평지 마을 임도길, 휴양림 임도길, 학동 내출계곡의 능선길 등이다. 휴양림 임도길이 가장 오르기 쉽다. 산에 오르면 다도해의 낙조와 통영 시가지가 눈아래 보인다.

〈등산로〉

동부면 소재지 → 부춘골 혜양사 → 헬기장 → 정상, 평지마을 → 임도 → 능선 → 헬기장 → 정상, 자연휴양림 → 등산로 → 정상, 학동고개 → 헬기장 → 대피소 → 정상

7. 남여산(南呂山)

연초면 다공리앞 산이다. 높이 282m으로 북쪽 계곡에 이목댐이 있고, 동북으로 충해공원묘지가 있다. 이 산에 고려시대 차(茶)나무가 있었다. 여기서 생산되는 차를 진상하였다고, 그 아래 마을 이름이 다공(茶貢)이라 한다. 지금은 차나무를 찾을 수 없다.

산정상에는 기우제를 지낸 제단이 있고, 굴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고 하여 굴재봉이라 한다. 이 굴에서 임진란 때 신응수(辛應壽), 김희진(金希璉), 윤영상(尹榮祥) 세 장사가 숨어 있다가, 왜적의 동태를 살핀 후 적이 하청장터에서 분탕질을 하고, 술에 취해 있는 틈을 타서 공격을 했다. 방심하고 있던 적들은 다공 앞 들판으로 도망을 갔지만, 그 뒤를 추격하여 모두 소탕했다.

몰살한 다공 앞 들을 몰바대들이라 한다.(적이 바다처럼 沒 했다는 뜻). 남여산은 산벚꽃나무가 많이 자생한다. 등산길은 다공마을앞 시내를 건너와 이남마을 뒷길 절골로 오르는 길 등이 있다.

8. 북병산(北屏山)

동부면 망골과 망치고개를 경계로 하여, 신현읍 삼거리에 주맥을 내려 뺏어 문동과 아주골 옥녀봉 줄기와 연결되어 있다. 이 산은 북쪽을 병풍처럼 가리고 있다고 하여 북

병산이라 한다. 높이 465.4m이다. 망치고개에 고려시대에 축성했다는 성지가 산중간에 서 마을까지 길게 뻗어 있다. 문동계곡 상류에는 문동폭포가 있고, 삼거리에는 신라시대에 있었다는 은적사(隱跡寺)절터가 있다. 장승포, 일운, 동부에서 고향으로 다니던 세 갈래 길이 협곡에 있는 삼거리 마을은 교통의 중심지였다.

계룡산과 북병산이 만나는 지점이 삼거리다. 여기서 동부, 거제, 해금강으로 가는 길과 신현으로 가는 길, 북병산 고개를 넘어 일운 소동과 지세포로 갈 수 있는 삼거리 길이다. 협곡을 따라 가면 심원사가 있다. 이 일대는 표고버섯 재배를 하는 곳이다. 북병산은 구천계곡에서 발원하는 물이 구천담에 모인다.

등산길은 망치고개에서 달뜬 바위 옆을 지나는 길, 삼거리 반송치 앞산으로 오르는 길, 삼거리 다리 골재에서 오른쪽 길, 심원사 뒷길 등이 있다.

9. 선자산(扇子山)

신현읍 용산과 거제면 명진 뒷산이다. 높이 507.0m이다. 계룡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 산 중허리 고개가 고자산 고개라 한다. 계룡산과 선자산의 중간 낮은 봉우리를 넘어 용산과 명진을 넘나들던 고개다. 고자산이란 말은, 아주 오랜 옛날에 이 고개를 넘어 가던 남매가 있었는데, 갑자기 비를 만났다. 비에 젖은 누나의 몸매를 보고 동생의 음기가 발동하였다. 누나에게 음심(淫心)을 내게한 자신의 음기를 돌려 잘라 고자가 되었다고 하여, 이 산 고개를 그때부터 고자산 고개라 한다.

용산마을 계곡에는 용이 살았다는 용덤병이 있고, 그 아래 절이 있었다고 하여, 용산을 사동(寺洞)이라 했다. 선자산 등산길은 용산마을 뒷길, 용덤병을 지나 협곡으로 오르는 길, 고자산 고개에서 능선을 타고 오르는 길, 명진마을 뒷길, 삼거리마을 뒷길 등이 있다.

10. 옥녀봉(玉女峰)

옥녀봉은 거제에 4곳 있다. 옥녀봉에 얽힌 전설은 4곳 다 비슷하다. 하늘의 옥황상제 딸이 죄를 짓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산으로 변했다는 전설이다. 장승포 옥녀봉은 거제의 동쪽에 위치한 산으로 장승포, 옥포, 아주, 일운 옥림, 소동의 뒷산이 된다. 높이 554.7m이다. 이 산아래 1973년도에 옥포조선소가 들어섰다. 아주동쪽 산록에는 신라시대 법률사란 절이 있었다고 한다. 이 절터 주위에서 1935년 아양리 박학중씨가 논갈이를 하다가, 쟁기 끝에 걸려 나온 삼층석탑을 복원해 두었는데, 대우조선소 안에 있다. 탑이 있었던 마을을 탑골이라 한다. 내곡마을에는 아주현(鵝洲縣)의 치소가 있었던 곳

으로 성지 흔적이 남아 있다.

가조도 옥녀봉은 사등면 가조도 섬 북단에 우뚝 솟아 있다. 높이 332m이며, 한려수도의 뱃길에 있다. 이 산에 군마(軍馬)를 키웠으며, 정상에는 기우제를 지내던 제단이 있다. 주위는 동백나무가 울타리 역할을 한다. 멀리 진해, 마산, 통영, 고성항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임진란이 일어나자, 일본 사람들이 군마를 조련했고, 정상에는 포대를 설치하였다. 8부 능선에 약수샘이 있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 5월 단오날과 칠월칠석에 통영, 고성을 비롯하여, 거제 사람들이 이 산에 올라와서 약수물을 마시고 목욕을 했고, 마을끼리 편을 만들어 씨름을 비롯한 각종 민속행사를 했다.

칠천도 옥녀봉은 칠천도 중앙에 우뚝 솟아 있는 산이다. 이 산 정상에도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 있다. 마산, 진해, 고성, 부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둔덕 옥동 옥녀봉은 산방산 북단에 샷갓을 얹어놓은 것같이 생긴 나지막한 산이다. 골옥상 윗마을 뒷산이다.

〈등산로〉

대우초등학교 뒤 언덕 → 헬기장 → 정상, 옥림리 이진암 → 내조암 → 정상, 문동폭포 → 체육시설공원 → 정남쪽 능선 → 정상, 대우조선 동문 → 농장 → 봉화대 → 능선 → 헬기장 → 정상

11. 망치산(望峙山)

거제의 관문인 성포항에 우뚝 솟아 있는 산이다. 높이 362m이며 언양, 장좌, 사근, 지석, 금포, 대리 뒷산이다. 사월포(沙月浦), 성포(城浦)항을 내려다보고 있는 관망대 역할을 했다. 멀리 부산·진해·마산·고성·통영항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부산, 여수의 뱃길을 감시하는 초소가 있었다.

계룡산의 북단 지맥이 성포항 바닷가에서 우뚝 솟아 망을 보는 섬같이 생겼다. 이 산 자락이 바다에 잠겼다가, 다시 치솟아 가조도 섬이 생겼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망산(望山)이다. 진해, 마산, 고성, 통영 앞 바다를 경계할 수 있는 망대와 봉화대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으나, 봉수대의 자료는 찾지 못했다. 정상에는 기우제를 지내던 단이 있다. 등산길은 대리마을 뒷길, 언양마을 뒷길, 금포마을 뒷길, 장좌마을 뒷길 등이다.

12. 국사봉(國士峰)

신현읍 수월리와 아주동 용소 내곡 뒷산이다. 국사봉은 높이 464.0m이며, 두 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솟아 있다. 멀리서 보면 조복(朝服)을 입은 신하가 어전(御前)에 읊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우조선과 옥포만 그리고 고현과 연초가 산아래 있다. 산이 완만하고 높지 않다. 수월마을 뒷길과 옥포관광호텔 뒷길, 용소와 내곡에서 등산길이 있다.

산중턱에는 평퍼짐한 농장이 있고, 샘물도 있다. 수월에서 용소골로 넘어가는 길가 큰 바위에 발터가 있다. 이 바위는 계룡산에서 무를 심던 케약이가 뛰어 왔던 발터란 전설이 있는 바위다. 국사봉 동쪽 중봉 명당지에 거제 반씨의 입거 시조인 반부(潘阜)의 묘가 있다. 산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거제의 모든 산들을 통솔했던 산이라 하여 국사봉이라 했다는 말이 전해 온다. 국사봉은 행주형(行舟形)의 산으로 돛을 단 배가 옥포앞 바다에 정착한 형국이라 한다.

〈등산로〉

옥포 → 옥포관광호텔 뒤 → 능선 → 정상, 내곡 → 울음이재 → 능선 → 정상, 수월 → 마을 뒤 능선 → 임도 → 정상

13. 앵산(鶯山)

거제시청 소재지인 고현만 북쪽에 우뚝 솟아 있는 앵산은 연초면과 하청면을 경계하고 있다. 산 모양이 찌꼬리 같이 생겼다고 하여 앵산이라 한다. 하청면 덕곡 앞바다 먹개(墨浦)를 향해 날아가는 형국이다. 찌꼬리가 바다에 있는 먹이를 노려보는 비앵포란 형(飛鶯抱卵形)의 명산으로, 이 산아래는 학자와 예술인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산이라 한다. 뒤쪽은 연초면 한내마을이며, 높이는 507.4m이다. 산세가 험하고, 절벽 암반이다. 앵산의 좌청룡 날갯죽지에 고려시대 하청 북사(北寺)가 있었다.

그 절에 있던 동종은 공민왕 7년(1358) 왜구가 약탈하여 사가현 승낙사에 보존하고, 일본 중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절터 옆에 약수가 있다. 이 약수는 유계마을 공동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북사 아래 조선시대 정수사(淨水寺)가 있었다. 그 절터에 1980년대 광청사 절이 창건되었다. 정수사의 부도 탑과 맷돌 그리고 물레방아의 확(절구통)이 남아 있다.

앵산 등산길은 광청사 뒷길, 석포리마을 뒷길, 한내 돌 샘으로 오르는 길, 한곡마을 뒷길 등이다. 이 산에는 자작나무가 자생하고 절터 근방에 대나무숲이 있다.

〈등산로〉

유계 → 저수지 → 광청사 → 정상, 석포 → 석포고개 능선길 → 억새밭 → 정상,
한내 → 해인정사 → 암석지대 → 억새밭 → 정상

제3절 하 천(河川)

빗물과 그 밖의 지표수가 모여 물길을 따라 흐르는 것을 강과 하천으로 구분한다. 강(江)은 큰 것이고, 하천(河川)은 작은 것이다. 하천에서 좁고 작은 것은 세천(細川)이라고 하고, 계천(溪川)은 골짜기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말한다.

거제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빗물이 하천에 머무를 시간이 짧고, 하천의 규모도 크지 않다. 하천은 산과 어울려 비옥한 토지의 젖줄이 된다.

우리나라 하천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직할하천(直轄河川), 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準用河川), 지방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있다. 지방하천은 62개, 준용하천 3,807개, 지방하천 55개다. 일반적으로 여러 시(市)나 도(道)를 관류(灌流)하는 것을 직할하천이라 하고, 시군을 관류(灌流)하는 것을 준용하천이라 한다.

홍수의 발생빈도는 7월이 가장 높고, 다음이 8, 9, 6월 순위다.

하천법은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우리나라는 1927년에 제정된 조선시대 하천령을 폐지하고, 1961년 12월에 제정하여 그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했다.

거제도에는 오량천, 사등천, 둔덕천, 방하천, 간덕천, 오수천, 산양천, 구천천, 부춘천, 소동천, 외포천, 유계천, 연초천, 송정천, 수월천, 고현천, 아주천, 덕포천 등 18곳의 준용 또는 지방하천이 있다.

1. 오량천(烏良川)

오량천은 사기 장골에서 소류지를 경유하여 절골 앞들로 흘러 오량성 북단과 신계마을 앞으로 흐른다. 연장 2,800m, 유역면적 6.20km²이다.

2. 사등천(沙等川)

사등천은 백암산(白岩山)에서 흐르는 물이 언양저수지를 거쳐 언양, 대리, 사등 들판

제1편 자연

의 전답에 사용되고, 사등 앞 바다로 흐른다. 연장 2,500m, 유역면적 4.80km²이다.

3. 둔덕천(屯德川)

산방산(山芳山)에서 흐르는 물이 옥동, 점골을 경유하여 마장 거림으로 흘러 방하의 물과 합류, 하둔 앞 바다로 흐른다. 연장 7,000m, 유역면적 20.23km²이다.

4. 방하천(芳下川)

산방산 서쪽에서 절골, 소류지를 경유, 산방, 방하마을을 지나 거림에서 옥동의 물과 합류하여 하둔 바다로 흐른다. 연장 2,500m, 유역면적 4.80km²이다.

5. 간덕천(看德川)

백암산에서 발원하여 옥산 외간마을 들판의 젓줄이 되고, 외간 앞 바다로 흐른다. 연장 2,600m, 유역면적 10.30km²이다.

6. 오수천(烏首川)

계룡산과 선자산 사이 고자산 치에서 발원하여 명진소류지 경유 명진 오수마을들의 젓줄이 되고, 오수 간척지를 경유하여 오송 앞 바다로 흐른다. 연장 3,000m, 유역면적 4.50km²이다.

7. 산양천(山陽川)

산양천은 구천계곡 망골과 노자산에서 발원하여 평지·연담의 동부저수지에서 구천계곡의 물과 합류한다. 산양·산촌으로 흘러서 산촌 간척지 거제만 바다에 이른다. 연장 13.7km 유역면적 36.50km²이다. 거제에서 제일 긴 하천이다. 일명 오망천(烏望川)이라 하는데, 이는 망치고개에서 오수목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8. 구천천(九川川)

북병산 북쪽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구천담에 담수되었다가, 구천동 다리 있는 곳에서

합류한다. 이곳이 구천천이다. 여기서 망골의 물과 합류하여 흐른다. 9개의 계곡이 합류한 깊은 골짜기라 하여 구천이라 한다. 연장 5,200m, 유역면적 18.90km²이다.

9. 부춘천(富春川)

노자산 북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용추폭포를 지나 부춘 삼거림 들의 젓줄이 된다. 동부면 오망천 다리 있는 곳까지를 말한다. 연장 2,500m, 유역면적 6.80km²이다.

10. 소동천(小洞川)

북명산 동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소동저수지를 경유, 소동 앞 바다로 흐른다. 연장 2,500m, 유역면적 6.10km²이다.

11. 외포천(外浦川)

대금산 동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점골과 외포로 흘러 외포바다에 이른다. 연장 2,800m, 유역면적 5.60km²이다.

12. 유계천(柳溪川)

앵산의 절골에서 발원하여 유계와 동리들을 지나 먹개(墨浦) 바다에 이른다. 연장 2,600m, 유역면적 15.00km²이다.

13. 연초천(延草川)

연초천은 장목면 울천산에서 발원하여 이목댐을 지나 죽토에서 연사들을 흘러 고현 앞 바다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연장 10.5km, 유역면적 22.20km²이다.

14. 열녀천(烈女川)

죽전 범바위골에서 흐른 물이 연초 삼거리로 흘렀다. 관암마을 동쪽으로 흘러 열녀비석 아래 송정천과 합류한다. 여기까지가 열녀천이다. 연장 200m, 유역면적 3.33km²이다.

15. 수월천(水月川)

국사봉계곡에서 발원한 물이 수월을 지나 양정에서 흐르는 물과 저산 앞에서 만나 다
나까농장 서편으로 흘러 고현바다에 이른다. 연장 3,600m, 유역면적 11.00km²이다.

16. 고현천(古縣川)

옥녀봉 서쪽에서 발원한 물이 문동폭포와 문동저수지를 경유하여 용산마을 앞에서 선
자산 물과 합류 고현시까지 동편으로 흘러 바다에 이른다. 연장 5,600m, 유역면적
14.80km²이다.

17. 아주천(鵝洲川)

국사봉 남쪽 안골과 배골에서 발원한 물이 안골 앞에서 합류하여 용소골 앞으로 흘러
옥포 앞 바다에 이른다. 연장 2,100m, 유역면적 6.10km²이다.

18. 덕포천(德浦川)

덕포 강망산계곡에서 발원하여 상덕·하덕마을 앞을 지나 덕포해수욕장이 있는 바다
에 이른다. 연장 2,600m, 유역면적 4.10km²이다.

제4절 항 만(港灣)

항만은 육지가 깊숙이 들어간 곳이다. 계룡산을 중심으로 하여 가라산, 산방산, 대금
산, 옥녀봉이 동서남북으로 잘 배치되어 있다.

거제의 배랑(背梁)은 통영 벽방산(碧芳山)이 견내량 해협에서 자맥질했다가, 다시 솟
은 시래봉(始來峰)이 육지와 연결하여 노자산, 가라산의 시맥(始脈)이 되었고, 진해의
천자봉이 가덕해협을 지나 저도(猪島)·이수도(利水島)의 두 섬을 탄생시키고, 대금산
에서 앵산, 옥녀봉에 이르렀다. 이 두 산맥이 치마폭처럼 감싸고 있다. 산의 기운이 바
다에 빠졌거나 육지에서 용트림하여, 굴곡진 항구를 만들고 섬을 만들어 놓았다.

섬 자락에 협곡을 이룬 항구는 386.60km(약 970리)로 굽이굽이 절경이다.

호수처럼 조용한 해안변에는 동백, 해송, 후박나무 등 상록수와 활엽(闊葉)이 즐비하고, 아열대 식물과 괴기(怪奇)·절묘(絶妙)한 바위가 절경을 이루고 있다. 난·한류가 교차하는 바다에는 다양한 어류와 해산물이 풍부하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거제는 일본과 가깝고,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동해와 서해의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이다. 항구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방어 성(城)이나 진(鎭)을 설치하였다. 고려시대는 태조 왕건(王建)이 송악 일대를 근거로 해상무역에 종사하여 개국초부터 송나라와의 해상무역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항만은 고려 때 정비된 조운제도(漕運制度) 및 삼포개항(三浦開港)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운은 고려말부터 조선초기까지는 서해안과 남해안에 출몰한 왜구들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1396년(태조 5년) 김사형(金士衡)의 대마도 정벌과 1416년(태종 16년) 이종무(李從茂)의 대마도 원정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 조운제도가 부활되었다.

조선시대의 대외무역은 왜구에게 개방한 삼포의 무역과 압록강변의 국경무역으로 구분되는데, 국경무역은 육로를 배경으로 한 반면 해로와 항만을 배경으로 성립되었다. 1407년 왜구의 회유책으로 동래의 부산포와 응천의 내이포를 개항하고 왜관을 설치하였다. 1426년(세종 8년)에는 울산의 염포(鹽浦)를 다시 개항하였다. 1510년(중종 5년) 삼포의 왜인들이 난을 일으킴으로서 부산포와 염포를 폐쇄하였다. 1521년에 부산포를 다시 개항하여 임진란 이후까지 제한된 교역을 허용하였다. 1603년(선조 36년)에 부산포의 절영도(絶影島)에 임시 왜관을 설치하여 무역을 재개하였고, 1607년 왜관을 두모포(斗毛浦)로 옮겼다가, 1607년(숙종 4년)에 초량 왜관으로 확정하였고, 1878년(고종 13년) 강화도조약에 의거, 이 지역을 일본전문거류지(日本專管居留地)로 개방하였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개항된 항구는 부산(1876년), 원산(1880년), 인천(1883년), 목포, 진남포, 군산, 마산, 성진(1899년), 용암포, 청진(1908년), 신의주 나진, 웅기, 해주, 다사도(1910년) 등이다.

거제의 지세포항·구조라항 등은 삼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중국의 사신이 경유하였던 항구이다. 자연적인 조건이 풍랑을 피하기 좋은 항구로 일본과 가깝기 때문이었다.

항만은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이 연계되는 관문(關門)으로서 육지의 산물을 선적하거나, 입항하는 선박의 화물을 양륙(揚陸)하는 곳이며, 또한 여객이 승하선(乘下船)하는 장소이다. 많은 사람들과 화물이 출입하는 관문으로 사회·경제·정치·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해운은 운송비가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대량 수송이 가능하여 항로의 기점인 항만은 국가의 해외 발전의 출구인 동시에 외세의 침입로가 되기도 했다. 신라는 청해진을 설치하여 황해와 동중국해의 제해권을 장악한 바 있으며, 1970년대 이후의 국력신장은 항만개발에 있었다.

해상 교통의 발달에 따라 일찍이 항만에는 큰 도시가 생겼고, 창고업, 조선업, 하역

업, 부선업(浮船業), 무역업, 선구업, 냉동업, 수산 가공업 등이 발달했다. 해운항만청, 검역소, 해난재판소, 세관, 금융기관,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각종 기관이 들어섰다. 특히, 국제항에는 외국 상선과 선원들이 출입하므로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국의 영사관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항만의 발전은 지질, 지형, 기상 등의 자연 요건에 의하여 좌우되고, 사용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그리고 그 용도에 따라 상항(商港), 어항(漁港), 군항(軍港), 공업항(工業港), 대피항(待避港) 등으로 구분한다. 우리 거제도의 항만은 어항과 공업항(조선기지), 대피항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태에 따라서는 군항으로 사용 목적이 바뀔 수도 있는 곳이다. 어항은 어선들이 어료 용품을 공급받고, 어획물을 양륙하는 항구다. 상항(商港)이나 공업항보다 규모는 작으나 도처에 많이 있고, 소비자와 연결되는 신속한 수송망을 가지며, 냉동업과 수산 가공업이 발달한다.

거제는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어항이 많다. 항만법은 1967년 3월에 제정되었다. 항만의 지정사용 및 보전과 공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 관리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 제46조의 부칙에 의하여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은 지정 항만으로 하여 항만관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1종 항은 해양수산부장관, 그 밖의 항만은 지방항만이라 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항만법은 군항과 어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군항에 대하여는 해군기지법이 있고, 어항에는 어항법이 있다.

1. 고현항(古縣港)

고현항은 지정항(국제항)으로 항만관리청장이 관리한다. 계룡산과 앵산 자락 협곡이다. 거제의 중심 도시인 고현을 비롯하여, 수월 해명과 연초 일부인 오비, 한내가 항구 주위에 있다. 항구 서편은 장평 지구로 죽도 섬을 헐어서 매립하여, 1974년에 죽도조선소를 설치했다. 대섬과 나란히 있는 섬은 굴도(橘島)다. 이 섬에 중국의 유자가 떠 내려와서 자생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1980년부터 1983년까지 고현만 35만평을 매립하여 새로운 시가지로 변모했다.

고현만은 성포, 향도 목섬에서부터 하청면 석포리 열녀봉 목섬까지 6.2km며, 내항은 3.2km, 향장 7.4km이다. 수심은 내수심 8m, 외수심 19m, 삼성조선소 내수심 16m, 외수심 19m, 항구를 벗어나면 내해의 뱃길이다. 부산·마산·진해항과 마주하고 있다. 항의 서쪽에서 가조도가 풍랑을 막아 주는 좋은 항구다.

2. 하청항(河淸港)

하청항은 2종 항으로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한다. 앵산과 용등산 사이에 있는 항구다. 이 바다를 묵개(墨浦) 바다라 한다. 덕곡의 천마산취(天馬山嘴)와 칠천도 꽃밭등(花田嶺) 사이 0.5km가 서해의 해문(海門)이고, 칠천도 장곶(長串)과 실전 나루 끝이 부산의 뱃길이다. 실전에서 장곶까지는 길이 455m, 폭 2차선의 육교가 1996년 12월 30일 착공하여, 1999년 12월 완공하였다. 총 공사비는 210억원으로 주식회사 신성건설 외 3개사에서 공사를 했다.

이 다리가 놓여진 곳을 칠천량(柒川梁)해협이라 한다. 임진란 후 정유재란 때 우리 해군이 일본 해군에게 크게 패전을 당한 곳이다. 내항은 1.6km이고, 항장 4.1km이다. 내수심 7m, 외수심 20m, 왼쪽은 고현만과 접하고 있고, 오른쪽은 장목항과 연결된다.

3. 장목항(長木港)

장목항은 2종 항으로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한다. 장목면 소재지의 제석봉이 북으로 내려 뻗어 긴 협곡의 바다를 이루었다. 항구가 길고 입구가 문같이 생겼다고 하여, 예전에는 이 항구를 장문포(長門浦)항이라 불렀다. 내항은 0.4km인데 주머니같이 생겼다. 외항 3.6km, 항장 5.1km이다. 내수심 9m, 외수심 18m, 농바위 끝과 군항개 왜성산 끝이 마주 보는 가까운 거리다. 이곳을 벗어나면 칠천량해협과 송진포항이다. 칠천도가 앞에 가로누워 있어서, 어떤 방향의 바람도 닿지 않는 항구로 군사적 요충지였다.

해안면에 장목면 소재지인 장목리와 송진포항이 있다. 장목에는 조선시대 장목진이 설치되었다. 이 진의 부속건물인 장목진 객사가 서구마을에 있다. 난중일기에 보면 이 순신 장군이 장문포항에서 왜적을 무찌르기 위해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

송진포는 1904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러시아와 일본간에 있었던 노일전쟁 당시 일본 해군기지로 사용하였던 곳이다. 송진포항도 장문포에 속해 있는 항구다. 이 두 항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항구를 벗어나면 진해와 마산·부산항이다. 임진란 때는 이 충무공이 송진포(松未浦)에서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옥포항에 있던 왜적을 무찔렀다.

칠천도가 항구를 엄폐(掩蔽)하고 있어서 내해의 뱃길에서는 항구가 보이지 않는다.

4. 외포항(外浦港)

외포항은 1종 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한다. 대금산이 동으로 달려와서 왼쪽으로는 망월산이 항구를 감싸고 있고, 오른쪽은 대계의 꽃밭등이다. 항구 주위는 외포, 소

계, 대계마을이 있다. 망월산 끝에서 대계 끝까지 항폭 0.8km로 내해 수심 8m, 외해 수심 22m이다. 항구를 벗어나면 부산과 대한해협이다. 거제현의 바깥 지역에 있다고 하여 밖개라 한다.

5. 관포항(冠浦港)

관포항은 2중 항으로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한다. 장목면 하유리 목고개 끝에서부터 외포리 망월산 뒷개까지 7.8km의 거리다. 내항 5.0km이고, 내해 수심 9m이며, 외해 수심 11m이다. 대봉산(大峰山)과 제석산(祭石山) 사이에 여러 개의 항구로 형성되어 있다.

관포항 북쪽에 간곡만의 농소항이 있고, 남쪽에는 두모, 대금, 시방이다. 간곡만은 1km가 넘는 몽돌밭이 있다. 항구밖 동북쪽에는 저도(대통령 별장)가 있고, 남동쪽에는 이수도가 학처럼 앉아 있다. 그 앞에 백사도, 갈산도, 백여도가 있고, 부산과 가덕도가 뵈히 바라보인다.

외항을 벗어나면 대한해협이다. 이 지역도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을천에는 조선 중기에 축성한 성이 있고, 중금산에는 조선 후기에 축성한 방어성지가 있다.

6. 옥포항(玉浦港)

옥포항은 지정항(국제항)으로 항만청장이 관리한다. 장승포 양지암 두툽바위 끝에서 외포 망월산 끝까지 6.2km의 거리다. 내항은 2.8km, 항장 5.6km이다. 내해 수심 16~17m, 외해 수심 22m다. 이 항구는 옥녀봉과 국사봉 사이에 있는 항구다.

신라시대 아주현이 있었던 이 지역에는 1973년에 대우조선소가 들어왔다.

아주, 아양 해안 60만평을 매립하였다. 옥포 시가지를 비롯하여, 왼쪽으로 팔랑포·덕포마을과 이순신 장군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옥포대첩기념 공원이 있다. 남쪽으로 대우조선소, 용소·아주·내곡·탑곡·두모·느태마을과 능포항이 있다. 느태마을은 60여 가구가 1992년 옥수동으로 이주를 했다. 거제의 동쪽에 있는 옥포항은 수심이 깊고 풍량이 없는 항구다. 항구를 벗어나면 부산과 대마도가 나타난다. 일본과 가까운 곳으로 내륙으로 쉽게 접근이 용이한 곳이므로 일본의 침입이 먼저 있었던 곳이다.

우리나라 최동남단 거제는 왜적을 방어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옥포는 군사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옥포진과 조라진이 옥포항에 있었다. 임진란 때는 이충무공이 제일 먼저 임진년 5월 7일 왜적을 무찔렀던 유서깊은 고장이다. 충무공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에 당등산에 기념탑과 옥포정을 세우고, 매년 5월 7일 기념제전과 문화행사를 했다. 대우조선소 설치로 당등산이 허물어지고, 1975년에 대우조선 부지 내로 옮겼다.

당등산에는 조선시대 석성이 있었고, 성 주위는 느티나무, 포구나무, 소나무 등 아름
들이 나무들이 짝 차 있었다. 이 곳 용소(龍沼)마을에 거위를 기르던 삼각주(三角洲)가
있어 아주(鵝洲)라 했다. 옥녀봉 기슭에는 신라시대 법률사(法律寺)란 절이 있었다고 한
다. 탑골은 탑이 있었던 마을이다. 1935년 아양리 박학중씨가 밭갈이를 하다가 삼층 석
탑을 발견하였으며, 그 탑은 대우조선소 내에 있다.

아주현의 치소가 있었던 곳으로 내곡마을에는 당시 것으로 보이는 성지가 있다. 1997
년 대우조선 서문앞 용소마을에서 B·C 4세기부터 A·D 7세기에 이르는 고분이 발견
되어, 여기서 곡옥을 비롯한 귀중한 자료가 발굴되었다.

옥포항은 거제와 부산 뱃길의 관문이다. 대우조선이 들어올 때, 아주·아양을 비롯한
5개 마을 480세대가 이주를 했다. 대우조선 건설 당시 옥포항 사진 한 장으로 외채를
얻어 올만큼 지리적 여건이 좋은 항구이다. 옥포항은 대우조선소가 들어서면서, 1971년
부터 아주 일대 해변과 바다 100만평을 매립하였고, 또 1974년 9월부터 1979년 12월까
지 옥포만 옥포마을 앞 9,726평을 매립했다.

7. 능포항(菱浦港)

능포항은 1종 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한다. 옥포만 내에 있다. 고두바위에서
양지암 두툼바위까지 1.7km이다. 이 항구는 능포마을이 장승포시가지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나라 3대 정치망의 하나로 진흥수산과 능포수산이 있다.

8. 장승포항(長承浦港)

장승포항은 1965년 6월 25일 지정항으로 지정된 국제개항(國際開港)이며, 항만청장
이 관리한다. 장승포동과 마전동이 항구 언저리에 도시로 발전하고 있고, 부산방면의
여객선터미널을 비롯하여 장승포세관, 항만관리청, 검역소 등 해양에 따른 사무소와 거
제수협 등이 있다.

장승포 뒷개에서 가시바꾸미 끝까지 2.3km의 항구다. 내항 0.7km, 항장 1.8km이다.
내해 수심 3m, 외해 수심 16~18m다. 외항을 벗어나면 대한해협이다. 일본의 대마도
가 수평선에 걸려 있다. 이 항구는 고종(高宗) 26년(1889) 한일통어장정(韓日通漁章程)
이후 일본의 입좌촌 어민들이 들어와서 마을을 이루고, 1930년 방과제를 쌓았다. 어항
과 무역항으로 발전시켜 왔던 곳이다.

9. 지세포항(知世浦港)

지세포항은 1종 항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한다. 가시바꾸미 끝에서 쥐부리끝(鼠岬末)까지 6.1km 지점으로 내항 2.5km, 항장은 지심도까지 3.0km이다. 내해 수심 13m, 외해 수심 30m다. 옥녀봉이 동으로 향해 내려와서 바닷가에서 양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을 한 곳이다. 항구 입구에 지심도가 가로질러 파도를 막고 있다. 섬이 가리어 바깥에 서는 항구가 있는 줄 모른다. 자연적인 방파제로 군사적으로 아주 좋은 항구다.

자연적으로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찍이 중국과 일본을 내왕하던 배들이 이곳에서 바람과 풍랑을 피하고 갔다는 기록이 있다.

소동과 지세포는 선사시대 막강한 힘을 가진 부족의 형태로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지석묘가 많이 있다. 항구 주위는 지세포를 비롯하여 소동, 선창, 옥림, 미조라마울이 있다. 선창마을 뒤에는 인종 원년에 축성한 지세포성이 있다. 수심이 깊고 파도가 없는 항구로, 1970년대 조선기지로 맨 먼저 물망에 오른 곳이기도 하다.

10. 구조라항(舊助羅港)

구조라항은 1종 항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한다. 쥐이끝(鼠岬末)에서 남부면 갈도(葛島)까지 7.8km이다. 항장 7.7km, 내해 13m, 외해 20m, 망치앞 수심은 15m이다.

여기서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이다. 북병산이 좌우로 갈라져 구조라항을 만들었다. 그 끝이 남으로 달려와 구조라에서 바다로 잠길 듯 하다가, 힘차게 솟은 산이 수정봉이다. 산은 작아도 기상은 힘차다. 그 잘룩한 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동쪽으로 가라산이 구불구불 달려오다가 갈도섬을 만들었다. 구조라만 안에는 학동만이 포함되어 있다. 예전에는 구조라에서 와현·조라·망치·양화·수산 학동까지 다 관장을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항리(項里) 절목(節目)과 고문서에 밝혀진 내용이다.

구조라의 옛 지명은 항리(項里)이다. 항구 안에 내조라도(內助羅島), 외조라도(外助羅島)가 있다. 지금은 이들 섬을 내도, 외도라고 부른다. 공곶이와 내도는 선사시대 인류가 살았던 유적지가 있고, 내도의 패총에서는 후육무문(厚肉無紋)토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항구를 벗어나면 대한해협과 일본이다. 거제의 동남지역 해변은 어느 곳을 막론하고 일본과 가깝다. 그래서 곳곳에 방어 성지가 쌓여져 있다. 구조라 앞 수정봉에 조선시대 축성한 성이 있다. 이 성의 진(鎭)이 선조 37년에 옥포 조라진으로 옮겨왔다. 그 때부터 이곳을 옛 조라(舊助羅)라 하고 옥포 조라는 신 조라라 하여, 신(新) 자는 없애고 조라라 한다.(岬 쥐부리 끝 : 耳. 쥐 귀, 쥐 이 끝이라고도 함)

11. 다대항(多大港)

다대, 다포항은 가라산이 동남간으로 뻗어 내려 감싸고 있는 항구다.

갈도(葛島)와 다포도(多浦島)가 망망 대해의 바람을 잠재우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항폭 3.2km, 내항은 4.3km, 항장 3.8km이다. 내해 수심 13~15m, 외해 수심 30m다.

항구 주위는 다대, 다포마을이 있고, 가라산 중봉에 왜적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한 다대산성이 있다. 항구를 벗어나면 대한해협과 일본이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항구다. 1998년에 600m의 방파제와 물량장을 만들었다. 동국여지승람에 가라산 남쪽 10리 아래 신라시대 송변현(松邊縣)이 있었다고 한다. 다대포 지역이 그 당시 현(縣)의 치소가 있었던 곳으로 고다대포(古多大浦)이다. 가라산 중봉에 왜적을 방어하기 위한 다대산성이 있다.

12. 저구항(猪仇港)

저구항은 가라산 지맥인 망산(望山)이 왼쪽으로 내려 와서 저구, 명사, 근포, 대포마을을 이루었다. 항폭 3.7km, 내항 1.7km, 항장 2.9km이다. 내해 수심 13~15m, 외해 수심 22m다.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비경과 명사해수욕장이 있다. 한국전쟁 때 친공 포로수용소가 있었던 곳이다.

13. 울포항(栗浦港)

울포항은 2중 항으로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한다. 노자산과 가라산 협곡에 생긴 항구다. 노자산은 가배와 함박구미 끝에서 가배항을 감싸고, 가라산은 탑포로 내려와서 쌍근 은방개 뒤 취(嘴)에서 울포항을 감싸고 있다. 동망산(東望山) 줄기가 바다 쪽으로 뻗어 내려 가배랑 취곶(嘴串)을 만들어, 울포항과 가배항으로 갈라놓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두 곳 다 중요한 곳이다. 이 두 항구를 오아포(烏兒浦)라 하는데, 울포는 큰 까마귀개, 가배는 작은 까마귀개라 했다. 함박구미에서 은방개 끝까지 9.7km이고, 울포 내해는 3.1km, 가배 내해는 1.1km이다. 울포항의 항장은 4.0km, 가배랑의 항장은 2.5km이다. 내해 수심 8m, 외해 수심 19m다.

가배랑에는 임진란 당시 1593년 8월 이충무공께서 이곳에 삼도수군 통제영을 설치하였다. 선조 35년에 고성 춘원포로 옮겼다가, 다시 통영 한산도로 옮겼다. 그 당시의 관아지와 성벽 일부가 남아 있다. 울포만은 덕원해수욕장이 있고, 탑포마을 앞에 대섬(竹島)이 있다.

항외는 남쪽 바다에 한산도가 풍랑을 막고 있는 군사적 요충지다. 탑포고개에 탑포산성이 있고, 율포마을 송곶(松串)에 율포진이 있었다. 이 진은 장목 율포에 있던 진을 이곳으로 옮겼다. 그 후부터 이곳은 신율포, 장목은 구율포(지금의 율천)라 한다. 송곶이 율포진이 있던 곳에 동부면사무소가 있었다. 1933년에 산양리(현재 위치)로 옮겼다.

14. 거제만(巨濟灣)

거제만은 계룡산 서남쪽에 있다. 조선시대 거제부가 있었던 곳이다. 서쪽은 산방산 자락이 범동 고승도에서 산달도를 감싸고 있고, 동으로 동부면 함박구미 귀도(龜島)가 오송 동호를 감싸고 있다. 항구내는 산달도, 큰술섬, 작은술섬, 전도, 복도 등이 있고, 죽림포에는 조선 중기에 바다를 경계하던 어해정(禦海亭)이 있었다.

거제의 옛 고을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기성관, 질청, 향교, 반곡서원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거제의 고도(古都)다.

산달도는 선사시대 인류가 살았던 패총지가 있고, 계룡산 밑 수정봉에는 조선말기에 축성한 옥산금성이 있다. 테피성의 성곽과 성루가 돋보인다. 성내는 우물터와 적을 방어하기 위한 몽돌이 쌓여 있다. 항구를 벗어나면 통영군 송도·서좌도 한산도다. 섬과 섬들이 감싸고 있는 천혜의 요새지다.

제4장 식 물(植物)

거제시는 한반도의 남쪽 해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식물구계학(植物區界學)상으로 난대(暖帶)에 해당되지만, 북쪽은 온대(溫帶)와 가까운 지역에 있으므로 북동부지역과 모든 산림지대에서는 온대 식물들이 번성하고 있고, 그외 해안지대와 도서지역에는 난대에 해당되는 식물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일운면에 있는 외도의 식물원과 동부면에 있는 “거제자연 예술랜드” 등에는 제주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타지역 희귀식물은 물론, 여러나라의 열대 관상식물도 함께 비치하고 있어, 거제시가 비교적 다양한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번 조사 결과 거제시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은 현재 136과 765종류(673종, 82변종, 10품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1절 식물 구계학상 위치

거제시의 식물구계학상 위치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의 식물구계학상의 위치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리나라는 북대식물계(北帶植物界)의 중일구계역(中日區界域)에 속하며, 다시 한국구와 한일난대구로 구분된다. 한국구는 우리나라의 남해안과 그 도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한반도 전역으로서 모두 온대에 해당되며, 학자들은 한국구를 다시 다음의 세 부분으로 나눈다.

한 국 구

1. 온대 남부(개서어나무대)

이 지대는 동쪽의 영일만과 서쪽의 태안반도를 연결하는 선의 이남에서부터 난대의 북부까지로서 개서어나무가 대표 수종이다. 대나무, 팔꽃나무, 호랑가시나무, 이팝나무, 산철쭉, 이나무, 감태나무, 나도밤나무, 합다리나무 등이 자라고, 해안에서는 해송이 자란다.

2. 온대 중부(서어나무대 또는 졸참나무대)

이 지대는 동해안의 울진군 평해(平海)와 신의주를 연결하는 선의 서남쪽에서부터 영일만과 태안반도를 연결하는 선까지지만, 내륙에 있어서는 온대 남부에 위치한 가야산, 지리산, 무등산 등의 높은 산악지대도 이에 해당된다.

동쪽에는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향하므로 해안식물이 자라고 있는 곳이 적지만, 서쪽에는 넓은 갯벌이 있어 남쪽에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해안식물이 많이 자라고 있다. 서어나무와 졸참나무가 대표 수종이며 왕버들, 해당화, 고로쇠나무, 도깨비사초, 왕느릅나무, 돌단풍, 참나무류, 장구밥나무, 개수양버들 등이 자란다.

3. 온대 북부(비슬나무대)

이 지대는 울진군 평해와 신의주를 연결하는 선의 북동쪽을 말하며, 이중 평안남북도 지역을 온대 북서부, 함경남북도 지역을 온대 북동부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 지역은 비슬나무가 대표 수종이며 금강초롱, 개느삼, 눈잣나무, 잎갈나무, 전나무, 잣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

한국구는 평면상으로 모두 온대에 해당되지만, 이 지역중에서도 지리산, 태백산, 금강산, 백두산 등의 높은 지대와 개마고원지대에는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잎갈나무, 자작나무류 등 한대 식물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고산지대를 수직적으로 식물대를 분류할 때는 한대지역이라 한다.

한일난대구

거제시(巨濟市)가 속해있는 한일난대구에는 우리나라의 경상남도과 전라남도의 해안선지역과 그 부속도서 및 제주도지역이 포함되고, 일본의 38° 이남지역과 중국의 준하(淮河)와 진령(秦嶺)을 연결하는 남쪽지역으로 대표 수종은 종가시나무이고, 후박나무, 참식나무, 붉가시나무, 가시나무, 동백나무, 구실잣밤나무, 개산초나무, 송악 등이 공통 수종이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까마귀쪽나무, 생달나무, 육박나무, 돈나무, 굴거리나무, 다정큼나무, 녹나무, 쉼달나무, 담팔수, 남오미자, 왕볼레나무, 보리밥나무, 죽절초, 황칠나무, 백량금벌꿀, 모람 등 모두 100여 종이 자라고

있으나 제주도, 거제도, 남해도, 완도, 진도 등 지역에 따라 분포하는 수종의 수는 차이가 있다. 한일난대구 내에서도 한라산과 같이 높은 산지에서는 온대식물상(해발 500~1500m) 및 한대식물상(해발 1500m 이상)을 나타낸다. 거제시에 있어서도 가라산, 노자산, 옥녀봉, 구천계곡, 소동골과 같은 산지의 높은 곳에서는 온대 수종인 참나무류, 서어나무류 등 낙엽활엽수가 번성하고 있으나, 낮은 해안지역과 도서지역은 난대 수종인 상록활엽수가 번성하고 있는 곳이 많다.

현재 거제시내의 어느 산을 가나 울창한 해송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많은데, 이는 거제시의 산림이 앞으로도 해송이 우점(優點)한 상태로 영구히 유지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이곳을 자연상태로 잘 보호해 가면 먼 훗날에 가서는 본래의 자연림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즉, 높은 산지에 있어서의 자연림상태는 참나무류, 서어나무류, 단풍나무류를 위주로 한 낙엽 활엽수림이 되는 것이고, 낮은 지역과 해안 도서지역의 자연림상태는 상록 활엽수림인 것이다. 오늘날 해송 단순림인 것같이 보이는 여러 산림도 자세히 내부를 관찰하여 보면, 그 속에서는 벌써 참나무류, 굴피나무, 개서나무, 때죽나무들이 군데군데 자라고 있으며, 이미 해송임관을 제치고 그 위로 솟아올라 해송을 억누르고 있는 곳도 여러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참나무류와 서어나무류 등이 해송림 아래에서도 자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해송보다 높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과 충북지방을 지나다 보면 이미 많은 소나무림이 참나무, 서어나무 등 낙엽 활엽수림으로 변한 곳을 여러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옛날 거제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을 때는 이곳의 산림은 본래의 자연림으로 울창하게 자라고 있었을 것이나, 사람들이 점차 많이 살면서부터 자연림은 사람들의 피해로 말미암아 산은 벌거숭이가 되었고, 이렇게 험벗고 척박해진 입지조건에 잘 적응하며 생육할 수 있는 나무가 거제시에 있어서는 바로 해송인 것이다.

요즘 신규도로 개설로 인한 산지의 절토 사면에는 어디서나 어김없이 해송 아니면 소나무의 치수들이 옹기종기 자라고 있음을 보고도 알 수 있듯이 오늘날 한국의 해안과 도서지역에는 해송림이 무성하고 내륙지방에는 소나무림이 번성하고 있는 것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산림을 마구 확대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송림과 소나무림의 번성은 장구한 식생층이 연대상으로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자생 상록수

상록수는 일년 사계절 늘 푸른 잎을 달고 있어 우리에게 싱그럽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산소를 생산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낙엽수에 비하여 자연환경 개선과 사람의 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록수가 울창하게 자랄 수 있는 거제는 복받은 곳으로 자랑이라 할 수 있다.

상록수에는 동백나무와 같이 잎이 넓은 나무는 상록 활엽수라 하고, 소나무와 같이 바늘같은 잎을 달고 있는 나무를 상록 침엽수라 하는데, 상록 활엽수는 거제시와 같이 우리나라 난대지역에 대부분의 수종이 자생하고 있다.

1. 상록 활엽수

거제시에 자생하는 상록 활엽수로는 후박나무, 왕후박나무, 동백나무, 생달나무, 참식나무, 순비기나무 등 육박나무, 광나무, 돈나무, 구실잣밤나무, 메밀잣밤나무, 감탕나무, 먼나무, 까마귀쪽나무, 개산초나무, 굴거리나무, 회양목, 섬회양목, 다정큼나무, 둥근일다정큼나무, 사스레피나무, 우묵사스레피나무, 송악, 보리밥나무, 사철나무, 모람, 팔손이, 남오미자, 자금우 왕볼레나무 등 50여 종에 이른다.

그 외에도 제주도와 다른 지역에 자생하는 수종으로 거제도에 들어와 토착화된 상록 활엽수로는 가시나무,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탕자나무, 치자나무, 제주광나무, 호랑가시나무, 팡팡나무, 아왜나무, 산호수 등이 있으며, 일본, 중국 등 외국산 수종으로 일반 가정에서 과수나 정원수로 심고 있는 나무로는 유자나무, 차나무, 비파나무, 태산목, 금목서 은목서, 금감, 꽃치자, 당종려, 종려, 남천 등이 있다.

2. 상록 침엽수

거제도에 자생하는 상록 침엽수로는 산지에서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해송과 소나무가 단연 으뜸을 차지하고 있고, 노간주나무, 향나무, 섬향나무, 개비자나무, 반송 등이 간혹 자라고 있다. 그외 관상수나 조림용으로 심고 있는 나무는 한국 원산의 측백나무, 눈향나무, 전나무, 비자나무 등이 있으며, 외국에서 수입된 나무로는 리기다소나무, 삼나무, 편백, 화백, 서양측백, 금송 등이 있다.

제3절 노거수(老巨樹) 및 기념물(紀念物)

〈표 1-4-1〉

보호수 지정 현황

읍 면		지 정 년월일	구 분	위 치	수 종	수 령	수 고	흉 고 직 경	정 비 사 항
품 목	번 호								
시군나무	12-19-1	1982년	정자목	일운면 소동리	느티나무	300	18	6.5	'98(2차)
	12-19-2	"	"	연초면 명동리	은행나무	300	17	3.7	
	12-19-3	"	"	하청 유계 서대	느티나무	400	15	6.0	'97년
	12-19-4	"	"	능포동 옥명마을	팽 나 무	300	13	4.5	
	12-19-5	"	"	아주동 탑곡마을	"	300	14	3.5	'98(2차)
읍면나무	12-19-5-2	1982년	정자목	거제면 서상리	느티나무	370	8	4.5	
	12-19-9-3	"	"	하청 유계 서상	"	250	15	6.5	'98(1차)
마을나무	12-19-1-4-1	1982년	정자목	신현읍 문동리	팽 나 무	250			
	12-19-6-6-1	"	"	둔덕면 상둔리	"	160	15	3.4	
	12-19-3-1-5	"	"	일운면 망치리	느티나무	300	14	5.6	'97년
	12-19-3-6-4	"	"	일운면 옥림리	팽 나 무	200	17	4.2	
	12-19-4-2-6	"	"	동부면 산촌리	"	230	12	4.8	'97년
	12-19-4-5-7	"	"	동부면 부춘리	느티나무	200	16	6.4	
	12-19-6-6-9	"	"	둔덕면 하둔리	배 나 무	160	14	3.2	
	12-19-7-4-11	"	"	사등면 지식리	모과나무	300	14	2.5	
	12-19-7-6-10	"	"	사등면 오량리	느티나무	300	15	3.4	'97년
	12-19-8-1-12	"	"	연초면 한내리	"	200	20	4.0	'98(1차)
	12-19-8-2-13	"	"	연초면 오비리	"	250	12	5.1	
	12-19-10-1-15	"	"	장목면 장목리	"	350	10	5.0	
	12-19-11-1-16	"	"	장목면 시방리	팽 나 무	350	15	4.8	
	12-10-3-8-1	'96.11.4	당산목	동부 학동 수산	감 나 무	150	9	1.6	
	12-10-6-6-1	'97.2.19	"	둔덕면 방하리	팽 나 무	350	18	3.5	
12-10-6-10-1	"	"	둔덕면 학산분교	"	300	16	3.0		
12-10-10-8-1	"	"	장목면 대금리	"	320	18	3.5		
미지정			기념물	거제면 명진리	느티나무	600	15	3.0	

제1편 자연

지 정		지 정 년월일	구 분	위 치	수 종	수 령	수 고	흉 고 직 경	정 비 사 항
품 목	번 호								
미 지 정			정자목	동부면 산양리	느티나무	100	10	0.5	'98(2차)
			"	장목면 울천리	"	50	8	0.3	'98(1차)
			"	장목 울천 울북	"	100	10	0.7	
지 정	103호	'91.12.23	"	거제 명진	"	100	8	0.8	회장방문 지정요청
			"	연초면 다공리	"	20			

1. 동부면 학동리 동백림 및 팔색조 번식지(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233호)

동부면 학동리 몽돌해수욕장에서 해금강 가는 길 1km정도 구간의 좌우에 늘어서 있으며, 해안쪽으로의 동백나무 숲이 더욱 울창하다. 동백나무 숲 위에는 해송이 상층림을 형성하고 있고, 주위에는 벗나무, 때죽나무, 개서어나무, 사스레피나무 등이 왕성하게 자라고 있어 동백나무가 생육하는데 지장을 주므로 해송과 이들 잡목들은 동백나무림 보호를 위해서 점차 제거하여야 될 것이다. 이 지역은 팔색조 번식지로도 유명하다.

2. 장승포 덕포리 이팝나무(경상남도 기념물 제95호)

장승포 덕포리 1093번지에 서 있는 이 나무는 높이 15m, 가슴높이 둘레 3m이며, 수관의 동서 폭이 16m, 남북 폭이 14m이며, 수령은 약 300년 정도이다. 매년 5월 초순이 되면 꽃이 피는 모습이 흰 쌀밥을 온 나무에 뿌려놓은 것같아 마치, 한겨울에 설화(雪花)를 보는 것같은 느낌을 준다. 꽃송이가 쌀밥같다 하여 영남지방에서는 이 나무 이름을 옛날부터 이밥나무라 불러 왔는데, 이팝나무라는 표준명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덕포리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나무의 꽃피는 모양을 보고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쳤다고 한다.

즉, 꽃이 활짝 피면 풍년이 들고, 꽃이 시름시름 피면 흉년이 든다고 했다. 이 나무 곁에는 과거에 작은 돌을 모아 쌓은 돌탑이 있었는데, 이는 가정의 평안과 마을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며, 오가는 사람들이 한 개 두 개씩 모아 쌓은 것으로 이는 왜적의 침입 등 유사시에는 훌륭한 방어무기의 역할도 할 수 있어 우리 선조들의 슬기를 엿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밭 주인에 의하여 헐어 없어졌다.

3. 거제면 외간리 동백나무(경상남도 기념물 제111호)

이 나무는 외간리 433번지 이정목씨 집뒤 터에 동서로 각각 한 그루씩 서 있다. 나무 높이가 7m, 수관의 동서 폭 7m, 남북 폭 6m이고, 지상 40cm 부위의 나무둘레는 2m이며, 수령은 약 200년으로 추정된다. 마을사람들은 이 두 그루의 동백나무를 부부나무라고 부르고 있으며, 마을을 편안하게 지켜 주는 수호목으로 받들고 있다. 매년 음력 선달 그믐날에는 가족들의 무병장수와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며 당산제를 지내 왔다.

4. 연초면 한내리 모감주나무군(경상남도 기념물 제112호)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앞 바닷가에 조성된 모감주나무의 줄나무숲이다. 모감주나무의 잎은 우상 복엽이며, 여름에 노란 꽃이 피고 열매는 검은 색을 띠며, 콩알보다 약간 크다. 스님들은 이 열매로 염주를 만들기 때문에 염주나무 또는 보리수(菩提樹)라 한다. 불교가 번성하던 옛날 남해안을 지나가던 큰 스님이 한내리의 변창을 기원하며, 이 모감주나무들을 심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바다 바람을 막아 주고 마을사람들에게는 좋은 휴식 공간이 되며, 바다에는 많은 고기떼가 모여들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방조어부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숲에는 현재 모감주나무 41그루가 남아서 자라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나무는 높이가 17m이고, 가슴높이 둘레는 2m이다. 바닷가에 모감주나무를 심어서 줄나무군(群)을 조성한 곳은 전국에서 이곳 밖에 없다.

5. 거제면 명진리 느티나무(경상남도 기념물 제113호)

옛날 명진현(縣)이 있던 거제면 명진리 마을앞 들 가운데 서 있는 이 나무는 높이가 14m, 가슴높이 둘레 7.7m, 수관은 동서 23m, 남북 20m, 수령은 약 600년 정도이다. 이 나무는 다른 느티나무와 다르게 줄기의 밑둥치가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길을 끌게 한다. 여름이면 마을사람들의 좋은 일터인 동시에 휴식공간이 될 뿐 아니라 마을의 운치를 한층 더해 주는 풍치목이다.

마을사람들은 이 나무가 명진리를 지켜 주는 수호목이라고 믿고 매년 선달 그믐날에는 당산제를 지내왔으며, 갓 시집온 새색시들은 제일 먼저 이 나무 밑에 와서 고신제를 지냄으로써 가정의 평안과 좋은 부부금실이 유지되기를 기원했다고 한다.

6. 연초면 명동리 은행나무(거제시 보호수 제1호)

제1편 자연

이 나무는 높이 25m, 가슴높이 둘레 5m이고, 수령은 약 300여년으로 추정된다. 명제(明濟)선생이 이곳에 귀양와 있을 때 서원을 세우고, 후학을 양성하면서 기념으로 심은 나무라고 한다. 여름이면 마을사람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가을에는 노란 단풍을 자랑하며 마을의 풍치를 더욱 북돋아 준다.

7. 하청면 유계리 느티나무(거제시 보호수 제2호)

나무높이 15m, 가슴높이 둘레 5m이며, 수령은 약 40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을사람들은 마을의 수호목으로 섬기고 있으며, 갈회색의 미끈한 수피와 함께 흰칠하게 자라서 가지를 사방으로 뻗고 있는 아름다운 수형은 가히 느티나무의 표준형이라 할 수 있다. 하청면의 명목일 뿐만 아니라 광청사를 오르내리는 많은 관광객들의 칭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8. 일운면 지세포리 느티나무(일운면 보호수 제1호)

느티나무 6그루가 한자리에 모여 자라서 지금은 밑둥치 부분이 서로 엉켜 마치 한 그루의 느티나무처럼 보인다. 수령은 약 300년 정도이고, 나무높이가 18m이며, 가슴높이 둘레는 각각 2m~4m씩이다. 마을의 수호목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과거에는 이 나무 밑에서 마을의 번창과 평안을 기원하는 동제를 지냈다고 한다.

9. 하청면 하청리 느티나무

나무높이 15m, 수령은 600여 년으로 추정되며, 가슴높이 둘레는 과거 천연기념물(제181호)로 지정되어 있었을 때는 9m였으나, 지금은 줄기와 가지들이 그의 모두 썩어서 없어지고, 현재 남아 있는 줄기부분은 서편의 변재(邊材)부분 일부 뿐이고, 그에 딸린 가지들마저도 시멘트 기둥에 의하여 지탱하고 있을 정도이다. 거제에서는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 여겨진다.

10. 둔덕면 거림리 마장마을 반기규씨 집의 동백나무

마장마을은 옛날 고려 11대 의종이 이곳 마장리 뒷산 후두보산성에 피신해 있을 때 이곳을 드나들던 관리들이 타고 온 말을 매어 두었던 곳이라 하여, 마장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마장마을에 들어서면서 “큰 동백나무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 어른, 아

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이 마을 반기규씨 집뒤 들담가에 서 있는 이 동백나무는 줄기가 세 갈래로 갈라져 자라고 있으며, 나무높이 7m, 수관 폭은 5m정도로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반기규씨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옛날 조상 때부터 9대에 걸쳐 오늘날까지 온갖 정성을 다 들여가며 이 동백나무를 가꾸어 왔다고 하니, 추정컨대 수령이 250~300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결혼식 때 이 나무가지를 꽃다발에 사용하면 행운이 오고 무병장수한다 하여, 너도나도 이 나무가지를 끊어 가려고 아우성들이었다고 한다.

11. 연초면 한내리의 정자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팽나무 등 세 가지 나무가 한내리마을 개울 건너 공터에 모여 자라서 하나의 보기좋은 정자나무군을 형성하고 있다. 여름이면 정자나무의 짙은 그늘은 마을사람들의 안락한 휴식처가 되고, 5월 초순에 만발하는 이팝나무의 쌀알같은 흰 꽃은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도록 장관을 이룬다. 이 나무들은 수관이 울창하고 수세가 왕성하며, 나무높이 15~20m, 가슴높이 둘레 3~5m, 수령 200~300년 정도로 추정된다. 동리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들 정자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겨 오고 있다.

12. 둔덕면 술역리 내평숲

이 숲은 내평마을 해안가에 있으며, 느티나무 3그루, 말채나무 4그루, 팽나무와 참느릅나무 각각 3그루이고, 해송, 고욤나무, 이팝나무 각각 한 그루씩으로 모두 21그루의 큰 나무들이 서 있고, 숲 주위에는 벗나무, 해송, 버드나무 등 작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다. 큰 나무들의 수령은 150~200년 정도이고, 가슴높이 둘레는 2~3m정도이다. 이 마을사람들은 이곳이 옛날 고려 때부터 육지와 문물교류의 주된 항구이었다고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고려 의종이 거제도에 피신해 있을 때는 그 절정기를 이루었다고 한다.

13. 동부면 가배리 상록수림

이 상록수림은 가배리 해안가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해안지대의 매립으로 인하여 바닷물과는 점차 멀어져가고 있다. 이곳 해안 경사면에 있는 상록수는 육박나무, 생달나무, 후박나무, 보리밥나무, 사스레피나무, 팽나무, 모람, 송악, 자금우

제1편 자연

등이며, 경사면 윗쪽 평지쪽에는 팽나무, 느티나무 등 낙엽 활엽수가 상록수보다 높게 자라서 상록수림을 점차 피압해 가고 있다. 가배리 사람들은 옛날부터 정월 보름날이면 그해의 풍어와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이곳 상록수림에서 지내왔다고 한다.

14. 장목면 저도의 해송림

이 섬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 별장으로 사용하던 섬으로, 현재는 해군에서 관할하고 있다. 섬의 남쪽 능선부위와 해안지대에는 자연식생이 잘 보호되고 있으며, 바다쪽에는 아름드리 해송이 들어차 있다. 이들 해송 중에서 가장 굵은 나무는 가슴높이 둘레가 5.0m에 이르고, 나무높이는 20m 정도이며, 수령은 200년정도로 추정된다. 이 숲은 거제에서 가장 굵은 해송으로 이루어진 해송림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15. 동부면 학동리 수산마을 감나무(주민들은 당산나무라 함)

이 나무는 가슴높이 둘레가 1.63m, 수고는 9m, 수령은 약 150년 정도로서 수산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 바로 옆에서 있는 팽나무와 함께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으며, 마을의 당산제도 이 나무 밑에서 지내왔다.

16. 하청면, 장목면 일대에 조림되어 있는 맹종죽(죽순대)림

맹종죽은 중국 원산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남부지방에서 경제수종으로 심고 있는 대나무이다. 나무높이가 10~12m에 달하며, 굵기는 직경이 8~20cm로서 대나무 자체는 필통이나 죽세공품 및 어장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죽순생산을 주목적으로 재배한다. 죽순은 맛이 담백하고 연한 섬유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요리에 쓰이며, 요즘에는 건강식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어 통조림을 만들어 시판하거나 수출을 한다. 경제적 수익성이 높은 맹종죽을 우리나라에서 이 지역처럼 대단히 조림이 되어 있는 곳은 없다.

제4절 특산 및 희귀식물

1. 단풍박쥐나무(鴨脚板樹- *Alangium platnifolium*)

우리나라에서는 거제도 옥녀봉에서만 자라는 낙엽관목으로 3m 높이까지 자라며, 박쥐나무과에 속한다. 기본종인 박쥐나무의 잎은 벽오동 잎처럼 3갈래로 얇게 갈라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단풍 박쥐나무의 잎은 단풍나무 잎처럼 5갈래로 깊게 갈라지기 때문에 단풍박쥐나무라 한다. 꽃은 연한 황색으로 여름에 피고 어린 잎은 먹을 수도 있으며,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워 앞으로 관상수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 나무이다.

2. 거제딸기(巨濟 · - *Rubus tozawai*)

이 나무는 거제도 해안가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에 거제딸기란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후 전남 거문도에도 생육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장미과에 속하며, 잎은 세 갈래로 갈라지고 잎자루에 잔털과 더불어 잔가시가 있으며, 꽃받침은 뽕죽하다. 열매는 6월에 익으며 먹을 수 있다.

3. 팔손이나무(八金盤 - *Fatsia japonica*)

거제도와 남해도에 자생하며, 일본에도 분포하는 상록 활엽관목으로 잎이 손바닥 모양으로 생겼으며, 8~9개로 갈라지기 때문에 팔손이나무란 이름이 생겼다. 1년생까지는 굵고, 잎은 두터우며 광택이 나고, 길이가 20~40cm나 되는 큰 잎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 보면 남국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어 남쪽에서는 고급 정원수로 많이 심고 있고, 중부지방에서는 온실이나 실내 분재용으로 많이 심고 있다.

4. 긴잎산딸기나무(長葉木 · - *Rubus subcuneatus*)

이 나무는 거제도 특산으로 장미과에 속하며, 거제도의 산과 들에 자란다. 산딸기나무에 비해 잎이 얇게 갈라지고 길이가 긴 타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긴잎산딸기나무라 한다. 열매는 7월에 검붉게 익으며 먹을 수 있다.

5. 털덜꿩나무(*Viburnum erosum* var. *furcipilum*)

이 나무는 인동과에 속하며, 거제도와 황해도 장산곶에서 야생하는 낙엽 활엽관목으로 덜꿩나무에 비하여 잎 뒷면 맥위에 가는 털이 나기 때문에 털덜꿩나무라 한다. 초여름에 쌀알같은 흰 꽃이 우산모양으로 모여 필 때는 장관을 이루므로 관상수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

6. 야고(野菰 - *Aeginetia indica*)

야고는 열당과에 속하는 1년생 기생(寄生)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억새, 참억새 등 억새류 풀밭에서 기생한다. 1970년경 한라산 남쪽 억새풀 틈에서 자라고 있음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된 바 있으나, 1998년에 거제도 남부면 갈곶리 함목마을의 함목해수욕장 서편 억새풀밭에도 생육하고 있음이, 이 지역 식물애호가들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야고는 줄기가 짧기 때문에 보통 땅위로 잘 나타나지 않으며, 적갈색을 띤 인편모양의 잎이 어긋나게 달려 있다.

꽃은 옅은 자색으로 9월경에 피는데, 꽃대의 길이는 10~18cm이며, 그 끝에 길이 2~3cm의 통꽃이 옆으로 향하여 핀다. 이 때가 사람들이 이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다.

7. 백양꽃(*Lycoris koreana*)

한국 특산 식물인 백양꽃은 숙근성 다년생으로 수선화과에 속한다. 백양꽃이란 이름은 전라북도 백양산에서 자란다고 붙여진 이름인데, 거제도 가라산 등에도 자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가정에서 관상용으로 심고 있는 상사화를 닮은 꽃으로, 앞으로 관상용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 꽃은 8~9월에 피며, 붉은 벽돌색을 띤다. 꽃대는 길이가 26cm정도이고, 끝부분이 약간 평평한 원주형이며, 희미한 능선이 2개 있다.

8. 섬회양목(島黃楊 - *Buxus microphylla* var. *insularis*)

이 나무는 상록 관목으로 회양목과에 속하며, 거제도와 흑산도에 자란다고 하여 섬회양목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회양목에 비하여 잎이 크고, 둥글고 두터우며 윤기가 나고, 잎뒷면에 털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정원수로 쓰일 때는 회양목보다 더 고급수로 취급되며, 이 나무줄기는 도장 새기는데 쓰이고, 가지와 잎은 한약재로 쓴다.

9. 황칠나무(黃漆木 - *Dendropanax morbifera*)

황칠나무는 상록 활엽교목으로 두릅나무과에 속하며, 높이가 10~15m에 달하고 어린 가지는 녹색이며 윤기가 난다. 수피에 상처를 주면 황색의 칠즙(漆汁)을 내기 때문에 황칠나무라 한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옷은 검은 색을 내지만, 황칠은 가구에 칠하면 황색을 나타내므로 옛날부터 고급 도료로 취급되어 왔다. 지금은 황칠에 함유된

안식향을 이용한 향료사업, 옷감에 물 드리는 염료사업, 신약 개발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옛날에는 남쪽 섬에서 생산되는 황칠의 대부분이 궁중에서나 일부 부유층에서만 주로 사용하였고, 일반 민가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제주도, 완도, 흑산도 등에 간혹 자라고 있지만, 경상남도에서는 해금강 갈곶도에서만 지금 유일하게 자라고 있는 희귀식물이다. 잎은 두텁고 표면에 윤기가 나며, 타원형이거나 3~5갈래로 갈라지고, 길이가 10~20cm나 되는 큰 잎들을 가지 끝부분에 달고 있기 때문에 관상수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 나무이다.

10. 백서향(白瑞香 - *Daphne kiusiana*)

거제도와 제주도에서 자라는 상록관목으로서 높이가 1m에 달한다. 남부지방에서 흔히 심고 있는 중국 원산의 서향(천리향)은 꽃이 홍자색인데 비하여 백서향의 꽃은 흰색을 띠기 때문에 백서향이라고 한다. 잎은 길이가 3~8cm, 나비는 1~3cm로서 도피침형(倒披針形)이며, 표면에 광택이 나고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없다. 갈곶도 정상부분의 햇빛이 잘 쏘이는 곳에 자라며, 관상수로 장려할만 한 나무다.

11. 발풀고사리(*Gleichenia dichotoma*)

지금까지는 제주도, 남해도, 통영 등지의 양지바른 곳에서만 간혹 자라는 희귀식물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 조사를 통하여 거제시 둔덕면에 있는 산방산 보현사 입구에서도 발풀고사리가 작은 군락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풀고사리는 상록 초본으로 근경(根莖)은 옆으로 길게 뻗으며, 갈색 털로 덮여 있다.

잎은 드문드문 나와서 높이가 50~100cm이고, 엽병은 길이가 20~60cm이며, 끝이 두 개로 갈라져서 각각 1쌍의 우편(羽片)이 달리고, 동시에 엽병이 갈라진 곳에도 1쌍의 우편이 달려 모두 6개의 우편으로 된다. 우편의 열편(裂片)들은 좁으며, 가장자리가 뒤로 약간씩 반곡되고 표면은 선녹색이지만, 뒷면은 흰색을 띠기 때문에 다른 고사리들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깨끗한 인상을 준다.

12. 비진도콩(*Dumasia truncata*)

우리나라에서는 필자가 1978년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에서 처음 발견하였기 때문에 비진도콩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거제에서는 보현사 계곡에 분포하고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다년생 덩굴식물로서 풀밭이나 수풀 속에서 자라며, 원줄기

는 나약하고 자혹색을 띤다. 잎은 3출 복엽으로서 엽병이 길고, 하나하나의 작은 잎은 난형으로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잎 뒷면에 흰빛이 들고 부드러운 털이 약간 있다.

제5절 중요 섬과 산의 식물상

거제의 여러 섬과 산지에 대한 식물분포상을 두루 다 조사하려면 시간과 인력, 장비 등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부득이 난대식물의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3개의 섬(갈곶도, 외도, 지심도)과 거제의 중요 산이라 볼 수 있는 계룡산, 노자산, 가라산, 북명산(구천계곡), 서이말 등대지역, 대금산, 앵산(鶯山), 산방산 등 8곳의 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이들 섬과 산지의 모든 계곡과 봉우리, 해안 절벽 등을 샅샅이 조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사람들이 출입하는 통로를 따라 조사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1. 갈곶도

갈곶도는 남부면 갈곶리 앞 해상에 위치한 무인도로서 지금은 해금강이란 이름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어, 해마다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승지이다. 섬의 대부분이 암석으로 되어 있어 사람들의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고, 주민들의 보호 열의가 대단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여러차례의 혼란기를 겪으면서도 사람들의 피해를 가장 덜 받고 자연식생이 잘 보존되어온 곳 중의 하나이다.

섬의 남쪽 사면은 급경사의 험준한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정상부위를 제외하면 식물의 서식이 극히 빈약한 상태이지만, 북쪽 사면은 상부에서 하부까지 비교적 양호한 식생이 유지되고 있다. 이곳에서 자생하는 황칠나무, 백서향 등은 경상남도에서는 오직 이곳에만 분포하는 수종으로 식물학적 가치가 높은 나무이다. 이들 외에 이 섬에 자라는 중요식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굴거리나무, 소나무, 해송, 굴참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소사나무, 서나무, 층층나무, 후박나무, 팥나무, 생달나무, 사스레피나무, 우묵사스레피나무, 배풍동, 기린초, 염주괴불주머니, 평의다리, 참나물, 쥐손이풀, 억새, 닭의장풀, 까마귀쭈박나무, 참식나무, 다정큼나무, 작살나무, 왕작살나무, 육박나무, 왕마삭나무, 구실잣밤나무 굴피나무, 감탕나무, 먼나무, 돈나무, 춘란, 짚레나무, 팽나무, 천선과나무, 보리밥나무, 동백나무, 벗나무, 참나리, 콩짜개덩굴, 송악, 사철나무, 팔배나무, 소태나무, 삼주, 조록싸리, 땅

비싸리, 계노등, 쇠물푸레, 느티나무, 예덕나무, 노루귀, 모람, 자귀나무, 담쟁이덩굴, 층꽃풀, 뽕리뱅이, 밀사초, 길뚝사초, 꿩의밥, 큰천남성, 왕모시풀, 고란초, 쥐꼬리망초, 쥐꼬리새 등이었다.

2. 외 도

갈곶도와 서이말등대 사이에 위치한 외도는 거제에서도 상륙 활엽수림이 잘 보전되어 오던 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섬 주위의 경사면지대를 제외한 중앙의 평평한 곳은 관광식물원으로 개발되어, 하루에도 수백수천명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유명한 관광지로 되었다.

이 섬이 비록 관광식물원으로 개발하면서 섬 본연의 자연식생은 많이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제주도 등 국내 다른 지역에서 자생하는 관상수종은 물론, 오스트라리아, 동남아시아 등 외국에서 귀중한 관상수들을 많이 도입하여, 난대 및 열대식물의 전시포를 이곳에 조성한 것은 국민들의 관광휴양은 물론, 남부지역 학생들과 식물애호가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우리 고향에서 이들을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일면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이보다 규모가 큰 여미지식물원이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이곳 외도는 그 규모나 내용면에 있어 부족함이 있지만, 좁은 입지조건을 최대한 살려 자기자하게 꾸며놓은 이 식물원은 구비된 식물의 종도 다양하지만, 남해바다를 내려다 보며 멀리서 일본 대마도를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한번 돌고나면 누구나 다시 찾고픈 정감이 들 정도의 아담한 식물원이다.

외도의 주요 식물로는 소철, 주목, 해송, 섬잣나무, 반송, 처진소나무, 향나무, 둥근향나무, 측백나무, 편백, 나한백, 나한송, 향나무, 섬향나무, 금반향나무, 가이스가향나무, 담팔수, 녹나무, 비파나무, 월계수, 아왜나무, 까마귀쪽나무, 후피향나무, 참식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 생달나무, 센달나무, 구실잣밤나무, 감탕나무, 황칠나무, 팔손이나무, 팡나무, 백정화, 사스레피나무, 우묵사스레피나무, 돈나무, 다정큼나무, 보리밥나무, 굴거리나무, 모람, 멀꿀, 남오미자, 금반식나무, 섬회양목, 긴잎회양목, 금목서, 구꼴나무, 구꼴나무목서, 호랑가시나무, 서양호랑가시나무, 올리브나무, 송악, 협죽도, 홍가시나무, 팡팡나무, 서향, 왕대, 맹종죽, 이대, 자금우, 마삭줄나무, 천선과나무, 유카, 종려, 당종려, 통탈목, 용설난, 카나리아야자, 주병야자, 와신타야자, 코코스야자, 덕구리란, 아가베, 병솔나무, 풍년화, 배롱나무, 남천, 애리카, 하와이무궁화, 능소화, 예덕나무, 피라칸다, 층꽃나무, 층층이꽃, 줄참나무, 머귀나무, 떡갈나무, 쇠물푸레나무, 수국, 섬딸기, 매미꽃, 부시세이지, 포인세티아, 왕모시풀, 털머위, 해국, 쑥부쟁이,

일엽초, 브라질야자, 스파티움, 천사의나팔꽃, 속새, 쇠뜨기, 도깨비쇠고비, 봉의꼬리, 윤판나물, 절국대, 개승마, 곰취, 미역취, 선인장, 파초, 홍초, 웨프레라홍콩, 알제리아-아이비, 띠, 천남성, 맥문동, 무화과나무, 인도고무나무, 벤자민고무나무 등이었다.

3. 지심도

일운면 지세포 동남쪽 해안에서 약 1km거리에 위치한 유인도로서 일제시대부터 군사적 요충지로 이용되던 곳으로 지금도 우리 해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다. 섬의 평면도는 마치 긴 땅콩모양으로 생겼으며, 북동쪽에서 남서쪽을 향하고 있고, 능선부분에는 수천평의 경작지와 왕대, 맹종죽 등의 조림지가 있음을 볼 때, 이곳의 자연식생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록 활엽수들은 경작이 불가능한 경사면지대와 해안지대에서는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은 과거부터 해군 당국과 행정당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섬의 서남쪽에 위치한 선착장에서 마을로 올라가는 길 양쪽에는 아릅드리 되는 동백나무, 생달나무, 까마귀쪽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등 상록수들이 터널을 이루며 늘어서 있어 남국의 정취를 만끽할 수가 있으며, 인가주위의 울타리는 이대(籐竹-신위대)나 왕대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 많고, 맹종죽은 섬의 동북쪽 경사면에 조림되어 주민들의 수입원이 되고 있었다. 곳곳에 자라고 있는 팔손이나마의 윤기나는 큰 잎들은 싱그러운 남국의 운치를 더해 주기에 충분했다.

이들 외의 주요 식물로는 해국, 송악, 도깨비쇠고비, 광나무, 털머위, 왕모시풀, 천선과나무, 수국, 팽나무, 비파나무, 골담초, 치자나무, 큰천남성, 유자나무, 은평의다리, 평의다리, 자금우, 찔레, 작살나무, 왕작살나무, 도깨비바늘, 개솔새, 억새, 붉나무, 계뇨등, 쥐꼬리새, 무릇, 갯기름나물, 부추, 수크령, 해박, 머위, 털머위, 한삼덩굴, 육박나무, 초피나무, 산초나무, 토란, 섬향나무, 이삭여뀌, 왕벚나무, 예덕나무, 쇠서나물, 누리장나무, 영경취, 멀꿀, 마삭덩굴, 사스레피나무, 흰새덕이, 여뀌, 장대여뀌, 털진덕찰, 굴피나무, 머귀나무, 편백, 꾸지나무, 팽이밥, 개산초나무, 쇠무릅 등 나무, 해송, 사철나무, 느티나무, 구기자, 봉의꼬리, 가이스카향나무, 질경이, 바랭이, 쇠비름, 아왜나무, 소리쟁이, 하늘타리, 칩, 남오미자, 쥐똥나무, 비목나무, 육박나무, 구실갯밤나무, 으름, 비수리, 염주괴불주머니, 돌나물, 메꽃, 갯방풍, 조팝나무, 명아주, 대사초, 주름조개풀, 박주가리, 해홍나물, 짚신나물, 참나리, 용담, 띠, 일엽초 등이었다.

4. 가라산

동쪽으로는 동부면, 서쪽으로는 남부면을 접하고 있는 가라산은 산록부와 산정부 모두 해송이 상층림을 형성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은 졸참나무, 개서나무, 굴피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때죽나무 등 낙엽수들이 무성한 곳도 있다. 동부면쪽 산록부에는 천연기념물 제233호로 지정된 동백나무림이 자리잡고 있으나, 이곳 역시 상층에는 굵은 해송의 임관이 드리우고 있는 곳이 많아서 앞으로 동백나무림 보호를 위해서는 해송의 제거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라산의 중요 식물로는 우선 해안지대에 자라고 있는 굴거리나무를 들 수 있다. 경상남도에 굴거리나무가 자생하고 있다는 학계의 보고는 근래까지 없으나, 필자가 몇년 전에 갈곶도(해금강)에 자생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학계에 보고한 바 있고, 이번에 다시 가라산 산록부 경사면에서도 자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굴거리나무 주위에는 동백나무, 감탕나무, 생달나무, 후박나무, 사스레피나무 등 상록활엽수와 함께 굴피나무, 산오리나무, 졸참나무, 때죽나무 등 낙엽활엽수들이 함께 자라고 있었고, 말오줌대나무, 머귀나무 등 희귀수목도 간혹 나타났다.

그리고 학동에서 등산로를 따라 산 중턱부에 이르면 느티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들 느티나무의 회백색 수피는 수림속의 어두운 경관을 한층 흰하게 만들고 있다. 이곳을 지나가면 거제의 희귀식물인 백양꽃의 자생지가 나타난다. 이 백양꽃은 7~8월이 되면 상사화를 닮은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여, 이 지역 일대가 장관을 이룬다. 혹시나 지각없는 등산객들에 의하여 이들 백양꽃이 훼손되어 가라산지역에서 멸종되지는 않나 하여, 뜻있는 사람들의 염려가 대단하다. 이곳 백양꽃 자생지는 거제의 향토식물 애호가들이 발견한 이래 전국에 알려졌다.

주위의 상층 임관에는 굴피나무, 졸참나무, 느티나무, 신갈나무, 벚나무, 서어나무, 단풍나무 등이 자라고 있고, 지면에는 맥문동이 능선부에 이르기까지 길 양쪽에 많이 자라고 있다.

가라산 식생의 한가지 특이한 것은 산 중턱까지 생달나무, 참식나무, 까마귀쪽나무, 사스레피나무 등 일부 상록활엽수가 간혹 한 그루씩 자라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었고, 특히 가라산과 노자산에 있는 능선부의 풀밭에도 이들 상록활엽수의 어린 나무들이 자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가라산이 거제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으로 앞으로 가라산지역이 다른 산지보다 먼저 상록 활엽수림으로 천이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외 가라산지역에 분포하는 주요 식물은 계노등, 애기등, 줌마삭덩굴, 마삭덩굴, 왕

마사삭덩굴, 신갈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나도밤나무, 소사나무, 청미레덩굴, 대사초, 단풍취, 둥굴래, 복분자딸기, 귀리, 개밀, 달뿌리풀, 대새풀, 잔대, 섬딸기나무, 다정큼나무, 쥐똥나무, 광나무, 조록싸리, 참싸리, 해변싸리, 털꿩나무, 멀꿀, 사람주나무, 예덕나무, 미역줄나무, 삼나무, 편백, 노박등굴, 개머루, 새머루, 국수나무, 좀깨잎나무, 산뽕나무, 팽나무, 쪽나무, 석곡, 천남성, 참취, 비비추, 고사리, 개고사리, 꼬리고사리, 족제비고사리, 도깨비쇠고비, 비늘고사리, 우단일엽, 녀줄고사리, 뱀고사리, 실고사리 봉의꼬리, 개맥문동, 바위채송화, 타래난초, 밤나무, 비목나무, 백동백, 고마리, 마디풀, 명아주, 갯는장이, 해홍나물, 자리공, 번행초, 꿩의다리, 개승마, 으름, 꿀풀, 고추나무, 수까치개, 쇠물푸레, 용담, 박주가리, 배풍등, 며느리밥풀, 솔나물 애기똥풀, 장대나물, 돌나물, 기린초, 노루오줌, 조팝나무, 뱀무, 누리장나무, 우산나물, 짚신나물, 윤노리나무, 비수리, 자귀풀, 주름조개풀, 띠, 닭의장풀, 여로, 둥굴래, 참나리, 마, 단풍마, 왕버들, 오리나무, 난티잎개암나무, 한삼덩굴, 이삭여뀌삼주, 진덕찰, 도깨비바늘, 지칭개, 조뱅이, 한련초, 털머위, 쇠채, 개솔새, 역새, 실새, 일엽초, 꼭두서니 등이었다.

5. 노자산

가라산과 연결되어 북쪽에 위치한 노자산은 봉우리부분의 남동면이 큰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멀리서 보기에 웅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라산과 더불어 이 절경지대를 일일 등산코스로 애용하고 있는 등산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편, 북동쪽의 계곡에는 훌륭한 시설을 갖춘 거제휴양림이 자리잡고 있어, 거제시민과 학생들은 물론, 외지의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남부면 삼거리에서 학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양쪽에는 곧게 자란 삼나무, 편백 등의 조림목들이 지나가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끈다. 노자산에도 해송이 상층림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많지만, 휴양림 계곡은 낙엽활엽수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휴양림 경내에는 만주고로쇠나무가 많이 있는 편이며, 이 나무는 왕개서어나무, 느티나무 등과 함께 다같이 수피가 회백색을 띠고 있어, 독특한 운치를 자아내고 있다.

노자산의 주요 식생으로는 왕개서나무, 개서나무, 개비자나무, 초피나무, 산초나무, 고로쇠나무, 만주고로쇠나무, 배초향, 천남성, 측백나무, 층층나무, 후박나무, 단풍박쥐나무, 두릅나무, 비술나무, 뽕리뱅이, 국수나무, 노각나무, 미역줄나무, 졸방제비꽃, 홀아비꽃대, 까치박달, 이삭여뀌, 굴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청미레덩굴, 노린재나무, 굴피나무, 산딸기나무, 생강나무, 좁은단풍, 족제비싸리, 모시풀, 거북꼬리, 나도밤나무, 뱀나무, 팔손이나무, 돈나무, 새머루, 개머루, 가새잎개머

루, 설설고사리, 가새잎뽕나무, 참회나무, 치자나무, 배롱나무, 주름조개풀, 편백, 단풍나무, 메타세쿼이아, 리기다소나무, 까치수염, 영산홍, 말오줌대, 당종려, 가시여뀌, 산수유, 사람주나무, 덜꿩나무, 우산나물, 합다리, 참단풍, 광대싸리, 산거울, 다래나무, 느티나무, 계노등, 등나무, 뿌리뱅이, 달피나무, 일엽초, 고사리, 고비, 꼬리고사리, 쇠고비, 왕버들, 갯버들, 갈대, 오리새, 비비추, 오리방풀, 마, 단풍마, 조뱅이, 지칭개, 쥐꼬리새, 대사초, 귀리, 개밀, 달뿌리풀, 주름조개풀, 길뚝사초, 솔방울고랭이, 닭의장풀, 여로, 오리나무, 한삼덩굴, 까치수염, 맥문동, 개승마, 기린초, 용담, 새모래덩굴, 광대나물, 그렁, 수크렁, 새, 개솔새, 억새, 실새, 김의털, 등나무, 노루귀, 바위채송화, 바위솔, 쑥부쟁이, 구절초, 석곡, 패랭이꽃, 밀사초, 보리사초, 독새풀, 방동산이, 도깨비바늘, 등골레, 자리공, 박주가리, 매꽃, 쇠물푸레, 솔나물, 배풍등, 변행초, 알방동산이, 진달래, 산철쭉, 팔배나무, 두매고들빼기 등이었다.

6. 북병산

구천계곡을 끼고 있는 북병산 일대는 거제의 중요 식수원인 저수지 상류 수원지구로서 관민의 관심도가 높고, 주변에는 민가도 적어서 산림 보호상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양호한 편이다. 삼거리에서 구천계곡을 거쳐 지세포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시민들은 쉽게 이곳을 찾을 수가 있다. 계곡 남쪽편과 북쪽편에는 암자들이 자리잡고 있을 정도로 자연풍경이 수려하고 수목도 울창하여, 누구나 한번 다녀가면 다시 찾고픈 아늑한 계곡이다.

봄이면 조팝나무의 흰꽃이 장관이고, 암자 주위는 과거 산림조합에서 조림한 편백림은 하늘로 솟는 곧은 수간과 함께 사시로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어 누구나 관심있게 바라본다. 윗 계곡에서 저수지에 이르는 남쪽 산림내에는 이팝나무가 많아, 5월이 되면 흰 쌀밥같은 꽃잎이 만발하는 이팝나무 꽃의 경치가 불만하다. 이곳은 다른 곳보다 해송림이 적고 낙엽 활엽수림이 많아, 보다 다양한 식생상태를 엿볼 수 있다.

구천계곡일대에 나타나는 식물을 열거하면 해송, 소나무, 노간주나무, 향나무, 이팝나무, 왕고로쇠, 만주고로쇠, 배롱나무, 팔배나무, 서나무, 개서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졸참나무, 쪽동백, 고향나무, 돌배나무, 개나리, 멀꿀, 질경이, 양지꽃, 칩, 왕대, 이대, 개망초, 광대싸리, 실새, 도둑놈의갈고리, 까치수염, 비목나무, 두릅나무, 병꽃나무, 으름덩굴, 물푸레나무, 쇠물푸레, 등골나물, 작살나무, 좁쌀나무, 감나무, 고욤나무, 덜꿩나무, 국수나무, 좁개잎나무, 층층나무, 사람주나무, 미역줄나무, 붉나무, 밤나무, 나도밤나무, 기름새, 마, 단풍마, 뿌리뱅이, 참개암나무, 족제비싸리, 밀사초, 고비, 고사리, 꼬리고사리, 실고사리, 쥐오줌풀, 기름새, 털대사초,

대사초, 길뚝사초, 보리사초, 밀나물, 느티나무, 복분자딸기, 산딸나무, 노린재나무, 검노린재나무, 생강나무, 진달래, 산철쭉, 철쭉, 보리밥나무, 보리수나무, 춘란, 말채나무, 오리나무, 털갈매나무, 기린초, 계요등, 감태나무, 천선과나무, 누리장나무, 다릅나무, 원추리, 노각나무, 딱총나무, 구기자나무, 탕자나무, 벽오동, 오리방풀, 버드나무, 갯버들, 자귀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노박덩굴, 다래나무, 거제딸기, 사위질빵, 꼭두선이, 미나리아재비, 소리쟁이, 물질경이, 흰민들레, 쇠서나물, 산씀바귀, 조밥나물, 도꼬마리, 갯질경이, 일엽초, 쭉부쟁이, 구절초, 노루귀, 무릇, 여로, 비비추, 노랑제비꽃, 석곡, 천남성, 바위솔, 참나리, 죽도리풀, 노루오줌, 타래난초, 바위채송화, 나도바랭이새, 솔새, 억새, 새, 개솔새, 갈대, 도라지, 잔대, 마삭줄, 층꽃풀, 원추리, 삼주, 진덕찰, 한련초, 윤노리나무, 일엽초, 땡땡이덩굴, 참쭉, 산국, 마디풀, 속속이풀, 고마리, 미꾸리낙시, 딱지꽃, 참취, 뚝갈, 마타리, 우산나물 등이었으며, 그외 사찰주변에 식재된 식물로서 당종려, 홍단풍, 삼지닥나무, 삼나무, 금사철나무, 개비자나무, 붓꽃, 대황, 아왜나무, 백목련, 목련 등이 있었다.

7. 계룡산

신현읍과 거제면 사이에 가로 놓여있는 거제의 명산으로 신현읍 쪽은 외관상 해송 순림으로 보이지만,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해송과 더불어 여러가지의 낙엽 활엽수들이 혼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현읍 쪽에는 산록에서 산 정상부까지 인도 겸 등산로를 훌륭하게 닦아 놓아서 많은 시민들이 도보 또는 자동차로 쉽게 산에 올라 자연을 즐기고 식물들과 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계룡산에서 나타나는 식물을 열거하면 해송, 소나무, 산딸기나무, 복분자딸기, 으아리, 소리쟁이, 아까시나무, 산오리나무, 산단풍나무, 좁은단풍나무, 나도밤나무, 사람주나무, 죽도리풀, 우산나물, 밀나물, 죽제비고사리, 고사리, 개고사리, 생강나무, 둥근잎생강나무, 때죽나무, 고추나무, 굴피나무, 물푸레나무, 철쭉, 덜꿩나무, 가막살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쫄레, 굴참나무, 졸참나무, 조록싸리, 실새, 검노린재나무, 세잎양지꽃, 오이풀, 대사초, 털대사초, 마삭덩굴, 땡땡이덩굴, 오리방풀, 감태나무, 삼주, 헛개나무, 이팝나무, 으름덩굴, 붉나무, 씌바귀, 얼레지, 엉겅퀴, 까치수염, 삼나무, 청미레덩굴, 작살나무, 좁작살나무, 팽나무, 윤노리나무, 개머루, 은평의다리, 홀아비꽃대, 계요등, 개웃나무, 산검양웃나무, 밀나물, 누린내풀, 줄방제비꽃, 노랑제비꽃, 반하, 국수나무, 쥐똥나무, 광대싸리, 집신나물, 인동넝쿨, 개머루, 가세잎개머루, 비목나무, 노박덩굴, 합다리, 오리새, 개망초, 망초, 참쭉, 담배풀, 예덕나무, 소사나무, 말오줌대, 서어나무, 상수리나무, 병꽃나무, 팔배나무, 달피나무, 실새, 산겨울, 박쥐나무, 죽재비싸

리, 등골나무, 층층나무, 감나무, 호장근, 국수나무, 맑은대쭉, 참빛살나무, 느티나무, 떡갈나무, 산뽕나무, 사방오리나무, 오동나무, 물갠나무, 새머루, 고비, 딱갈, 마타리, 이팝나무, 다래나무, 뿌리뱅이, 민들레 등이었으며 산정부에는 산철쭉, 철쭉, 진달래 등이 많아 봄이면 철쭉꽃이 만발하여 장관을 이루기 때문에 거제시민들의 관광지로 되어 있으며 주위에는 새, 솔새, 개솔새, 참억새, 김의털, 실새, 쇠풀, 할미꽃 등 초본류가 무성하게 자라는 풀밭이 있었다.

산등성을 넘어 거제면쪽은 해송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신현읍쪽보다 적으며, 그 대신 참나무류, 서어나무류, 단풍나무류, 때죽나무, 자귀나무, 굴피나무, 벗나무, 생강나무, 팔배나무 등 낙엽활엽수들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계룡산지역에서 특이할 만한 식물로는 말오줌때, 헛개나무, 달피나무, 둥근잎생강나무, 얼레지 등을 들 수 있다.

8. 대금산

대금산은 장목면과 연초면 사이에 위치한 산으로 높이가 437m이며, 마치 큰 갓을 얹혀놓은 것같은 모양으로 단일봉이 우뚝 솟아있어, 어느 방향에서 봐도 비슷한 모양을 보인다. 산의 팔부 능선까지 해송 단순림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이상의 높은 지역은 암석지대와 더불어 철쭉류 및 억새류가 번성하고 있어, 봄이면 철쭉꽃으로 유명하고, 가을에는 억새풀밭으로 이름나 있다. 대금산의 대부분의 산림이 외관상으로는 해송 단순림인 것같이 보이지만, 임상의 하층에는 들어가면 군데군데 참나무류의 무리들이 번성하고 일부는 해송림 위로 치솟아 오르고 있으며, 굴피나무, 벗나무, 개서나무, 때죽나무 등도 뒤질세라 앞 다투어 해송림과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곳도 다른 산들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해송 단순림에서 점차 참나무림내지 낙엽 활엽수림으로 천이되어 가는 도중임을 알 수 있다. 연초면쪽에는 과거 산허리까지 올라 가면서 경작을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점차 경작을 하지 못하고 묵밭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곳은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삼나무나 편백 등 경제림 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연초면쪽에서 대금산을 오르며 조사한 식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해송과 더불어 상층림을 형성하고 있는 수종으로는 굴참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굴피나무, 벗나무, 산오리나무, 오리나무, 물갠나무, 팔배나무, 때죽나무, 소나무, 층층나무, 개서나무 등이고, 삼나무 편백, 리기다소나무 등 식재목도 간혹 나타났다.

그 외 관목류 및 초본류로는 층꽃나무(층꽃풀), 까치수염, 오리방풀, 가새잎뽕나무, 조록싸리, 예덕나무, 산초나무, 개웃나무, 새, 고들빼기, 담배풀, 개머루, 산딸기나무, 붉나무, 구절초, 쭉부쟁이, 수까치개, 생강나무, 고욤나무, 싸리, 참싸리, 며느리밥풀,

댕댕이덩굴, 계요등, 망초, 개망초, 그렁, 수크렁, 억새, 누리장나무, 산초나무, 청미래덩굴, 쇠서나물, 보리수나무, 산철쭉, 맑은대쭉, 딱갈, 뱀무, 질경이, 강아지풀, 바다나물, 털대사초, 미역취, 씌바귀, 가막살나무, 진달래, 마타리, 딱갈, 참취, 개박하, 갯취, 노랑제비꽃, 등골나물, 노루귀, 패랭이꽃, 참개암나무, 범꼬리, 제비꽃, 산검양옻나무, 죽재비싸리, 남산제비꽃, 병꽃나무, 딱총나무, 정향나무, 합다리나무, 고추나무, 노박덩굴, 미역줄나무, 벼룩나물, 마디풀, 개솔새, 김의털, 실새, 개맥문동, 쇠풀, 큰비노리, 나도바랭이새, 마삭덩굴, 담쟁이덩굴, 일엽초, 타래난초, 원추리, 천남성, 노루오줌, 바위솔, 잔대, 노루귀, 참나리, 물봉선, 머위, 산국, 양지꽃, 팽나무, 기린초, 용담, 버드나무, 왕버들, 두릅나무, 참느릅나무, 국수나무, 맹종죽, 이대, 왜모시풀, 소리쟁이 주름조개풀, 여로, 방동산이, 이삭여뀌, 보리사초, 도깨비바늘, 쇠물푸레, 지칭개, 패랭이꽃, 쇠서나물, 쇠풀, 솔방울고랭이, 딱새풀, 달뿌리풀, 금불초, 우산나물, 산씀바귀, 사대풀, 큰방가지똥, 담배취, 뿌리맹이 등이었다.

9. 앵 산

하청면 서쪽에 위치한 산으로 유계리쪽에서 오르면 옛날부터 유명한 사찰인 광청사(廣靑寺)가 자리잡고 있으며, 앵산 깊은 계곡에서 흐르는 물은 아래쪽 저수지의 수원이 되고 나아가 유계리 들판의 젓줄이 되고 있다. 앵산도 전반적으로 해송 우점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지금은 다른 산들과 같이 낙엽 활엽수들이 점차 번성하고 있는 상태이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앵산에 박달나무가 과거 자라고 있었다고 하나,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아마 말채나무나 산딸나무의 지방명인 듯 하다. 앵산의 상층림을 형성하고 있는 나무로는 해송을 위시하여 졸참나무,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굴피나무, 참느릅나무, 비목, 말채나무, 만주고로쇠, 떡갈나무, 벗나무, 때죽나무, 개서나무, 느티나무, 말채나무, 산오리나무, 사방오리나무, 물갸나무 등이었으며, 계곡에는 버드나무, 왕버들, 오리나무, 다릅나무 등이 나타났다.

그외 광청사를 거쳐 산정에 오르는 계곡과 산 북부에서는 다음 식물들이 나타났다. 매듭풀, 비수리, 달맞이꽃, 쇠서나물, 개밀, 새, 개솔새, 억새, 실새, 도꼬마리, 참중나무, 담배풀, 차즈기, 산뽕나무, 나도바랭이새, 예덕나무, 싸리, 노린재나무, 청미래덩굴, 참싸리, 조록싸리, 다래나무, 두릅나무, 고들빼기, 왕벗나무, 나도밤나무, 참개암나무, 작살나무, 좀작살나무, 병꽃나무, 노간주나무, 덜꿩나무, 털진덕찰, 마, 단풍마, 새콩, 복사나무, 칩, 맹종죽, 한련초, 개망초, 사위질빵, 개박하, 질경이, 소리쟁이, 물봉선, 방가지똥, 편백, 삼나무, 가새잎뽕나무, 인동넝쿨, 으름덩굴, 쇠채, 왜모시풀, 쇠무를, 국수나무, 거북꼬리, 장대여뀌, 밤나무, 기린초, 쑥부쟁이, 구절초, 석곡, 일엽초,

죽재비고사리, 개고사리, 고사리, 고비, 봉의꼬리, 꼬리고사리, 고란초, 비늘고사리, 일엽초, 원추리, 말나리, 참나리, 산딸기나무, 복분자딸기, 명석딸기, 무릇, 여로, 비비추, 부추, 맥문동, 개맥문동, 은평의다리, 좀평의다리, 까치수염, 한삼덩굴, 거지덩굴, 개머루, 새머루, 청까마귀머루, 이질풀, 땅비싸리, 돌콩, 등나무, 아까시나무, 칩, 바다나물, 자귀풀, 팽이싸리, 딱갈, 마타리, 으름, 윤노리나무, 꿀풀, 둥굴레, 잔대, 비수리, 김의털, 바위솔, 미역취, 진득찰, 민들레, 바랭이, 우산나물, 닭의장풀, 달뿌리풀, 머위, 쥐꼬리망초, 쪽동백나무, 배롱나무, 양버들, 갯버들, 바다나물, 양지꽃, 산거울, 고추나무, 왕고로쇠, 신나무, 산검양옷나무, 붉나무, 나비나물, 새팔, 팽이싸리, 가중나무비수리, 시호, 활양나물 등이었다.

10. 산방산

둔덕면 동편에 위치한 산방산은 서쪽으로 고려 의왕이 거처했던 후두보산성과 마주하고 있으며, 산 입구에는 우리나라의 명시인 청마 유치환선생의 생가(生家)가 있고, 산 골짜기에는 보현사가 자리잡고 있다. 산정부에는 암석으로 된 두개의 봉우리가 형제처럼 우뚝 솟아 사방으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고, 이들 암석은 능선을 따라 산중 북부까지 이어져 내려 오면서 군데군데 튀어나와 작은 바위 봉우리를 만들고 있다. 그외 아랫부분은 푸른 해송림으로 감싸고 있어, 이 산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산방산이 바로 거제의 명산임을 직감할 수 있다. 산정부 주변에는 철쭉, 산철쭉, 진달래 등 철쭉류가 많아 봄이면 철쭉꽃으로도 유명하다.

산방산에 분포하는 식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보현사 계곡을 택하였다. 입구에서 보현사에 이르는 산록과 계곡에서 나타난 중요 식물로는 쇠서나물, 고들빼기, 사위질빵, 띠, 억새, 새, 개솔새, 잔디, 죽재비고사리, 고사리, 발풀고사리, 꼬리고사리, 개고사리, 실고사리, 고비, 차풀, 피막이풀, 산딸기나무, 명석딸기, 짚레, 거제딸기, 긴잎딸기, 복분자딸기, 달맞이꽃, 참쭈, 도둑놈의갈고리, 그렁, 수크렁, 인동넝쿨, 쥐똥나무, 마삭덩굴, 산오리나무, 산검양옷나무, 담배풀, 담쟁이덩굴, 소사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산철쭉, 붉나무, 쥐꼬리망초, 산초나무, 초피나무, 까마중, 참싸리, 싸리, 해변싸리, 까치수염 등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발풀고사리 군락의 발견이 가장 보람있는 일이었다.

보현사 경내에는 조경용으로 식재한 당종려, 치자나무, 회양목, 긴잎회양목, 향나무, 가이스가향나무, 섬향나무, 백정화, 비파, 서리화백, 동백나무, 무궁화, 아왜나무, 개나리, 이대, 은행나무, 벽오동, 팔손이나무, 편백, 화백, 유카, 금반식나무, 황매화, 석류나무, 유자나무, 서향, 양하 등이 있었다.

보현사를 지나면서 산거울, 가새잎개머루, 국수나무, 땅비싸리, 대새풀, 층꽃나무, 천남성, 도깨비바늘, 까치밭, 오이풀, 쇠풀, 산국, 수까치개, 청미래덩굴, 칩, 느티나무, 검노린재나무, 단풍나무, 나도바랭이새, 새콩, 돌콩, 엉겅퀴, 산뽕나무, 개머루, 비진도콩, 왕대, 사철나무, 솜대, 좀깨잎나무, 썩부쟁이, 구절초, 굴피나무, 예덕나무, 두릅나무, 개웃나무, 참느릅나무, 복사나무, 생강나무, 둥근잎생강나무, 때죽나무, 마, 단풍마, 밤나무, 나도밤나무, 좀작살나무, 며누리밥풀, 덜꿩나무, 땡땡이덩굴, 제비쑥, 족제비고사리, 세잎양지꽃, 노루귀, 비목나무, 팔배나무, 으름, 자귀나무, 감태나무, 조록싸리, 오리방풀, 제비꽃, 줄방제비꽃, 대사초, 계요등, 오리나무, 상수리나무, 산벗나무, 광대싸리, 사방오리나무, 산오이풀, 땅빈대, 양지꽃, 할미꽃, 철쭉, 진달래, 산거울, 장대나물, 배풍등, 개사상자, 솔나물, 골풀, 여로, 뚝갈, 마타리, 무릇, 바위채송화, 돌나물, 나비나물, 잔대, 도라지, 꿀풀, 바위솔, 자귀풀, 차풀, 선이질풀, 짚신나물, 명아주, 참으아리, 가는범꼬리, 방동산이, 마디풀, 네가래, 생이가래, 개면마, 젓가락풀, 미나리아재비, 산여뀌, 큰봉의꼬리, 바위채송화, 바위솔, 흑느릅나무, 쥐꼬리망초 등이 나타났다.

산방산지역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보현사 계곡에 갈참나무가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과 앞에서 설명한 발풀고사리와 비진도콩, 둥근잎생강나무 등이 이곳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11. 서이말등대 지역

서이말 등대지역은 거제시 일운면의 남쪽 해안에 반도처럼 튀어나와 있어 동쪽에는 지심도, 서쪽에는 외도와 내도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식생상태는 이들 섬지역과 유사한 점이 많았으며, 다른 지역에 비하면 해송이 점유하는 비율이 적었고, 그 대신 활엽수의 출현비율이 많았다. 이 지역은 국가의 중요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산림보호 상태는 다른 어느지역보다도 잘되고 있었다. 등대 뒷산에는 구실잣밤나무, 참식나무, 생달나무 등의 노거수(老巨樹)들이 많았으며, 동쪽경사면 지대는 동백나무의 생육이 양호했다.

이 지역에 분포하는 활엽수중 낙엽 활엽수로는 굴참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때죽나무, 비목나무, 자귀나무, 노린재나무, 산뽕나무, 가새잎뽕나무, 굴피나무, 팔배나무, 산오리나무, 사방오리나무, 보리수나무 등이 흔한 편이며, 비교적 희귀수목인 머귀나무, 소태나무, 함박꽃나무, 멀구슬나무, 산검양옻나무 등이 간혹 나타났다. 한편, 상록 활엽수로는 생달나무,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참식나무, 까마귀쭈박나무, 육박나무, 굴거리나무, 사스레피나무, 남오미자, 광나무, 감탕나무, 모람, 돈나무, 보리밥나무, 송

약, 멀꿀, 마삭덩굴, 아왜나무, 사철나무 등이 나타났으며, 침엽수로는 해송, 소나무, 향나무, 노간주나무와 식재된 것으로 편백삼나무, 둥근향나무, 섬향나무 등이 있었다.

그 외에 이곳에 생육하는 관목류, 덩굴식물 및 초본류는 다음과 같다. 산초나무, 조록싸리, 구절초, 쑥부쟁이, 맑은대쑥, 쥐똥나무, 새, 산거울, 족제비고사리, 누리장나무, 방기, 새머루, 개머루, 천남성, 큰천남성, 우산나물, 사위질빵, 여뀌, 이삭여뀌, 도둑놈의갈고리, 쥐꼬리새, 엉겅퀴, 질경이, 오리방풀, 까치수염, 칩, 예덕나무, 단풍마, 작살나무, 좁작살나무, 청미레덩굴, 땡땡이덩굴, 쇠서나물, 나도바랭이새, 붉나무, 천선과나무, 산딸기나무, 인동넝쿨, 억새, 솔새, 개솔새, 그렁, 수크렁, 층꽃나무, 쇠풀, 비비추, 꿩의다리, 꼬리고사리, 개고사리, 대사초, 띠, 개밀, 참개암나무, 맥문동, 닭의장풀, 해홍나물, 패랭이꽃, 기린초, 개승마, 멀꿀, 으름, 복분자딸기, 국수나무, 짚신나물, 용담, 박주가리, 매꽃, 참취, 주름조개풀, 자리공, 애기똥풀, 염주괴불주머니, 밀사초, 지칭개, 삼주, 진덕찰, 도깨비바늘, 한련초, 며느리밥풀, 새콩, 돌콩, 털머위, 일엽초, 갯취 등이었다.

12. 거제시의 산과 들에 피는 꽃식물

지구상에 생육하는 모든 식물들은 그가 지닌 잎, 줄기, 열매, 꽃 등의 특성으로 우리 인류에게 즐거움을 주지않은 것이 없을 것이나, 그 중에서도 계절에 따라形形色색으로 피어 오르는 식물의 꽃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을 한층 더 즐겁게 하고, 맑은 정서를 안겨 준다. 온실이나 가정에서 재배하는 개량된 꽃들도 모두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만, 푸른 들판 한 모퉁이에서, 시냇물 흐르는 개울가나 심산 계곡에서, 모진바람 불어오는 산마루에서나 매마른 바위틈에서 외로이 피어 있다가, 찾아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청순한 꽃들은 누구나 한번 보면 그냥 즐겁고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값진 것으로 여기고 있다.

1) 초 본(草本)

백양꽃, 젓가락풀, 미나리아재비, 할미꽃, 흠아비꽃대, 투구꽃, 패랭이꽃, 술패랭이꽃, 장구채, 갯장구채, 노루귀, 물매화, 애기똥풀, 양지꽃, 물봉선, 백선, 까치수염, 큰까치수염, 봄맞이꽃, 용담, 재비꽃, 노랑재비꽃, 얼레지, 개구릿대, 갯매꽃, 층꽃풀(층꽃나무라고도 함), 꿀풀, 꽃며느리밥풀, 마타리, 딱갈, 도라지, 잔대, 바위채송화, 노루오줌, 족도리풀, 쥐오줌풀, 달맞이꽃, 천남성, 큰천남성, 산국, 구절초, 쑥부쟁이(보통 들국화라 함), 미역취, 민들레, 흰민들레, 향유, 개박하, 긴담배풀, 맥문동, 개맥문동,

원추리, 비비추, 참나리, 무릇, 붓꽃, 타래난초, 풍란, 석곡, 보춘화, 콩짜개난

2) 목 본(木本)

으아리, 자귀나무, 남오미자, 생강나무, 바위수국, 황매화, 실거리나무, 나도밤나무, 합다리나무, 땅비싸리, 광나무, 쥐똥나무, 정향나무, 때죽나무, 쪽동백나무, 작살나무, 좀작살나무, 왕작살나무, 인동넝쿨, 딱총나무, 누리장나무, 층층나무, 말채나무, 산딸나무, 진달래, 산철쭉, 철쭉꽃, 이팝나무, 조팝나무, 덜꿩나무, 가막살나무, 동백, 고추나무, 말오줌때, 윤노리나무, 팔배나무.

제6절 식물 목록

거제시에는 거제에 자생하는 식물과 제주도 등 국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중요 식물 및 외국에서 수입된 관상수, 약용식물, 과실수 등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본 LIST는 이번에 조사된 식물과 과거 선인 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여, 이창복(李昌福)의 대한식물도감에 따라 정리하였다.

Tracheophyta	관속식물 門	
Lycopsida	석송 亞門	
Lycopodineae	석송 綱	
Selaginellaceae	부처손 科	
<i>Selaginella rossii</i> (Baker) Warb.		구실사리
<i>Selaginella involvens</i> (SW.) Spring		바위손
Sphenopsida	속새 亞門	
Equisetineae	속새 綱	
Equisetaceae	속새 科	
<i>Equisetum arvense</i> L.		쇠뜨기

Pteropsida	양치식물 亞門	
Filicineae	고사리 綱	
Osmundaceae	고비 科	
<i>Osmunda japonica</i> Thunb.		고비
Schizaeaceae	실고사리 科	
<i>Lygodium japonicum</i> (Thunb.) Sw.		실고사리
Gleicheniaceae	풀고사리 科	
<i>Gleichenia dichotoma</i> (Thunb.) Hooker		밭풀고사리
<i>Gleichenia japonica</i> Spreng		풀고사리
Pteridaceae	고사리 科	
<i>Pteridium aquilinum</i> var. <i>latiusculum</i> (Desv.) Underw.		고사리
<i>Pteris multifida</i> Poir.		봉의꼬리
<i>Pteris cretica</i> L.		큰봉의꼬리
<i>Pteris diapar</i> Kuntze		반쪽고사리
<i>Coniogramme intermedia</i> Hieron.		고비고사리
Davalliaceae	넉줄고사리 科	
<i>Davallia mariesii</i> Moore		넉줄고사리
Aspidiaceae	면마 科	
<i>Matteuccia orientalis</i> (Hook.) Trev.		개면마
<i>Matteuccia struthiopteris</i> (L.) Todaro		청나래고사리
<i>Onoclea sensibilis</i> var. <i>interrupta</i> Max.		야산고비
<i>Polystichum tripterum</i> (Kunze) Presl		십자고사리
<i>Cyrtomium falcatum</i> (L.) Presl		도깨비고비
<i>Cyrtomium fortunei</i> J. Smith		쇠고비
<i>Cyrtomium caryotideum</i> var. <i>koreanum</i> Nakai		참쇠고비
<i>Rumohra amabilis</i> (Bl.) Ching		쇠고사리
<i>Dryopteris lacera</i> (Thunb.) O. Kuntze		비늘고사리

<i>Dryopteris bissetiana</i> (Bak.) C.Christ.	족제비고사리
<i>Lastrea thelypteris</i> (L.) Bory	처녀고사리
<i>Cyclosorus acuminatus</i> (Houtt.) Nakai	별고사리
<i>Athyrium yokoscense</i> (Fr. et Sav.) H. Christ	뱀고사리
<i>Athyrium niponicum</i> (Mett.) Hance	개고사리

Aspleniaceae 꼬리고사리 科

<i>Asplenium incisum</i> Thunb.	꼬리고사리
<i>Asplenium sarelii</i> Hook.	돌담고사리

Polypodiaceae 고란초 科

<i>Lepisorus thunbergianus</i> (Kaulf.) Ching	일엽초
<i>Lemmaphyllum microphyllum</i> Presl.	콩짜개덩굴
<i>Neocheiropteris ensata</i> (Thunb.) Ching	밤일엽
<i>Pyrrosia linearifolia</i> (Hook.) Ching	우단일엽
<i>Pyrrosia tricuspis</i> (Sw.) Tagawa	세뿔석위
<i>Crypsinus hastatus</i> (Thunb.) Copel.	고란초

Marsileaceae 네가래 科

<i>Marsilea quadrifolia</i> L.	네가래
--------------------------------	-----

Salviniaceae 생이가래 科

<i>Salvinia natans</i> (L.) All.	생이가래
----------------------------------	------

Gymnospermae 나자식물 綱

Cycadaceae 소철 科

<i>Cycas revoluta</i> Thunb.	소철
------------------------------	----

Ginkgoaceae 은행나무 科

<i>Ginkgo biloba</i> L.	은행나무
-------------------------	------

Taxaceae 주목 科

<i>Torreya nucifera</i> S. et Z.	비자나무
<i>Taxus cuspidata</i> S. et Z.	주목

<i>Cephalotaxus koreana</i> Nakai		개비자나무
Podocarpaceae	나한송 科	
<i>Podocarpus macrophyllus</i> var. <i>maki</i> Sieb.		나한송
Pinaceae	소나무 科	
<i>Abies firma</i> S. et Z.		일본전나무
<i>Abies holophylla</i> Max.		젓나무
<i>Larix leptolepis</i> (S. et Z.) Gordon.		일본잎갈나무
<i>Cedrus deodara</i> (Roxb.) Loudon		개잎갈나무
<i>Pinus koraiensis</i> S. et Z.		잣나무
<i>Pinus parviflora</i> S. et Z.		섬잣나무
<i>Pinus strobus</i> L.		스트로브잣나무
<i>Pinus rigida</i> Miller		리기다소나무
<i>Pinus densiflora</i> S. et Z.		소나무
<i>Pinus densiflora</i> for. <i>multicaulis</i> Uyeki		반송
<i>Pinus thunbergii</i> Parl.		곰솔
<i>Pinus densiflora</i> for. <i>pendula</i> Mayr		처진소나무
Taxodiaceae	낙우송 科	
<i>Metasequoia glyptostroboides</i> Hu et Cheng		메타세쿼이아
<i>Taxodium distichum</i> (L.) Rich.		낙우송
<i>Sciadopitys verticillata</i> S. et Z.		금송
<i>Cryptomeria japonica</i> D. Don		삼나무
<i>Cunninghamia lanceolata</i> Hooker		넓은잎삼나무
Cupressaceae	측백나무 科	
<i>Thuja orientalis</i> L.		측백나무
<i>Thujopsis dolabrata</i> (L. fil.) S. et Z.		나한백
<i>Chamaecyparis obtusa</i> (S. et Z.) Endl.		편백
<i>Chamaecyparis pisifera</i> (S. et Z.) Endl.		화백
<i>Juniperus chinensis</i> L.		향나무
<i>Juniperus chinensis</i> var. <i>sargentii</i> Henry		눈향나무
<i>Juniperus chinensis</i> var. <i>procumbens</i> (Sieb.) Endl.		섬향나무

<i>Juniperus virginiana</i> L.	연필향나무
<i>Juniperus rigida</i> S. et Z.	노간주나무
<i>Juniperus chinensis</i> var. <i>kaizuka</i> Hort.	카이즈카향나무

Angiospermae	피자식물 綱
Monocotyledoneae	단자엽식물 亞綱
Typhaceae	부들 科

<i>Typha orientalis</i> Presl	부들
-------------------------------	----

Alismataceae	택사 科
---------------------	------

<i>Sagittaria pygmaea</i> Miq.	을미
<i>Sagittaria trifolia</i> L.	벗풀
<i>Sagittaria aginashi</i> Makino	보풀

Hydrocharitaceae	자라풀 科
-------------------------	-------

<i>Ottelia alismoides</i> (L.) Pers.	물길경이
--------------------------------------	------

Gramineae	벼 科
------------------	-----

<i>Phyllostachys pubescens</i> Mazel	죽순대
<i>Phyllostachys nigra</i> var. <i>henonis</i> Stapf	숨대
<i>Phyllostachys nigra</i> Munro	오죽
<i>Pseudosasa japonica</i> Makino	이대
<i>Alopecurus aequalis</i> var. <i>amurensis</i> (Kom.) Ohwi	뚝새풀
<i>Beckmannia syzigachne</i> (Steud.) Fernald	개피
<i>Calamagrostis arundinacea</i> (L.) Roth	실새풀
<i>Avena fatua</i> L.	메귀리
<i>Agropyron tsukushiense</i> var. <i>transiens</i> (Hack.) Ohwi	개밀
<i>Agropyron yesoense</i> Honda	자주개밀
<i>Hordeum vulgare</i> var. <i>hexastichon</i> Aschers.	보리
<i>Hordeum vulgare</i> var. <i>nudum</i> Hooker fil.	쌀보리
<i>Dactylis glomerata</i> L.	오리새
<i>Festuca ovina</i> L.	김의털

<i>Zizania latifolia</i> Turcz.	줄
<i>Oryza sativa</i> L.	벼
<i>Oryza sativa</i> var. <i>glutinosa</i> Matsum.	찰벼
<i>Oryza sativa</i> var. <i>terrestris</i> Max.	산두
<i>Lothatherum sinense</i> Rendle	털조릿대풀
<i>Phragmites communis</i> Trin.	갈대
<i>Eragrostis ferruginea</i> (Thunb.)P. Beauv.	그렁
<i>Eragrostis pilosa</i> (L.) Beauv.	큰비노리
<i>Eleusin indica</i> (L.) Gaertn.	왕바랭이
<i>Cleistogenes hackelii</i> Honda	대새풀
<i>Sporobolus elongatus</i> R. Br.	쥐꼬리새풀
<i>Muhlenbergia japonica</i> Steud.	쥐꼬리새
<i>Crypsis aculeata</i> (L.) Ait.	갯을무
<i>Zoysia japonica</i> Steud.	잔디
<i>Zoysia tenuifolia</i> Willd	금잔디
<i>Zoysia sinica</i> Hance	갯잔디
<i>Zoysia macrostachya</i> Fr. et Sav.	왕잔디
<i>Arundinella hirta</i> (Thunb.) Tanaka	새
<i>Pennisetum alopecuroides</i> (L.) Spreng.	수크렁
<i>Setaria viridis</i> (L.) Beauv.	강아지풀
<i>Eriochloa villosa</i> (Thunb.) Kunth	나도개피
<i>Oplismenus undulatifolius</i> (Ard.) Roem. et Schult.	주름조개풀
<i>Echinochloa crus-galli</i> (L.) Beauv.	돌피
<i>Echinochloa crus-galli</i> var. <i>oryzicola</i> Ohwi	물피
<i>Echinochloa crus-galli</i> var. <i>frumentacea</i> (Roxb.) Wight	피
<i>Isachne globosa</i> (Thunb.) O. Kuntze	기장대풀
<i>Imperata cylindrica</i> var. <i>koenigii</i> (Retz.)Durand et Schinz	띠
<i>Miscanthus sinensis</i> Anders.	참억새
<i>Miscanthus sinensis</i> var. <i>purpurascens</i> Rendle	억새
<i>Microstegium vimineum</i> A. Camus	나도바랭이새
<i>Cymbopogon tortilis</i> var. <i>geringii</i> (Steud.) Hand.-Mazz.	개솔새
<i>Andropogon brevifolius</i> Sw.	쇠풀
<i>Zea mays</i> L.	옥수수

Cyperaceae	사초 科	
<i>Carex boottiana</i> Hooker et Arnott		밀사초
<i>Carex humilis</i> Leyss.		산거울
<i>Carex parciflora</i> var. <i>macroglossa</i> (Fr. et Sav.) Ohwi		보리사초
<i>Carex siderosticta</i> Hance		대사초
<i>Carex ciliato-marginata</i> Nakai		털대사초
<i>Carex bostrychostigma</i> Max.		길뚝사초
<i>Carex dickinsii</i> Fr. et Sav.		도깨비사초
<i>Scirpus karuizawensis</i> Makino		슬방울고랭이
<i>Cyperus rotundus</i> L.		향부자
<i>Cyperus orthostachyus</i> Fr. et Sav.		쇠방동사니
<i>Cyperus amuricus</i> Max.		방동사니
<i>Cyperus difformis</i> L.		알방동사니
Araceae	천남성 科	
<i>Pinellia ternata</i> (Thunb.) Breit.		반하
<i>Arisaema ringens</i> Schott		큰천남성
<i>Arisaema amurense</i> var. <i>serratum</i> Nakai		천남성
<i>Arisaema robustum</i> Nakai		넓은잎천남성
Lemnaceae	개구리밥 科	
<i>Spirodela polyrhiza</i> (L.) Schleid.		개구리밥
Commelinaceae	닭의장풀 科	
<i>Tradescantia reflexa</i> Rafin.		자주닭개비
<i>Commelina communis</i> L.		닭의장풀
<i>Aneilema keisak</i> Hassk.		사마귀풀
Juncaceae	골풀 科	
<i>Luzula multiflora</i> lej.		산평의밥
<i>Juncus effusus</i> var. <i>decipiens</i> Buchen		골풀
Liliaceae	백합 科	
<i>Veratrum versicolor</i> Nakai		흰여로

<i>Hosta longipes</i> (Fr. et Sav.) Matsumura	비비추
<i>Hosta japonica</i> var. <i>latifolia</i> Nak.	넓은옥잠화
<i>Hemerocallis fulva</i> L.	원추리
<i>Hemerocallis dumortieri</i> Morr.	각시 원추리
<i>Allium thunbergii</i> G. Don	산부추
<i>Lilium distichum</i> Nakai	말나리
<i>Lilium tigrinum</i> Ker-Gawl.	참나리
<i>Erythronium japonicum</i> Decne.	얼레지
<i>Scilla scilloides</i> (Lind.) Druce	무릇
<i>Asparagus oligoclonos</i> Max.	방울비짜루
<i>Asparagus cochinchinensis</i> Merr.	천문동
<i>Asparagus schoberioides</i> Kunth	비짜루
<i>Polygonatum odoratum</i> var. <i>pluriflorum</i> Ohwi	둥굴레
<i>Polygonatum robustum</i> Nakai	왕둥굴레
<i>Disporum sessile</i> D. Don	윤관나물
<i>Liriope spicata</i> Lour.	개맥문동
<i>Liriope platyphylla</i> Wang et Tang	맥문동
<i>Ophiopogon jaburan</i> (Kunth) Lodd.	맥문아재비
<i>Ophiopogon japonicus</i> Ker-Gawl.	소엽맥문동
<i>Smilax riparia</i> var. <i>ussuriensis</i> Hara et T. Koyama	밀나물
<i>Smilax china</i> L.	청미래덩굴
<i>Nolina recurvata</i> Hemsl.	덕구리란

Amaryllidaceae 수선화 科

<i>Lycoris koreana</i> Nakai	백양꽃
<i>Hippeastrum hybridum</i> Hort.	아마릴리스
<i>Clivia miniata</i> REGEL	군자란

Agavaceae 용설난 科

<i>Agave americana</i> L.	용설란
<i>Yucca gloriosa</i> L.	유카

Dioscoreaceae 마 科

<i>Dioscorea japonica</i> Thunb.	참마
----------------------------------	----

<i>Dioscorea quinqueloba</i> Thunb.		단풍마
<i>Dioscorea septemloba</i> Thunb.		국화마
Iridaceae	붓꽃 科	
<i>Iris nertschinskia</i> Loddiges		붓꽃
<i>Belamcanda chinensis</i> (L.) DC.		범부채
<i>Gladiolus gandavensis</i> Van Houtte		글라디올러스
Zingiberaceae	생강 科	
<i>Zingiber mioga</i> (Thunb.) Rosc.		양하
Musaceae	파초 科	
<i>Musa basjoo</i> Sieb.		파초
<i>Strelitzia reginae</i> Ait.		극란조화
Cannaceae	홍초 科	
<i>Canna generalis</i> Bailey		홍초
Orchidaceae	난초 科	
<i>Cephalanthera longibracteata</i> Blume		은대난초
<i>Calanthe discolor</i> LINDL.		새우난초
<i>Calanthe striata</i> R. BR.		금새우난
<i>Spiranthes sinensis</i> (Pers.) Ames		타래난초
<i>Dendrobium moniliforme</i> (L.) Sw.		석곡
<i>Bulbophyllum drymoglossum</i> Max.		콩짜개난
<i>Cymbidium goeringii</i> Reichb. fil.		보춘화
<i>Neofinetia falcata</i> (Thunb.) Hu		풍란
Dicotyledoneae	쌍자엽식물 亞綱	
Archichlamydea	이판화 群	
Chloranthaceae	홀아비꽃대 科	
<i>Chloranthus japonica</i> Sieb.		홀아비꽃대
Salicaceae	버드나무 科	

<i>Populus alba</i> L.	은백양
<i>Populus cathayana</i> Rehder	중국황철나무
<i>Populus nigra</i> var. <i>italica</i> (MUnch.) Koehne	양버들
<i>Populus deltoides</i> Marshall	미류나무
<i>Populus euramericana</i> Guinier	이태리포플러
<i>Salix glandulosa</i> Seemen	왕버들
<i>Salix koreensis</i> Anderss.	버드나무
<i>Salix pseudo-lasiogyne</i> Leveille	능수버들
<i>Salix babylonica</i> L.	수양버들
<i>Salix matsudana</i> for. <i>tortuosa</i> Rehder	용버들
<i>Salix graciliglans</i> Nakai	눈갯버들
<i>Salix gracilistyla</i> Miquel	갯버들

Juglandaceae**가래나무 科**

<i>Platycarya strobilacea</i> S. et Z.	굴피나무
<i>Juglans mandshurica</i> Max.	가래나무
<i>Juglans sinensis</i> Dode	호두나무

Betulaceae**자작나무 科**

<i>Alnus japonica</i> Steud.	오리나무
<i>Alnus hirsuta</i> (Spach) Rupr.	물오리나무
<i>Alnus firma</i> S. et Z.	사방오리
<i>Carpinus dordata</i> Bl.	까치박달
<i>Carpinus tschonoskii</i> Max.	개서어나무
<i>Carpinus laxiflora</i> Bl.	서어나무
<i>Carpinus coreana</i> Nakai	소사나무
<i>Ostrya japonica</i> var. <i>homochaeta</i> Honda	좀새우나무
<i>Corylus heterophylla</i> Fisch. Bl.	난티잎개암나무
<i>Corylus sieboldiana</i> Bl.	참개암나무
<i>Corylus sieboldiana</i> var. <i>mandshurica</i> (Max.) C.K. Schneid.	물개암나무

Fagaceae**참나무 科**

<i>Castanea crenata</i> S. et Z.	밤나무
<i>Castanopsis cuspidata</i> var. <i>thunbergii</i> Nak.	모밀잣밤나무

Castanopsis cuspidata var. *sieboldii* Nak.
Quercus acutissima Carr.
Quercus variabilis Blume
Quercus dentata Thunb.
Quercus aliena Bl.
Quercus mongolica Fisch.
Quercus serrata Thunb.
Quercus acuta Thunb.
Quercus glauca Thunb.
Quercus myrsinaefolia Bl.
Quercus phillyraeoides A. Gray

구실잣밤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붉가시나무
 종가시나무
 가시나무
 즐가시나무

Ulmaceae

느릅나무 科

Ulmus parvifolia Jacq.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Nakai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for. *subelosa* Nakai
Hemiptelea davidii Planch.
Zelkova serrata Makino
Celtis choseniana Nakai
Celtis biondii var. *heterophylla* Schneid.
Celtis sinensis Pers.

참느릅나무
 느릅나무
 흑느릅나무
 시무나무
 느티나무
 검팽나무
 폭나무
 팽나무

Moraceae

뽕나무 科

Cudrania tricuspidata Bureau
Morus bombycis Koidz.
Morus bombycis for. *kase* Uyeki
Morus alba L.
Broussonetia kazinoki Sieb.
Broussonetia papyrifera (L.) Vent.
Ficus erecta Thunb.
Ficus nipponica Fr. et Sav.
Ficus carica L.
Ficus elastica Roxb.
Ficus eenjamin L.

꾸지뽕나무
 산뽕나무
 가새뽕나무
 뽕나무
 닥나무
 꾸지나무
 천선과나무
 모람
 무화과
 인도고무나무
 벤자민고무나무

Cannabaceae	삼 科	
<i>Humulus japonicus</i> S. et Z.		환삼덩굴
Urticaceae	췌기풀 科	
<i>Boehmeria tricuspis</i> Makino		거북꼬리
<i>Boehmeria pannosa</i> Nakai et Satake		왕모시풀
<i>Boehmeria longispica</i> Steud.		왜모시풀
Aristolochiaceae	취방울덩굴 科	
<i>Asarum maculatum</i> Nakai		개죽도리
<i>Asarum sieboldii</i> Miq.		죽도리
Polygonaceae	마디풀 科	
<i>Rumex acetosa</i> L.		수영
<i>Rumex crispus</i> L.		소리쟁이
<i>Reynoutria elliptica</i> (Koidz.) Migo		호장근
<i>Persicaria filiforme</i> Nakai		이삭여뀌
<i>Persicaria perfoliata</i> Gross		며느리배꼽
<i>Persicaria senticosa</i> Nakai		며느리밑씻개
<i>Persicaria debilis</i> (Meisn.) Gross		세뺨여뀌
<i>Persicaria thunbergii</i> H. Gross		고마리
<i>Persicaria sieboldii</i> Ohki		미꾸리뉘시
<i>Persicaria</i> var. <i>aestiva</i> Ohki		민미꾸리뉘시
<i>Persicaria nepalensis</i> Miyabe et Kudo		산여뀌
<i>Persicaria hydropiper</i> (L.) Spach		여뀌
<i>Persicaria blumei</i> Gross		개여뀌
<i>Polygonum aviculare</i> L.		마디풀
Chenopodiaceae	명아주 科	
<i>Chenopodium virgatum</i> Thunb.		버들명아주
<i>Chenopodium glaucum</i> L.		취명아주
<i>Chenopodium album</i> var. <i>centrorubrum</i> Makino		명아주
<i>Atriplex subcordata</i> Kitagawa		갯능쟁이
<i>Kochia scoparia</i> Schrad.		덩싸리

<i>Suaeda maritima</i> Dum.		해홍나물
Amaranthaceae	비름 科	
<i>Amaranthus tricolor</i> L.		색비름
<i>Amaranthus mangostanus</i> L.		비름
<i>Amaranthus lividus</i> L.		개비름
<i>Celosia cristata</i> L.		맨드라미
<i>Achyranthes japonica</i> (Miq.) Nakai		쇠무릎
Phytolaccaceae	자리공 科	
<i>Phytolacca esculenta</i> V. Houtte.		자리공
<i>Phytolacca americana</i> L.		미국자리공
Aizoaceae	석류풀 科	
<i>Tetragonia tetragonoides</i> O. Kuntze		번행초
<i>Mollugo pentaphylla</i> L.		석류풀
Portulacaceae	쇠비름 科	
<i>Portulaca oleracea</i> L.		쇠비름
<i>Portulaca grandiflora</i> Hooker		채송화
Caryophyllaceae	석죽 科	
<i>Arenaria serpyllifolia</i> L.		벼룩이자리
<i>Pseudostellaria heterophylla</i> (Miq.) Pax		개별꽃
<i>Stellaria aquatica</i> Scop.		쇠별꽃
<i>Dianthus caryophyllus</i> L.		카네이션
<i>Dianthus superbus</i> var. <i>longicalycinus</i> (Max.) Williams		슬패랭이꽃
<i>Dianthus superbus</i> Williams		패랭이꽃
<i>Melandryum firmum</i> (S. et Z.) Rohrb.		장구채
<i>Melandryum oldhamianum</i> for. <i>roseum</i> (Nak.) T. Lee.		갯장구채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 科	
<i>Clematis terniflora</i> DC.		참으아리
<i>Clematis apiifolia</i> A.P. DC.		사위질빵

<i>Pulsatilla koreana</i> Nakai		할미꽃
<i>Hepatica asiatica</i> Nakai		노루귀
<i>Ranunculus sceleratus</i> L.		개구리자리
<i>Ranunculus japonicus</i> Thunb.		미나리아재비
<i>Ranunculus tachiroei</i> Fr. et SAV		개구리미나리
<i>Ranunculus chinensis</i> Bunge		젓가락나물
<i>Thalictrum aquilegifolium</i> L.		평의다리
<i>Cimicifuga acerina</i> (S. et Z.) Tanaka		개승마
<i>Cimicifuga japonica</i> Spreng.		왜승마
<i>Paeonia japonica</i> Miyabe et Takeda		백작약
<i>Paeonia suffruticosa</i> Andr.		모란
Lardizabalaceae	으름덩굴 科	
<i>Akebia quinata</i> Decne.		으름
<i>Stauntonia hexaphylla</i> (Thunb.)Decne.		멸꿀
Berberidaceae	매자나무 科	
<i>Nandina domestica</i> Thunb.		남천
<i>Mahonia japonica</i> DC.		빨남천
Menispermaceae	방기 科	
<i>Menispermum dauricum</i> DC.		새모래덩굴
<i>Cocculus trilobus</i> DC.		덩댕이덩굴
Magnoliceae	목련 科	
<i>Liriodendron tulipifera</i> L.		튜울립나무
<i>Magnolia kobus</i> A.P.DC.		목련
<i>Magnolia liliflora</i> Desr.		자목련
<i>Magnolia obovata</i> Thunb.		일본목련
<i>Magnolia grandiflora</i> L.		태산목
<i>Magnolia denudata</i> Desr.		백목련
<i>Kadsura japonica</i> Dunal		남오미자
Lauraceae	녹나무 科	

<i>Lindera obtusiloba</i> Bl.	생강나무
<i>Lindera glauca</i> Bl.	감태나무(백동백)
<i>Lindera erythrocarpa</i> Makino	비목나무
<i>Cinnamomum camphora</i> Sieb.	녹나무
<i>Cinnamomum japonicum</i> Sieb.	생달나무
<i>Laurus nobilis</i> L.	월계수
<i>Machilus thunbergii</i> S. et Z.	후박나무
<i>Machilus thunbergii</i> var. <i>obovata</i> Nakai	왕후박나무
<i>Machilus japonica</i> S. et Z.	센달나무
<i>Neolitsea sericea</i> (Bl) Koidz.	참식나무
<i>Neolitsea aciculata</i> (Bl.) Koidz.	새덕이
<i>Lozoste lancifolia</i> (S. et Z.) Bl.	육박나무
<i>Litsea japonica</i> Juss.	까마귀쪽나무

Papaveraceae 양귀비 科

<i>Chelidonium majus</i> var. <i>asiaticum</i> (Hara) Ohw	애기똥풀
<i>Hylomecon vernale</i> Max.	피나무
<i>Hylomecon hylomeconoides</i> (Nak.) T. Lee	매미꽃

Fumariaceae 현호색 科

<i>Corydalis heterocarpa</i> S. et Z.	염주괴불주머니
---------------------------------------	---------

Cruciferae 십자화 科

<i>Thlaspi arvense</i> L.	말냉이
<i>Cardamine leucantha</i> O. E. Schulz	미나리냉이
<i>Rorippa islandica</i> (Oeder) Borb.	속속이풀
<i>Capsella bursa-pastoris</i> (L.) Medicus	냉이
<i>Arabis glabra</i> (L.) Bornh.	장대나물

Crassulaceae 들나물 科

<i>Orostachys japonicus</i> A. Berger	바위솔
<i>Sedum kamtschaticum</i> Fisch.	기린초
<i>Sedum polystichoides</i> Hemsl.	바위채송화
<i>Sedum bulbiferum</i> Makino	말똥비름

Saxifragaceae	범의귀 科	
<i>Astilbe chinensis</i> var. <i>dauidii</i> Fr		노루오줌
<i>Parnassia palustris</i> L.		물매화
<i>Deutzia parviflora</i> Bunge		말발도리
<i>Philadelphus schrenckii</i> Rupr.		고광나무
<i>Hydrangea macrophylla</i> for. <i>otaksa</i> (S.et z.) Wilson		수국
<i>Schizophragma hydrangeoides</i> S. et Z.		바위수국
Pittosporaceae	돈나무 科	
<i>Pittosporum tobira</i> Aiton		돈나무
Hamamelidaceae	조록나무 科	
<i>Hamamelis japonica</i> S. et Z.		풍년화
Rosaceae	장미 科	
<i>Spiraea prunifolia</i> for. <i>simpliciflora</i> Nakai		조팝나무
<i>Spiraea cantoniensis</i> ROUN		공조팝나무
<i>Stephanandra incisa</i> Zabel		국수나무
<i>Kerria japonica</i> (L.) DC.		황매화
<i>Kerria japonica</i> for. <i>plena</i> SCHNEID		죽단화
<i>Duchesnea chrysantha</i> (Zoll. et Morr.) Miq.		뱀딸기
<i>Fragaria ananassa</i> Duchesne		딸기
<i>Potentilla fragarioides</i> var. <i>major</i> Max.		양지꽃
<i>Potentilla freyniana</i> Bornm.		세잎양지꽃
<i>Potentilla matsumurae</i> WOF		좁양지꽃
<i>Potentilla chinensis</i> Ser.		딱지꽃
<i>Potentilla kleiniana</i> W. et AR.		가락지나물
<i>Geum aleppicum</i> Jacq.		큰뱀무
<i>Rubus buergeri</i> Miq.		겨울딸기
<i>Rubus crataegifolius</i> Bunge		산딸기
<i>Rubus longisepalus</i> var. <i>tozawai</i> T.Lee		거제딸기
<i>Rubus phoenicolasius</i> Max.		곰딸기
<i>Rubus hirstus</i> THUNB.		장딸기

<i>Rubus parvifolius</i> L.	명석딸기
<i>Rubus coreanus</i> Miq.	복분자딸기
<i>Rubus oldhamii</i> Miq.	줄딸기
<i>Rubus ribisoideus</i> Matsum.	섬딸기
<i>Sanguisorba officinalis</i> L.	오이풀
<i>Agrimonia pilosa</i> Ledeb.	깊신나물
<i>Rosa multiflora</i> Thunb.	찔레꽃
<i>Rosa maximowicziana</i> Regel	용가시나무
<i>Rosa chinensis</i> Jacq.	월계화
<i>Prunus salicina</i> Lindley	자두나무
<i>Prunus mume</i> S. et Z.	매실나무
<i>Prunus armeniaca</i> var. <i>ansu</i> Max.	살구나무
<i>Prunus persica</i> (L.) Batsch	복사나무
<i>Prunus yedoensis</i> Matsum	왕벚나무
<i>Prunus serrulata</i> var. <i>spontanea</i> WILS.	벚나무
<i>Prunus japonica</i> var. <i>nakaii</i> (Lev.) Rehder	이스라지
<i>Prunus tomentosa</i> Thunb.	앵도
<i>Raphiolepis umbellata</i> (Thunb.) Makin	다정큼나무
<i>Chaenomeles sinensis</i> Koehne	모과나무
<i>Chaenomeles lagenaria</i> (Loisel) Koidz.	명자꽃
<i>Pyracantha angustifolia</i> Schneid.	피라칸다
<i>Pyrus pyrifolia</i> (Burm.) Nakai	돌배나무
<i>Pourthiaea villosa</i> Decne.	윤노리나무
<i>Sorbus commixta</i> Hedl.	마가목
<i>Sorbus alnifolia</i> (S. et Z.) K. Koch.	팔배나무
<i>Sorbus alnifolia</i> var. <i>macrophylla</i> T. Lee	왕잎팔배
<i>Sorbus alnifolia</i> var. <i>oblongifolia</i> T. Lee	긴잎팔배나무

Leguminosae

콩 科

<i>Albizzia julibrissin</i> Durazzini	자귀나무
<i>Caesalpinia japonica</i> S. et Z.	실거리나무
<i>Cassia mimosoides</i> var. <i>nomame</i> Makino	차풀
<i>Sophora flavescens</i> Aiton	고삼

<i>Maackia amurensis</i> Rupr. et Max.	다릅나무
<i>Lespedeza thunbergii</i> var. <i>intermedia</i> (Nak.) T. Lee	풀싸리
<i>Lespedeza maximowiczii</i> Schneid.	조록싸리
<i>Lespedeza cyrtobotrya</i> Miq.	참싸리
<i>Lespedeza pilosa</i> (Thunb.) S. et Z.	괭이싸리
<i>Lespedeza virgata</i> (Thunb.) DC.	좁싸리
<i>Lespedeza tomentosa</i> S.	개싸리
<i>Lespedeza cuneata</i> G. Don	비수리
<i>Kummerowia striata</i> (Thunb.) Schindl.	매듭풀
<i>Desmodium oxyphyllum</i> DC.	도둑놈의갈고리
<i>Desmodium fallax</i> Schindl.	애기도둑놈의갈고리
<i>Aeschynomene indica</i> L.	자귀풀
<i>Vicia unijuga</i> A. Braun	나비나물
<i>Vicia angustipinnata</i> Nakai	가는갈퀴나물
<i>Lathyrus davidii</i> Hance	활랑나물
<i>Phaseolus nipponensis</i> Ohwi	새팥
<i>Dumasia truncata</i> S. et Z.	비진도콩
<i>Pueraria thunbergiana</i> Bentham	취
<i>Amphicarpaea edgeworthii</i> var. <i>trisperma</i> Ohwi	새콩
<i>Indigofera pseudo-tinctoria</i> Matsum.	낭아초
<i>Indigofera kirilowii</i> Max.	땅비싸리
<i>Wistaria floribunda</i> A.P. DC.	등
<i>Milletia Joponica</i> A. GRAY	애기등
<i>Robinia pseudo-acacia</i> L.	아까시나무
<i>Caragana sinica</i> (Buchoz) Rehder	골담초
<i>Amorpha fruticosa</i> L.	죽제비싸리
<i>Astragalus sinicus</i> L.	자운영
<i>Trifolium repens</i> L.	토끼풀
<i>Spartium junceum</i> L.	스팔티움

Geraniaceae

쥐손이풀 科

<i>Geranium krameri</i> Franchet et Savatier	선이질풀
<i>Geranium sibiricum</i> L.	쥐손이풀

<i>Geranium nepalense subsp. thunbergii</i> (S. et Z.) hara.		이질풀
Oxalidaceae	괘이밥 과	
<i>Oxalis corniculata</i> L.		괘이밥
Zygophyllaceae	남가새 과	
<i>Tribulus terrestris</i> L.		남가새
Rutaceae	운향 과	
<i>Zanthoxylum planispinum</i> S. et Z.		개산초
<i>Zanthoxylum piperitum</i> A.P. DC.		초피나무
<i>Zanthoxylum schinifolium</i> S. et Z.		산초나무
<i>Evodia daniellii</i> Hemsl.		쉬나무
<i>Poncirus trifoliata</i> Rafin.		탱자나무
<i>Citrus junos</i> Tanaka		유자나무
<i>Dictamnus dasycarpus</i> Turcz.		백선
Simaroubaceae	소태나무 과	
<i>Picrasma quassioides</i> (D. Don) Benn.		소태나무
<i>Ailanthus altissima</i> Swingle		가중나무
Meliaceae	멀구슬나무 과	
<i>Melia azedarach</i> var. <i>japonica</i> Makino		멀구슬나무
Polygalaceae	원지 과	
<i>Polygala japonica</i> Houtt		애기풀
Euphorbiaceae	대극 과	
<i>Daphniphyllum macropodum</i> Miq.		굴거리
<i>Mallotus japonicus</i> Muell-Arg.		예덕나무
<i>Securinega suffruticosa</i> Rehder		광대싸리
<i>Phyllanthus ussuriensis</i> Rupr. et Max.		여우주머니
<i>Acalypha australis</i> L.		깨풀
<i>Ricinus communis</i> L.		피마자

<i>Euphorbia humifusa</i> Willd.	땅빈대
<i>Euphorbia supina</i> Rafin.	애기땅빈대
<i>Euphorbia pekinensis</i> Rupr.	대극
<i>Euphorbia esula</i> L.	흰대극
<i>Euphorbia pulcherrima</i> Willd.	포인세티아

Anacardiaceae**웃나무 科**

<i>Rhus chinensis</i> Mill.	붉나무
<i>Rhus trichocarpa</i> Miq.	개웃나무
<i>Rhus sylvestris</i> S. et Z.	산검양웃나무

Aquifoliaceae**감탕나무 科**

<i>Ilex macropoda</i> Miq.	대팻집나무
<i>Ilex crenata</i> Thunb.	괭괭나무
<i>Ilex cornuta</i> Lindl.	호랑가시나무(묘아자나무)
<i>Ilex integra</i> Thunb.	감탕나무
<i>Ilex rotunda</i> Thunb.	먼나무

Celastraceae**노박덩굴 科**

<i>Euonymus japonica</i> Thunb.	사철나무
<i>Euonymus fortunei</i> var. <i>radicans</i> (S. et Miq.)Rehder	줄사철나무
<i>Euonymus alatus</i> (Thunb.) Sieb.	화살나무
<i>Euonymus alatus</i> for. <i>ciliato-dentatus</i> Hiyama	회잎나무
<i>Euonymus sieboldianus</i> Blume	참빛살나무
<i>Celastrus orbiculatus</i> Thunb.	노박덩굴
<i>Tripterygium regelii</i> Sprague et Takeda	미역줄나무

Staphyleaceae**고추나무 科**

<i>Staphylea bumalda</i> DC.	고추나무
<i>Euscaphis japonica</i> (Thunb.) Kanitz.	말오줌때

Aceraceae**단풍나무 科**

<i>Acer ginnala</i> Max.	신나무
<i>Acer mono</i> Max.	고로쇠나무

<i>Acer mono</i> var. <i>savatieri</i> Nakai	왕고로쇠
<i>Acer truncatum</i> Bunge	만주고로쇠
<i>Acer palmatum</i> Thunb.	단풍나무
<i>Acer pseudo-sieboldianum</i> (Pax.) Kom.	당단풍
<i>Acer negundo</i> L.	네군도단풍

Sapindaceae 무환자나무 科

<i>Koelreuteria paniculata</i> Laxm.	모감주나무
--------------------------------------	-------

Sabiaceae 나도밤나무 科

<i>Meliosma myriantha</i> S. et Z.	나도밤나무
<i>Meliosma oldhamii</i> Max.	합다리나무

Balsaminaceae 봉선화 科

<i>Impatiens textori</i> Miq.	물봉선
<i>Impatiens balsamina</i> L.	봉선화

Rhamnaceae 갈매나무 科

<i>Zizyphus jujuba</i> Miller	뽕대추
<i>Hovenia dulcis</i> Thunb.	헛개나무
<i>Rhamnus davurica</i> Pall.	갈매나무
<i>Rhamnus koraiensis</i> Schneid.	털갈매나무
<i>Rhamnus yoshinoi</i> Makino	짙자래나무

Vitaceae 포도 科

<i>Vitis amurensis</i> Rupr.	왕머루
<i>Vitis thunbergii</i> var. <i>sinuata</i> (Regel) Rehder	까마귀머루
<i>Vitis flexuosa</i> Thunb.	새머루
<i>Ampelopsis heterophylla</i> for. <i>citrulloides</i> Rehder	가새잎개머루
<i>Ampelopsis heterophylla</i> S. et Z.	개머루
<i>Parthenocissus tricuspidata</i> (S. et Z.) Planchon	담쟁이덩굴
<i>Cayratia japonica</i> (Thunb.) Gagnep.	거지덩굴

Eleocarpaceae 담팔수 科

<i>Elaeocarpus sylvestris</i> var. <i>ellipticus</i> (Thunb.) Hara		담팔수
Tiliaceae	피나무 科	
<i>Tilia amurensis</i> Rupr.		피나무 (달피)
Malvaceae	아욱 科	
<i>Abutilon avicennae</i> Gaertn.		어저귀
<i>Hibiscus syriacus</i> L.		무궁화
<i>Hibiscus mutabilis</i> L.		부용
Sterculiaceae	벽오동 科	
<i>Firmiana simplex</i> W.F.Wight		벽오동
<i>Corchoropsis psilocarpa</i> Harms et Loesn.		까치깨
<i>Corchoropsis tomentosa</i> (Thunb.) Makino		수까치깨
Actinidiaceae	다래나무 科	
<i>Actinidia polygama</i> (S. et Z.)		개다래
<i>Actinidia arguta</i> Planchon		다래
Theaceae	차나무 科	
<i>Stewartia koreana</i> Nakai		노각나무
<i>Ternstroemia japonica</i> Thunb.		후피향나무
<i>Thea sinensis</i> L.		차나무
<i>Camellia japonica</i> L.		동백나무
<i>Eurya japonica</i> Thunb.		사스레피나무
<i>Eurya emarginata</i> (Thunb.) Max.		우묵사스레피
Hypericaceae	물레나물 科	
<i>Triadenum japonicum</i> (Bl.) Makino		물고추나물
<i>Hypericum ascyron</i> L.		물레나물
<i>Hypericum laxum</i> (Bl.) Koidz.		좁고추나물
Violaceae	제비꽃 科	
<i>Viola dissecta</i> var. <i>chaerophylloides</i> (Regel) Makino		남산제비꽃

<i>Viola dissecta</i> var. <i>takahashii</i> (Mak.)T. Lee		단풍제비꽃
<i>Viola mandshurica</i> W. Becker		제비꽃
<i>Viola variegata</i> Fischer		알록제비꽃
<i>Viola acuminata</i> Ledebour		줄방제비꽃
<i>Viola orientalis</i> W.Becker		노랑제비꽃
	Tamaricaceae	위성류 科
<i>Tamarix chinensis</i> Lour.		위성류
	Opuntiaceae	선인장 科
<i>Opuntia ficus-indica</i> var. <i>saboten</i> Makino		선인장
	Thymeleaceae	팔꽃나무 科
<i>Daphne kiusiana</i> Miquel		백서향
<i>Daphne odora</i> Thunb.		서향
<i>Edgeworthia paptrifera</i> S. et Z.		삼지닥나무
	Elaeagnaceae	보리수나무 科
<i>Elaeagnus umbellata</i> Thunb.		보리수나무
<i>Elaeagnus maritima</i> Koidz.		녹보리뚝나무
<i>Elaeagnus macrophylla</i> Thunb.		보리밥나무
	Lythraceae	부처꽃 科
<i>Lagerstroemia indica</i> L.		배롱나무
<i>Lythrum anceps</i> (Koehne) Makino		부처꽃
	Punicaceae	석류 科
<i>Punica granatum</i> L.		석류
	Alangiaceae	박쥐나무 科
<i>Alangium platanifolium</i> (S. et Z.) Harms		단풍박쥐나무
	Hydrocaryaceae	마름 科
<i>Trapa japonica</i> Flerov.		마름

Onagraceae	바늘꽃 科	
<i>Circaea mollis</i> S. et Z.		털이슬
<i>Fuchsia hybrida</i> Voss.		후크시아
<i>Oenothera odorata</i> Jacq.		달맞이꽃
Halorrhagaceae	개미담 科	
<i>Halorrhagis micrantha</i> R. Br.		개미담
<i>Myriophyllum verticillatum</i> L.		물수세미
Araliaceae	두릅나무 科	
<i>Hedera rhombea</i> Bea		송악
<i>Dendropanax morbifera</i> Lev.		황칠나무
<i>Fatsia japonica</i> Decne. et Planch.		팔손이
<i>Kalopanax pictus</i> (Thunb.) Nakai		음나무
<i>Acanthopanax sessiliflorus</i> (Rupr. et Max.) Seem.		오갈피
<i>Aralia elata</i> Seem.		두릅나무
<i>Aralia continentalis</i> Kitagawa		독활
Umbelliferae	산형 科	
<i>Hydrocotyle maritima</i> Honda		선피막이
<i>Bupleurum falcatum</i> L.		시호
<i>Torilis japonica</i> (Houtt.) DC.		사상자
<i>Oenanthe javanica</i> (Bl.) DC.		미나리
<i>Pimpinella brachycarpa</i> (Kom.) Nakai		참나물
<i>Aegopodium alpestre</i> Ledeb.		왜방풍
<i>Sium suave</i> Walter		개밭나물
<i>Glehnia littoralis</i> Fr. Schim.		갯방풍
<i>Angelica decursiva</i> (Miq.) Fr. et Sav.		바디나물
<i>Angelica gigas</i> Nakai		참당귀
<i>Angelica anomala</i> Lallemant		개구릿대
<i>Angelica tenuissima</i> Nakai		고분
<i>Peucedanum japonicum</i> Thunberg		갯기름나물

Cornaceae	층층나무 科	
<i>Cornus kousa</i> Buerg.		산딸나무
<i>Cornus controversa</i> Hemsley		층층나무
<i>Cornus walteri</i> Wanger.		말채나무
<i>Cornus officinalis</i> S. et Z.		산수유
Metachlamydeae	합판화 群	
Pyrolaceae	노루발 科	
<i>Pyrola japonica</i> Klenze		노루발
<i>Chimaphila japonica</i> Miq.		매화노루발
Ericaceae	진달래 科	
<i>Rhododendron mucronulatum</i> Turcz.		진달래
<i>Rhododendron yedoense</i> var. <i>poukhanense</i> (Lev.) Nakai		산철쭉
<i>Rhododendron schlippenbachii</i> Max.		철쭉꽃
<i>Rhododendron lateritium</i> Planch		영산홍
Myrsinaceae	자금우 科	
<i>Ardisia japonica</i> Bl.		자금우
Primulaceae	앵초 科	
<i>Lysimachia clethroides</i> Duby		큰까치수염
<i>Lysimachia barystachys</i> Bunge		까치수염
<i>Androsace umbellata</i> (Lour.) Merr.		봄맞이꽃
<i>Primula sieboldi</i> E. MORE		앵초
Plumbaginaceae	갯질경이 科	
<i>Limonium tetragonum</i> (Thunb.) A. A. Bullock		갯질경
Ebenaceae	감나무 科	
<i>Diospyros lotus</i> L.		고욤나무
<i>Diospyros kaki</i> Thunb.		감나무

Symplocaceae	노린재나무 科	
<i>Symplocos chinensis</i> for. <i>pilosa</i> (Nak.) Ohwi		노린재나무
<i>Symplocos paniculata</i> Miq.		검노린재
Styracaceae	매죽나무 科	
<i>Styrax obassia</i> S. et Z.		쪽동백나무
<i>Styrax japonica</i> S. et Z.		매죽나무
Oleaceae	물푸레나무 科	
<i>Fraxinus rhynchophylla</i> Hance		물푸레나무
<i>Fraxinus sieboldiana</i> Blume		쇠물푸레
<i>Fraxinus pennsylvanica</i> Marsh.		붉은물푸레
<i>Chionanthus retusa</i> Lindl. et Paxton		이팝나무
<i>Ligustrum japonicum</i> Thunb.		광나무
<i>Ligustrum lucidum</i> Ait.		제주광나무
<i>Ligustrum ovalifolium</i> Hasskarl		왕취뽕나무
<i>Ligustrum obtusifolium</i> S. et Z.		취뽕나무
<i>Osmanthus fragrans</i> Loureiro		목서
<i>Osmanthus heterophylla</i> P. S. Green		구골나무
<i>Forsythia koreana</i> Nakai		개나리
<i>Syringa reticulata</i> var. <i>mandshurica</i> (Max.) Hara		개회나무
<i>Syringa velutina</i> var. <i>kamibayashii</i> (Nak.) T. Lee		정향나무
Gentianaceae	용담 科	
<i>Halenia corniculata</i> (L.) Cornaz		닷꽃
<i>Swertia tetrapetala</i> Pall.		네귀쓴풀
<i>Gentiana squarrosa</i> Ledeb.		구슬봉이
<i>Gentiana scabra</i> var. <i>buergeri</i> (Miquel) Max.		용담
Apocynaceae	협죽도 科	
<i>Trachelospermum asiaticum</i> var. <i>intermedium</i> Nakai		마삭줄
<i>Nerium indicum</i> Mill.		협죽도
Asclepiadaceae	박주가리 科	

<i>Metaplexis japonica</i> (Thunb.) Makino	박주가리
<i>Cynanchum wilfordii</i> (Max.) Hemsl.	큰조롱
<i>Cynanchum paniculatum</i> Kitagawa	산해박
<i>Cynanchum ascyrifolium</i> (Fr. et Sav.) Matsumura	민백미꽃

Convolvulaceae 메꽃 科

<i>Pharbitis nil</i> Choisy	나팔꽃
<i>Calystegia soldanella</i> Roem. et Schult.	갯메꽃
<i>Calystegia japonica</i> (Thunb.) Choisy	메꽃
<i>Cuscuta japonica</i> Choisy	새삼
<i>Cuscuta australis</i> R. Br.	실새삼

Borraginaceae 지치 科

<i>Lithospermum erythrorhizon</i> S. et Z.	지치
<i>Trigonotis peduncularis</i> Benth	꽃마리

Verbenaceae 마편초 科

<i>Verbena officinalis</i> L.	마편초
<i>Callicarpa dichotoma</i> Raeuschel	좀작살나무
<i>Callicarpa japonica</i> Thunb.	작살나무
<i>Callicarpa japonica</i> var. <i>luxurians</i> Rehder	왕작살
<i>Callicarpa japonica</i> var. <i>taquetii</i> Nakai	송금나무
<i>Clerodendron trichotomum</i> Thunb.	누리장나무
<i>Vitex rotundifolia</i> L. fi.	순비기나무
<i>Caryopteris divaricata</i> (S. et Z.) Max.	누린내풀
<i>Caryopteris incana</i> (Thunb.) Miq.	층꽃나무

Labiatae 꿀풀 科

<i>Ajuga multiflora</i> Bunge	조개나물
<i>Scutellaria indica</i> L.	골무꽃
<i>Agastache rugosa</i> (Fischer et Meyer) O.Kuntze	배초향
<i>Nepeta cataria</i> L.	개박하
<i>Prunella vulgaris</i> var. <i>lilacina</i> Nakai	꿀풀

<i>Leonurus sibiricus</i> L.	익모초
<i>Lamium amplexicaule</i> L.	광대나물
<i>Lamium album</i> var. <i>barbatum</i> (S. et z.) Fr. et Sav.	광대수염
<i>Salvia plebeia</i> R. Br.	배암차즈기
<i>Mosla punctulata</i> (Gmel.) Nakai	들깨풀
<i>Mosla dianthera</i> Max.	쥐깨풀
<i>Clinopodium chinense</i> var. <i>parviflorum</i> (Kudo) Hara	층층이꽃
<i>Perilla frutescens</i> var. <i>acuta</i> Kudo	소엽
<i>Mentha arvensis</i> var. <i>piperascens</i> Malinv.	박하
<i>Elsholtzia ciliata</i> Hylander	향유
<i>Elsholtzia splendens</i> Nakai	꽃향유
<i>Isodon japonicus</i> (Burmam) Hara	방아풀
<i>Isodon inflexus</i> (Thunb.) Kudo	산박하
<i>Isodon excisus</i> (Max.) Kudo	오리방풀
Solanaceae	가지 科
<i>Lycium chinense</i> Miller	구기자나무
<i>Solanum lyratum</i> Thunb.	배풍등
<i>Solanum nigrum</i> L.	까마중
Scrophulariaceae	현삼 科
<i>Paulownia tomentosa</i> (Thunb.) Steud.	참오동
<i>Paulownia coreana</i> Uyeki	오동
<i>Scrophularia koraiensis</i> Nakai	토현삼
<i>Mazus japonicus</i> (Thunb.) Kuntze	주름잎
<i>Lindernia procumbens</i> Philcox	밭뚝외풀
<i>Lindernia micrantha</i> D. don	논뚝외풀
<i>Veronica rotunda</i> var. <i>subintegra</i> (Nak.) Yamazaki	산꼬리풀
<i>Veronica peregrina</i> L.	문모초
<i>Veronica polita</i> var. <i>lilacina</i> (Hara) Yamazaki	개불알풀
<i>Siphonostegia chinensis</i> Benth.	절국대
<i>Melampyrum roseum</i> Max.	꽃머느리밥풀
<i>Phtheirospermum japonicum</i> (Thunb.) Kanitz	나도송이풀

<i>Pedicularis resupinata</i> L.		송이풀
	Bignoniaceae	능소화 科
<i>Campsis grandiflora</i> (Thunb.) K. Schumann		능소화
	Acanthaceae	귀꼬리망초 科
<i>Justicia procumbens</i> L.		귀꼬리망초
	Phrymaceae	파리풀 科
<i>Phryma leptostachya</i> var. <i>asiatica</i> Hara		파리풀
	Plantaginaceae	질경이 科
<i>Plantago asiatica</i> L.		질경이
<i>Plantago major</i> for. <i>yezomaritima</i> Ohwi		갯질경이
<i>Plantago major</i> var. <i>japonica</i> (Fr. et Sav.) Miyabe		왕질경이
	Rubiaceae	꼭두서니 科
<i>Gardenia jasminoides</i> for. <i>grandiflora</i> Makino		치자나무
<i>Gardenia jasminoides</i> var. <i>radicans</i> Makino		꽃치자
<i>Paederia scandens</i> (Lour.) Merr.		계요등
<i>Rubia akane</i> Nakai		꼭두서니
<i>Galium verum</i> var. <i>asiaticum</i> Nakai		솔나물
<i>Galium trachyspermum</i> A. Gray		네잎갈퀴
	Caprifoliaceae	인동 科
<i>Sambucus williamsii</i> var. <i>coreana</i> Nakai		딱총나무
<i>Sambucus latipinna</i> Nakai		넓은잎딱총나무
<i>Viburnum awabuki</i> K. Koch		아왜나무
<i>Viburnum erosum</i> Thunb.		덜꿩나무
<i>Weigela subsessilis</i> L. H. Bailey		병꽃나무
<i>Lonicera japonica</i> Thunb.		인동
	Valerianaceae	마타리 科
<i>Patrinia scabiosaefolia</i> Fisch.		마타리
<i>Patrinia villosa</i> (Thunb.) Jussieu		뚝갈

<i>Valeriana fauriei</i> Briq.		귀오줌풀
Cucurbitaceae	박 과	
<i>Melothria japonica</i> Max.		새박
<i>Trichosanthes kirilowii</i> Max.		하늘타리
Campanulaceae	초롱꽃 과	
<i>Adenophora triphylla</i> var. <i>japonica</i> Hara		잔대
<i>Codonopsis lanceolata</i> (S. et Z.) Trautv.		더덕
<i>Platycodon grandiflorum</i> (Jacq.) A. DC.		도라지
Lobeliaceae	숫잔대 과	
<i>Lobelia chinensis</i> Lour.		수염가래꽃
Compositae	국화 과	
<i>Gnaphalium affine</i> D. Don		떡쭈
<i>Gnaphalium hypoleucum</i> DC.		금떡쭈
<i>Gnaphalium japonicum</i> Thunb.		풀솜나물
<i>Inula britannica</i> var. <i>chinensis</i> Regel		금불초
<i>Inula britannica</i> var. <i>linariaefolia</i> Regel		가는금불초
<i>Helianthus tuberosus</i> L.		뽕단지
<i>Helianthus annuus</i> L.		해바라기
<i>Carpesium macrocephalum</i> Fr. et Sav.		여우오줌
<i>Carpesium divaricatum</i> S. et Z.		긴담배풀
<i>Carpesium cernuum</i> L.		좁담배풀
<i>Leibnitzia anandria</i> (L.) Nakai		솜나물
<i>Ainsliaea apiculata</i> Sch.-Bip.		좁딱취
<i>Ainsliaea acerifolia</i> Sch.-Bip.		단풍취
<i>Ambrosia artemisiifolia</i> var. <i>elatior</i> Descourtils		돼지풀
<i>Xanthium strumarium</i> L.		도꼬마리
<i>Eupatorium lindleyanum</i> DC.		골등골나물
<i>Eupatorium chinense</i> var. <i>simplicifolium</i> Kitamura		등골나물
<i>Solidago virga-aurea</i> var. <i>asiatica</i> Nakai		미역취
<i>Solidago serotina</i> Ait.		미국미역취

<i>Aster yomena</i> Makino	쑥부쟁이
<i>Aster fastigiatus</i> Fischer	옹긋나물
<i>Aster scaber</i> Thunb.	참취
<i>Aster spathulifolius</i> Max.	해국
<i>Erigeron acre</i> L.	민망초
<i>Erigeron annuus</i> (L.) Pers.	개망초
<i>Erigeron bonariensis</i> L.	실망초
<i>Erigeron canadensis</i> L.	망초
<i>Callistephus chinensis</i> (L.) Nnees	과꽃
<i>Rhynchospermum verticillatum</i> Reinw.	수분취
<i>Petasites japonicus</i> Max.	머위
<i>Farfugium japonicum</i> Kitamura	털머위
<i>Ligularia taquetii</i> Nakai	갯취
<i>Ligularia fischeri</i> (Ledeb.) Turcz.	곰취
<i>Senecio vulgaris</i> L.	개쑥갓
<i>Syneilesis palmata</i> (Thunb.) Max.	우산나물
<i>Achillea sibirica</i> Ledeb.	톱풀
<i>Chrysanthemum zawadskii</i> Herbach	산구절초
<i>Chrysanthemum zawadskii</i> var. <i>latilobum</i> Kitamura	구절초
<i>Chrysanthemum boreale</i> Makino	산국
<i>Chrysanthemum indicum</i> L.	감국
<i>Artemisia capillaris</i> Thunb.	사철쑥
<i>Artemisia japonica</i> Thunb.	제비쑥
<i>Artemisia keiskeana</i> Miq.	맑은대쑥
<i>Artemisia iwayomogi</i> Kitamura	더위지기
<i>Artemisia montana</i> Pamp.	산쑥
<i>Artemisia princeps</i> var. <i>orientalis</i> (Pamp.) Hara	쑥
<i>Siegesbeckia glabrescens</i> Makino	진득찰
<i>Siegesbeckia pubescens</i> Makino	털진득찰
<i>Eclipta prostrata</i> L.	한련초
<i>Rudbeckia bicolor</i> Nutt.	원추천인국
<i>Bidens frondosa</i> L.	미국가막사리
<i>Bidens tripartita</i> L.	가막사리

<i>Bidens parviflora</i> Willd.	까치발
<i>Bidens bipinnata</i> L.	도깨비바늘
<i>Atractylodes japonica</i> Koidz.	삼주
<i>Cirsium japonicum</i> var. <i>ussuriense</i> Kitamura	영경귀
<i>Cirsium japonicum</i> var. <i>spinosissimum</i> T. et M.	가시영경귀
<i>Cirsium chanroenicum</i> Nakai	정영영경귀
<i>Cirsium sipponicum</i> (Max.) Makino	물영경귀
<i>Hemistepta lyrata</i> Bunge	지칭개
<i>Saussurea gracilis</i> Max.	은분취
<i>Rhapontica uniflora</i> DC.	뼈꼭채
<i>Cephalonoplos segetum</i> (Bunge) Kitamura	조뱅이
<i>Coreopsis tinctoria</i> Nutt.	기생초
<i>O. Dahlia pinnata</i> Cav.	다알리아
<i>Cosmos bipinnatus</i> Cav.	코스모스
<i>Scorzonera albicaulis</i> Bunge	쇠채
<i>Taraxacum mongolicum</i> H. Mazz.	민들레
<i>Taraxacum officinale</i> Weber	서양민들레
<i>Ixeris dentata</i> (Thunb.) Nakai	썸바귀
<i>Ixeris stronifera</i> A. GRAY	좁썸바귀
<i>Lactuca indica</i> var. <i>laciniata</i> Hara	왕고들빼기
<i>Lactuca raddeana</i> Max.	산썸바귀
<i>Sonchus brachyotus</i> A.P. DC.	사데풀
<i>Sonchus oleraceus</i> L.	방가지뚱
<i>Youngia japonica</i> (L.) DC.	뽕리맹이
<i>Sonchus asper</i> (L.) Hill	큰방가지뚱
<i>Youngia denticulata</i> Kitamura	이고들빼기
<i>Youngia sonchifolia</i> Max.	고들빼기
<i>Galinsoga ciliata</i> (Raf.) Blake	털벌꽃아재비

註：所産植物 目錄은 李昌福의 大韓植物圖鑑(1989)을 기준으로 整理하였다.

제5장 동 물(動物)

제1절 각종 동물

거제는 경남 진해만 전면에 있는 섬 면적 399.84km², 동경 128° 27' ~ 128° 46', 북위 34° 40' ~ 35° 03' 에 위치하고 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북쪽으로 진해시·마산시·고성군, 서쪽으로 통영시를 마주하고, 남·동쪽으로 남해에 면한다. 1971년 4월 거제대교의 개통과 더불어 육송화됨으로써 부산, 마산, 진주, 통영 등지가 일일생활권역으로 축소되어 지역발전을 촉진하게 되었고, 입지조건이 좋은 신현읍 장평리 소재 삼성조선과 아주동의 옥포조선단지는 동양굴지의 규모를 자랑하며, 조선입국의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 제2의 섬인 거제도와 주변의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지며, 남동임해공업지역 개발과정에서 대규모 조선소가 입지하여 급격히 발전하였다.

주위에는 크고 작은 11개의 유인도와 51개의 무인도가 있어, 각종 어류의 서식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의 해수는 전국에서 제일 맑고 깨끗하여 청정해역으로 지정·보존되고 있다. 북서부에는 원예농업이 발달하였고, 남부에서는 밭작물, 동남부에서는 양식업이 발달하여 주민 소득원의 대종을 이룬다. 굴곡이 심한 동남부의 해안선은 절경을 이루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사철 내내 관광객이 찾아든다.

지질은 중생대 경상계로 이루어져 있고, 지형은 도서지역으로 평야가 좁고 산지가 많아 험준하다. 계룡산(566m)·노자산(565m)·가리산(580m)·앵산(507m) 등 해발고도 500m이상인 산이 많고, 경사가 급하여 농경지가 부족하나, 바다로 둘러싸여 수산물이 풍부하다.

하천은 규모가 작으나, 급사면의 산지를 따라 흘러 내리고 곳곳에 저수지를 만들어 농업용수를 저장한다. 해안선은 매우 복잡하여 옥포·거제·울포·가배·저구리·다대·송진·간곡만 등 수많은 만입과 곳이 발달한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을 이룬다. 해안지형은 거센 파랑의 영향으로 해식애·파식대·해식동이 발달하였고, 곳곳의 만입에는 학동·구조라·지세포 해수욕장 등이 발달하였다. 특히, 이 지역의 해양은 맑고 깨끗하여 청정해역으로 지정·보존되고 있으며, 학동동백림, 팔색조도래지, 아비도래지 등의 천연기념물, 또한 해금강, 몽돌밭, 구조라, 지세포 등의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

는 자연환경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기후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비교적 온화한 편이며, 연평균기온 14.5℃, 연평균강수량 1,469.9mm로 다우지역에 속한다. 최한월 평균기온은 3.5℃, 최난월 평균기온은 25.1℃로 연교차 21.6℃의 해양성 기후이다. 식생은 아열대성 기후지역에 분포하는 동백나무·팔손이나무·소철·종려나무 등이 자생한다. (동아대백과사전)

거제도 연안의 아비도래지(천연기념물 제227호)와 거제 학동의 동백림 및 팔색조번식지(천연기념물 제233호), 장승포 덕포리 이팝나무(지방기념물 제95호), 거제 외간리 동백나무(지방기념물 제111호), 거제 한내리 모감주나무군락(지방기념물 제112호) 등이 있으며, 온난다습하며 기온의 연교차가 적어 다양한 동·식물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거제도 일대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양정채석산 채석허가 연장, 양식장 오염, 해수욕장 방문객 증가, 유일호 기름 유출사고(1995년), 거제 핵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 장목관광단지 개발계획, 하천 직강 사업계획, 장목관광단지내 송진포골프장 건설, 무분별한 매립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진행되거나, 계획 중이어서 이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 포유류

우리나라의 포유류는 제주도와 울릉도를 포함하여, 총 7목 25과 63속 95종(109종 및 아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포유류는 높은 이동성과 인간을 피하려는 습성때문에 직접 관찰이 쉽지 않아, 짧은 조사기간 내에 수집된 자료만으로 이들 육상동물의 전체 서식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먹이추적, 발자국, 배설물, 체모, 굴들을 직접 관찰한 것을 토대로 그 분포여부를 확인하고, 더불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한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기 축적된 자료와 문헌을 참조하여야 한다.

호랑이, 표범, 여우, 늑대 등은 한국전쟁 이후 자취를 감추었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국가의 법적인 보호상태에 있는 산양, 사향노루, 곰, 하늘다람쥐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거나 점차 멸종되어 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 수달과 같은 동물이 살아가는 데는 풍부한 먹이와 맑은 물이 필요하지만, 개발 및 그에 따른 수계의 오염으로 먹이와 서식처를 잃은 수달의 경우 그 자취를 감추고 있다.

환경처에서 1987년 및 1993년 시행한 자연생태계 전국조사 자료 및 기타 자료(경남도지, 통영시지)에 의하면, 거제도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포유류 및 과거 서식했던 종류는 총 10과 67종이다. 그러나 다람쥐과의 청설모, 쥐과의 설치류 및 박쥐류

가 다수 출현하는 종외에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1993년 환경부 자연생태계 지역정밀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거제도지역에서 포유류의 서식밀도가 비교적 높다고 판단되는 곳은 다음과 같다.

대금산 일대의 외포리, 제석산 명동 등지에서 청설모, 족제비가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대금산 일대에서 고라니 및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Lutra lutra*)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수달의 경우, 연초담 내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약 4~5년전 까지만 해도 많은 개체수를 목격할 수 있었으나, 현재에는 겨우 1~2 가족만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나마 그중 가장 큰 개체는 이미 노령화된 개체로 판단되어 수달의 개체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감소하여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수달 개체수 감소의 주 원인으로 밀엽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산방산의 경우, 역시 청설모가 우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본 지역의 도로 상에서 차량에 의하여 사망한 청설모를 종종 발견할 수 있었는데, 본 지역의 도로가 해안선을 따라 나 있으므로 이러한 도로를 건널 수 밖에 없던 동물들이 도로상에서 종종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집박쥐는 하둔리 부근에서 비행하는 모습이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다.

거제만 내측에서 거제도 중심부로 향하는 지역인 계룡산 남서부 일대는 비교적 산세도 깊어지고 있으며, 하천도 많은 지류를 만들면서 형성되어 있다. 특히 홍골, 사슴골 등지에는 비교적 넓은 농경지가 이어지다 갑자기 산세가 높아지는 지세를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는 종종 고라니, 멧돼지의 출현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구천계곡, 망골을 끼고 있는 북병산은 산세가 의외로 험하여 인간의 출입이 드문 지역이며, 삼림도 양호한 보존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멧돼지, 고라니 등의 대형 포유류가 아직 서식하고 있었으며, 청설모, 족제비 등의 소형 포유류도 쉽게 관찰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거제도지역 일대에서는 멧토끼가 서식하지 않는다는 과거 조사자들의 보고가 있어 왔으나, 1993년 환경부 조사에서 멧토끼의 배설물이 다수 확인되어 서식이 확인되었다.

노자산 일대에선 다양한 동물상이 조사되고 있었는데, 활엽, 침엽수림이 혼재되어 있는 환경으로 인해 멧돼지, 고라니, 족제비 등이 서식하고 있었고, 청설모는 많은 개체수가 목격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망산(한산도)는 거제도 남서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빈약한 하천의 수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포유류상은 기대할 수 없었다. 대형 동물종의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고, 족제비의 출현을 보고하였으며, 또한 거제도지역과 마찬가지로 다람쥐가 서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청설모 역시 서식하지 않으며, 수년전 다람쥐 약 30개체가 방사된 적이 있었

는데, 현재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들고양이의 먹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가덕도지역에서는 족제비, 멧토끼, 두더지, 등줄쥐 등의 포유류가 조사되었고, 멧돼지, 너구리 등의 주요 육상동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거제도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포유류 중, 주요 종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1) 멧돼지(*Sus scorfa*)

생태적 특성으로는 깊은 산 특히, 활엽수림이 우거진 곳에서 서식하고 본래는 초식동물로서 나무뿌리 등을 먹지만, 먹이가 부족하면 토끼, 들쥐 등을 공격하기도 한다. 날카로운 큰 이(太齒)를 가지고 있어 질긴 나무뿌리를 자르는 데도 쓰이지만, 싸울 때는 큰 무기로 쓰인다. 잠자리는 일정하지 않고, 수목이 우거진 곳이나 잡초가 무성한 곳을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종종 민가까지 내려와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는 주민의 증언을 쉽게 들을 수 있으며, 최근 멧돼지의 사냥이 줄어들면서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노루(*Capreolus pygargus*)

노루 속은 주로 산림지대에 서식하며, 우리나라 주요 산림지역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으며, 본 거제도 현지 조사시에도 주민들에 의하면, 동절기에 먹이 부족으로 간혹 인근의 인가나 농경지에까지 종종 출현한다고 한다. 그러나 거제도내 개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고라니(*Hydropotes inermis*)

노루의 어린 새끼와 구분하기는 힘이 드나, 등은 담적갈색, 배와 턱 밑은 흰색이다. 특히, 뒷쪽 송곳니가 길어 입 밖으로 나와 있으며, 꼬리가 흑모양으로 짧다. 낮에도 활동하며, 나무의 잎사귀, 풀의 어린 싹 등을 주식으로 한다. 과거 수렵 등의 이유로 노루와 함께 그 개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수달(*Lutra lutra*)

수달은 세계적으로도 보호가치가 있어, IUCN(세계야생동물보호연맹)에서도 주지하

고 있는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82년 이래 천연기념물(330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분류된 총 13종 중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수달(Eurasian otter)은 *Lutra lutra* 1종으로 알려져 있다. 바위 구멍이나 나무의 뿌리속에 살며, 조심성이 많은 야행성 동물이므로 낮에는 보금자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밤이면 먹이를 찾아 나선다. 해안, 계곡, 하천 등에 출몰하며, 주로 물속의 어류나 패류, 양서류 등을 먹이로 하고 설치류 및 여러가지 소형 동물도 포식한다.

타 동물과는 다른 특이한 냄새를 지닌 배설물과 형태, 그리고 발자국으로서 본 종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활동시에는 주로 수생생활을 하며, 그 행동권은 의외로 넓은 지역에 따라 수십 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개의 보금자리를 불규칙적으로 옮겨 다닐 수 있으며, 조심성이 많아 외계의 간섭에 매우 민감하다.

거제도에 있어서는 오수, 울포와 같은 거제만 해안지역은 물론, 남부면 그리고 장승포, 지세포 등지의 해안방면에도 수달의 흔적이 넓게 발견되고 있다. 즉, 수달은 거제도의 해안 및 주변 소규모 섬들에 서식하고 있다. 거제도 주변 해안이 양식업이 성행하여 어류는 물론, 패류 등의 먹이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특별한 수환경의 오염원이 없는 청정한 해역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수달에게는 비교적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오소리(*Meles meles*)

몸의 배쪽은 갈색이며, 털끝은 회백색을 띠고 있으며, 4지는 굵고 발톱은 길며 날카롭다. 야행성이며, 잡식성이고 과실, 종자, 곤충, 뱀, 쥐, 토끼 등을 잡아 먹으며, 살모사와 같은 독사도 포식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한 가지 잘 알려진 독특한 특성은 위급한 경우를 당하거나 심한 쇼크를 당하면 죽는 시늉을 하고 있다가, 기회를 보아 역습을 하거나 도망을 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거제도에도 아직 서식하고 있으며, 야산의 외진 곳에 굴을 파고 생활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밀렵으로 희생이 많이 되고 있는 종이므로 최근 급속히 사라져 가고 있는 종의 하나이다. 거제도에서는 의외로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종이다.

6) 대륙족제비(*Mustela sibirica*)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어 흔히, 볼 수 있는 소형 포유류로서 인가 가까운 농작물, 경작지의 밭둑 또는 냇가의 큰 돌밑같은 곳에 구멍을 파고 서식한다. 개구리, 집쥐,

들쥐 등을 잡아 먹어, 야서구제(野鼠驅除)의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다. 거제도지역에서는 본 종이 비교적 넓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청설모(*Sciurus vulgaris*)

본 종은 우리나라의 특산 아종으로서 잣나무, 가래나무, 가문비나무, 상수리나무의 종자, 밤 등의 과실, 나무잎 등을 잘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동절기에는 월동하기 때문에 도토리, 밤 등의 열매를 바위구멍이나 땅속에 저장해 두는 습성이 있다. 주로 나무 줄기나 가지사이에 보금자리를 만들며, 까치의 보금자리와 흡사하나, 크기가 무척 작다.

또한, 그 보금자리는 나무의 10~15m정도의 높이에 만들며, 16m이상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본 종은 우리나라 전역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제도 내에서는 매우 쉽게 발견된다.

8) 두더지(*Mogera wogura*)

본 종의 먹이로는 땅속의 번데기, 지렁이 및 곤충 등을 잡아 먹으며, 땅속을 파고 다니는 동물로서 두더지가 지나간 곳은 지표면에 솟아오른 흙을 볼 수가 있다. 본 종의 출현은 비교적 낮은 지대의 천수답 주변의 독 가에서 쉽게 확인되었다.

새끼는 5월 하순~6월 상순에 낳으며, 1년에 1회 분만하고 새끼는 2~4마리로 알려져 있다. 시력은 쇠퇴되었으나, 반면에 후각, 촉각, 청각이 매우 발달해 있으며, 대식가로써 자기 체중과 거의 같은 양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제 전역의 천수답이나 저지대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등줄쥐(*Apodemus agrarius*)

본 종은 배면의 머리위로부터 꼬리의 기부까지 검은 줄이 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서식장소는 나무 밑이나 농경지, 초원, 산밭, 산중턱, 산정상 등 과히 습하지 않은 지역이면 어디나 서식이 가능한 동물이다. 굴을 파고 그 말단부에 보금자리(nest)를 만드는데, 지상 개구부에서 nest까지의 총연장이 2m가 넘기도 한다.

10) 집쥐(*Rattus norvegicus*)

몸집이 크고 강하다. 집 주위나 가옥내 식량창고, 그리고 부엌 등지에서 주로 굴을

제1편 자연

파고 서식한다. 야외에서는 그 서식밀도가 낮으며, 식성은 잡식성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흔히 서식하고 있는 종이다.

11) 관박쥐(*Rhinolophus ferrumequinum*)

동굴 내에서 주로 생활하며, 해질무렵부터 새벽까지 먹이(곤충류)를 찾아 동굴 밖으로 날아 다니는데, 가로등의 불빛에 모여드는 곤충류를 잡아 먹기위해 비행하는 본 종을 종종 관찰할 수 있다. 우리나라 박쥐류 중, 우점을 나타내고 있는 종이며, 식충성이고 타종과는 달리 번식기가 되면 생식기 주위에 1쌍의 부유두가 생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2) 집박쥐(*Pipistrelus javanicus*)

저녁무렵 폐가옥이나 인가 주변에서 관찰 할 수 있으며, 여름밤 주택지 주변에서 날아 다니며, 곤충을 잡아 먹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박쥐류보다 일찍 동면에서 깨어나며, 서식지도 다양하여 오래된 가옥의 기와밑이나 폐광 또는 고목의 틈에서도 서식한다.

13) 긴날개박쥐(*Miniopterus schreibasi fuliginosus*)

우리나라 박쥐류 중, 가장 큰 군집을 형성하는 종으로써 주로 동굴 내에서 서식한다. 대개는 동면시 암·수가 군집을 형성하며 동굴 내부에서 집단으로 거꾸로 매달려 생활하며, 몸집은 관박쥐보다 작고, 동부면 구천계곡과 남부면 다포리 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제도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몇가지 독특한 동물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람쥐 및 너구리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설모가 거제도 전역에서 우점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토끼류는 과거 서식하지 않고 있었으나, 현재 일부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제도의 포유류 목록

* 표시한 종은 과거 기록은 있으나 현재 서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종임

Family Mustelidae	족제비 科
<i>Mustela sibirica coreana</i>	족제비
<i>Meles melanogenys</i>	오소리
<i>Martes melamprs</i>	산달*
<i>Martes zibellina</i>	검은담비*
<i>Charronia flavigula</i>	노랑목도리담비*
<i>Lutra lutra lutra</i>	수달
Family Felidae	고양이 科
<i>Felis bengalensis manchurica</i>	삿*
<i>Panthera pardus orientalis</i>	표범*
<i>Felis pardus vilosa</i>	오수리표범*
<i>Felis tigris amurensis</i>	만주범*
<i>Felis tigris coreensis</i>	호랑이*
<i>Lynx cervaria</i>	왕삿*
Family cervidae	사슴 科
<i>Hydrapotes inermis agryropus</i>	고라니
<i>Capreolus capreolus bedfordi</i>	노루
<i>Moschus moschiferus parvipes</i>	사향노루*
<i>Cervus nippon manchuricus</i>	사슴*
Family Canidae	개 科
<i>Nyctereutes procyonoides</i>	너구리
<i>Vulpes peculiosa</i>	여우*
<i>Vulpes Kiyomasai</i>	고려여우*
<i>Canis lupus coreanus</i>	늑대*

<i>Cuon alpinus</i>	이리*
Family Talpidae	두더지 科
<i>Talpa micrura coreana</i>	두더지
<i>Mogera robusta</i>	큰두더지
Family Erinaceidae	고슴도치 科
<i>Erinaceus amurensis koreensis</i>	고슴도치
<i>Erinaceus orientalis</i>	북방고슴도치*
Family Soricidae	맛쥐 科
<i>Crocidura suaveolens shantungensis</i>	맛쥐
<i>C. lasiura thomasi</i>	토마스맛쥐*
<i>Crocidura longicauda</i>	긴꼬리맛쥐
<i>Sorex annexus</i>	뒤쥐
Family Leporidae	토끼 科
<i>Lepus sinensis coreana</i>	멧토끼
<i>Lepus manchuricus</i>	만주멧토끼*
Family Sciuridae	다람쥐 科
<i>Sciurus vulgaris coreae</i>	청설모
<i>Entomias asiaticus orientalis</i>	무늬다람쥐*
<i>Petaurista leucogenys hintony</i>	날다람쥐*
<i>Pteromys volans aluco</i>	하늘다람쥐
Family Mueidae	쥐 과
<i>Rattus norvegicus</i>	집쥐
<i>Clethrionomys rutocanus regulu</i>	대륙밭쥐*
<i>Microlus fortis pelliceus</i>	갈밭쥐
<i>M. mandarinus kishidai</i>	쇠갈밭쥐
<i>Circetulus triton nestor</i>	비단털쥐
<i>Mus molossinus</i>	생쥐
<i>Mus kambei</i>	감베이생쥐*

<i>Mus tagagu</i>	타가키생쥐*
<i>Apodemus agrarius</i>	등줄쥐
<i>Apodemus agrarius mantschuricus</i>	만주줄쥐*
<i>Apodemus speciosus peninsulae</i>	줄쥐
<i>Micromys minutus ussuricus</i>	우스리멧밭쥐*
<i>Clethrionomys rutilus amurensis</i>	북방산쥐*
<i>Asrocricetus bampensis</i>	큰비단털쥐*
<i>Microtus mandarinus kishida</i>	쇠갈밭쥐
<i>Mus pelliceus</i>	북방들쥐*
Family Bovidae	소 科
<i>Naemorhedus goral raddeanus</i>	산양*
Family Vespertilionidae	애기박쥐 科
<i>Eptesicus serotinus pallens</i>	고려박쥐*
<i>Eptesicus kobayashii</i>	고바야시박쥐*
<i>Eptesicus nilssonii parvus</i>	생박쥐*
<i>Eptesicus serotinus brachydigitus</i>	문둥이박쥐*
<i>Pipistrellus savii velox</i>	쇠박쥐*
<i>Mystis formosus chofukusei</i>	조북성박쥐*
<i>Myotis daubentonii ussuriensis</i>	우스리박쥐*
<i>Mystis mystacinus gracilis</i>	큰수염박쥐*
<i>Mystis ikonnikovi</i>	쇠긴수염박쥐*
<i>Minopterus schreibersi fuliginosus</i>	긴가락박쥐*
<i>Nyctalus lasiopterus aviator</i>	멧박쥐
<i>Pipistrellus abramus abramus</i>	집박쥐
<i>Pipistrellus pipistrellus</i>	양박쥐*

2. 조 류

옛부터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 하여 산과 들, 바다가 담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는 온갖 새들의 지저귀음이 들렸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번식하여 왔

다. 넓은 시베리아 대륙에서 번식한 각종 철새들이 봄·가을이면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를 거쳐 남쪽나라로 날아가며, 우리와 함께 1년 사계절을 살아가는 텃새 또한 풍부해 전국 어디서나 쉽게 다양한 새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새에 대한 전설이나 속담 등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1,000년을 산다는 두루미는 동양화나 도자기, 병풍 등의 오래된 그림에서 많이 볼 수 있고, 학(鶴: 두루미)은 십장생 중 하나로 무병장수를 나타내는 동물이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학 같이 건강하게 살라’는 말로 장수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또 ‘원앙금침’이란 말속의 원앙이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조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이며, ‘원앙이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좋은 부부금슬(실) 및 가족간의 화애를 강조하는 의미로 쓰였다. 평생동안 무리생활을 하는 원앙이는 사람들에게 부부의 사랑, 부모에 대한 효도, 일가친척의 사랑 등을 상징하는 새로 보였던 것이다. 또한, 기러기는 줄을 서서 하늘을 나는 습성때문에 ‘기러기는 질서의 동물이니, 신혼부부는 부부의 질서, 부모에 대한 효도의 질서는 기러기를 닮아라’는 말은 주례사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그 외에도 효도의 상징인 까마귀, 흥부전에 나오는 박씨에 얽힌 제비이야기 등은 새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잘 알려진 옛날 이야기이다.

또한, 보릿고개에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소쩍다 소쩍다’라 들리면, 금년에 풍년이 들어 집에 있는 솔이 적으니, 다음 장날에 큰 솔을 준비하라는 뜻이며, 소쩍새가 ‘소탕, 소탕’하고 울면 금년엔 솔이 텅텅 빌 것이니, 큰 솔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 한다.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뱀새(붉은머리 오목눈이)가 황새를 쫓아가려다 다리가 찢어진다’ 같은 속담 속에서도 우리의 조상들이 새와 더불어 자연과 함께 정서적인 삶을 누려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전 세계를 다녀 보아도 우리나라 만큼 새에 대한 전설이 많은 나라도 흔치 않다. 외국에는 어린이들도 잘 알고 있을 만한 ‘높이 나는 갈매기는 멀리 본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는 많은 벌레를 잡아 먹는다’ 등 몇가지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새에 관한 많은 전설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은, 그 주인공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바로 눈만 뜨면 집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까치, 까마귀, 직박구리, 딱새가 있고, 논밭에 가면 멧비둘기, 꿩, 백로, 해오라기, 휘파람새 등을 볼 수 있으며, 땀감을 하러 산에 가면 빠꾸기, 지빠귀, 두견이, 딱따구리, 박새 등 온갖 새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 왔던 것이다.

어디를 가나 새의 지저귀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으며, 강 하구, 작은 저수지에서 호수, 습지, 야산, 깊은 산 등의 다양한 환경이 있어 땅

덩이는 작지만, 다양하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여러 종류의 새들이 살아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새에 대해서는 1940년 일본인들에 의해 처음 알려져 지금까지 약 350여 종 및 아종이 알려져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새 종류와 개체수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황새는 충북 음성에 평생을 살아오던 한 쌍이 있었는데, 1974년 4월 어느 밀렵꾼의 총에 의해 수컷이 죽은 이후 25년동안 우리나라에서 황새의 번식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뿐인가?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딱다구리류 중 가장 몸집이 큰 크낙새도 경기도 남양주군 광릉에서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새도 최근들어 광릉지역에 여관, 음식점, 산림박물관 등의 건립으로 인해, 번식에 필수적인 참나무, 서어나무, 소나무 등이 없어짐에 따라 크낙새가 살아가는 서식환경을 박탈당하였고, 소음, 공해, 개울물의 오염 등으로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이 때문에 병어리뻘꾸기, 산솔새, 청호반새, 흰눈썹황금새 등 환경에 민감한 야생조류들도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는 있었던 참새, 제비, 할미새, 종다리, 멧새, 꿩 등도 최근들어 개체수나 밀도가 급속도로 감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참새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서 감소된 것을 일반인들이 잘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참새 번식기에 밀도센서스를 해보면 80~90%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조상들은 봄철 정력보강에 좋다는 생명력이 강한 ‘뜸부기’와 함께 평생을 논에서 같이 살아 왔으나, 지금은 논에서나 들에서 한 마리도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또한 논밭 근처에서 흔히 발견되었던 꿩도 우리 주변에서 점점 그 아름다운 자태를 감추고 있다. 꿩은 나무 위를 날아 다니는 새가 아니다. 논밭 근처 야산의 시야가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요즘 논밭 근처의 야산은 칩덩굴이나 나무가 울창하다 보니 적들을 경계할 만한 시야 좋은 야산이 없어졌다.

꿩은 사계절 우리 인간과 함께 살려면 다양한 먹이가 있어야 한다. 특히 봄에서 여름까지 벌레, 나무열매, 식물의 새싹 등을 먹는 잡식성 조류이다. 그러나 옛날 추운 겨울에는 주로 밭에서 영양가 높은 콩, 논에서 벼, 나무 씨앗을 주워 먹으며 겨울을 나며, 이듬해 15개 정도의 건강한 알을 낳아 훌륭하게 새끼를 기른다. 그러나 요즘은 밭을 거의 경작하지 않아 꿩이 감소하고 있다.

조류학을 연구하는 필자는 1960년 대학에서 철새의 이동경로, 새들의 수명 등을 연구하느라 거의 3년동안 전국을 누비며 야생조류를 그물 등을 이용하여 잡아 10만 마리 이상의 새다리에 작은 알루미늄 가락지를 끼워 날렸다. 그중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 멧새과에 속하는 꼬까참새의 이동시기인 매년 봄·가을 중 가을인 10월 3일에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직목리 조 밭에서 하루에 1,000마리 이상 잡아 가락지를 끼워 날려 보냈

다. 그중 6마리가 미얀마에서 발견되어 월동지인 미얀마에서 겨울을 나고, 다시 우리나라를 통과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상의 월동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에 1,000마리 이상을 잡아서 가락지를 끼워 날려 보낸 ‘꼬까참새’는 지금 어디 갔는지, 이동시기인 매년 10월초를 전후하여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꼬까참새’ 뿐만 아니다. 우리 주변에 흔한 제비도 초가집 처마마다 진흙과 지푸라기를 잘 섞어 집을 지어 5~6개의 알을 낳으며 번식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부화한 어린 새끼가 잘 커서 매년 강남인 태국에서 11월~3월까지 겨울동안 5개월을 지내다 찾아와 번식하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가옥형태가 변하다 보니 제비가 둥지를 지을 장소는 없어지고, 어떤 제비는 시멘트 벽에 진흙을 붙이다 보니 둥지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논밭의 진흙은 비닐하우스로 변하다 보니 재료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제비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야생에 흔한 텃새와 여름철새인 피꼬리, 제비, 휘파람새, 빠꾸기, 백로 등은 논밭 근처의 독한 농약때문에 먹이사슬인 곤충이나 물고기들이 없어지고, 농약에 오염된 먹이를 먹다보니 알 껍질이 얇아지고, 산란율이 떨어지고, 태어난 어린 새끼 또한 이소율이 떨어진다.

가을 우리나라를 거쳐 봄에 이동하는 꼬까도요, 마도요, 노랑발도요, 민물도요, 뒷부리도요 등은 먼 번식지인 시베리아를 떠나, 우리나라 서해안의 넓은 갯벌에서 먹이인 게, 갯지렁이, 새우, 작은 물고기 등을 충분히 먹어야 멀리 호수에 가서 월동을 하게 된다. 최근 서해안의 대부분이 매립과 서해안 공단조성으로 인한 오염으로 환경이 파괴되다 보니 도요새들의 먹이가 사라져 호주까지 가야할 민물도요, 세가락도요, 큰뒷부리도요, 마도요 등이 호주까지 잘 이동할 자신이 없는지 최근 인천 앞바다, 대부도 앞 갯벌, 군산 앞바다 유부도 등에서 겨울에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조류 450여종 중에서 필자와 같이 조류를 전공하는 사람이 1년동안 볼 수 있는 조류는 솔직히 220여 종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체수도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80%이상이 사라진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매년 10%이상이 공해와 물의 오염, 개발, 인구팽창 등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습지와 호수, 강, 경작지의 야산, 아고산대가 있어 다양한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바다는 바다조류인 팽이갈매기류를 비롯하여 계절에 따라 갈매기류인 조류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고, 겨울이면 바다오리류인 바다비오리, 검둥오리사촌, 논병아리류인 빨논병아리, 큰논병아리, 검은목논병아리, 아비류인 아비, 회색머리아비 등 많은 수의 새들이 서식처를 찾아 추운 겨울에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새들의 번식지인 아세아의 넓은 시베리아 대륙과 연결된 반도이기 때문

에 대부분의 철새들의 이동경로로 이용하고 있고, 북쪽 번식지의 철새들은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철새들의 정거장이 되고 있다. 특히, 이천시지역은 남한강과 인접한 지역으로 대부분 낮은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남북으로 이동하는 철새들의 좋은 이동경로가 되는 지역이다.

1) 우리나라 환경별 대표적인 조류

- 먼바다 섬의 조류 : 습새, 바다제비, 바다쇠오리, 섬개개비, 가마우지 등
- 해안가의 조류 : 꿩이갈매기, 재갈매기, 큰재갈매기, 바다비오리, 검둥오리, 검둥오리사촌, 큰논병아리, 빨논병아리, 검은목논병아리, 바다직박구리, 흑로 등
- 갯벌의 조류 : 민물도요, 줌도요, 꼬까도요, 흑꼬까도요, 마도요, 말락꼬리마도요, 흰물떼새, 큰뒷부리도요, 흑꼬리도요, 노랑부리백로, 쇠백로 등
- 호수나 저수지의 조류 : 중백로, 중대백로, 꼬마물떼새, 갑작도요, 해오라기, 검은댕기해오라기, 개개비, 덩불해오라기, 논병아리, 물닭,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고니, 큰기러기 등
- 인가 및 경작지의 조류 : 제비, 참새, 까치, 딱새, 귀제비, 알락할미새, 찌르레기, 빠꾸기, 멧새, 멧비둘기, 붉은뺨멧새, 검은댕기해오라기, 소쩍새, 노랑할미새
- 울창한 산림의 종류 : 피꼬리, 산솔새, 붉은배새매, 호반새, 두견이, 쌍도새, 수리부엉이, 병어리빠꾸기, 호랑지빠꾸기, 파랑새, 원앙이 등
- 높은 산의 조류 : 잣까마귀, 검은등빠꾸기, 굴뚝새, 쇠유리새, 되솔새, 큰유리새, 흰배지빠꾸기, 바위종다리 등

2) 계절별 분류에 따른 변화

계절별 조류상은 5월에는 여름철새가 우점하여 9월까지 계속된다. 이는 여름철새의 주종을 이루는 백로 및 해오라기 종류가 강변과 주변 경작지에 많이 도래하기 때문이며, 습지를 이용하여 번식하는 개개비 및 물총새류와 산림에는 빠꾸기류가 많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겨울철새는 오리류가 주종을 이루는데, 이들 오리류는 11월부터 도래하기 시작하여 겨울철동안 20~30여 종의 겨울철새가 도래하였는데, 대부분 습지환경을 이용하는 오리류 및 도요류가 주종을 이룬다.

텃새는 우리나라에서 사계절 관찰할 수 있는 종으로, 종마다 선호하는 지역과 환경에 서식하며, 봄부터 겨울까지 같은 지역에서 대부분 번식한다. 새는 강변에 서식하는 흰뺨검둥오리와 경작지주변 인가에 서식하는 참새 및 대표적인 산림조류인 박새류가 주종을 이룬다. 이른 봄인 4월 말이나 5월 초에 대부분 이동하며, 그중 할미새류가 가장 먼저 경작지나 야산에서 관찰된다. 순차적으로 딱새류, 물총새류, 꼬마물떼새, 붉은뺨멧새, 피꼬리, 지빠귀류 등이 찾아오며, 6월 중순이면 여름철새의 도래가 모두 끝난다. 여름철새는 주로 강과 주변 논에서 관찰된 백로류가 주종을 이룬다.

나그네새는 4월 초순부터 우리나라에서 관찰되기 시작하여, 10월 말경까지 한반도 중부지방을 중간 기착지로 북상 또는 남하한다. 이동시기에는 산림보다는 야산이나 경작지 등을 많이 통과하여 울새, 쇠유리새와 같은 소형 종 산새들이 관찰된다.

참 조

우리나라 조류의 계절별 종수(총 394종 및 아종)	
텃새(Resident)	57
겨울철새(Winter visitor)	116
나그네새(Passage migrant)	103
여름철새(Summer visitor)	64
미조(Vagrant)	53
절종된 종(Probably extinct)	1(원앙사촌)

3) 천연기념물

거제도 연안의 아비도래지(천연기념물 제227호)와 거제 학동의 동백림 및 팔색조번식지(천연기념물 제233호)가 있으며, 종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가 다수 있다.

(1) 팔색조

- 천연기념물 제204호
- 학 명 : *Pitta brachyura* (Temminck & Schlegel)
- 영 명 : Fairy Pitta

- 지정일자 : 1968년 5월 30일

[형 태] 암·수 동일하며, 머리꼭대기와 아랫배는 붉은빛, 눈썹선, 가슴, 옆구리는 노란색을 띠며, 등, 꼬리는 녹색, 어깨와 꼬리는 푸른 빛을 띤다. 날개 끝, 꼬리 끝, 눈 옆은 검은색이며, 날개 끝에는 흰점이 있다. 몸길이는 약 18cm이다.

[습 성] 희귀한 여름철새로 주로 해안의 상록수림이나 산림이 울창한 곳에서 단독으로 생활한다. 경계심이 강하여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해안과 섬 또는 내륙 경사지의 잡목림이나 활엽수림의 밀림에서 번식한다. 딱정벌레류, 갑각류, 지렁이 등을 즐겨 먹는다. 우거진 숲속의 어두운 바위 틈이나 바위 위에서 나뭇가지를 이용해 둥지를 만든 후, 입구에는 쇠똥을 깔아 다른 동물의 침입을 막고, 알을 낳은 곳에는 이끼를 깬다. 한 배에 4~6개의 알을 낳으며, 알은 옅은 갈색바탕에 회색 점무늬가 있다.

[실 태] 우리나라에서는 황해도, 경기도, 경상남도 및 전라남도 등지에서 번식하나, 봄, 가을의 이동시기에는 한반도 도처에서 눈에 띈다. 특히, 경상남도 거제시의 동부면과 학동리와 제주도 한라산의 중북 자연림의 번식지에는 해마다 여러 쌍이 규칙적으로 찾아와 번식한다. 지난 수년동안 거제도 번식지에는 해마다 4~5쌍이 찾아와 번식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광릉, 죽엽산, 전라북도 무주 덕유산 등지에서 새로이 채집되어, 이동 시기에 우리나라 각지를 통과함을 알게 되었다.

국제조류생존(Bird Life International) 및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의 적색자료서에 의하면, 생존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멸종을 눈앞에 둔 매우 희귀한 새이다.

현재 거제도 학동의 노자산 상록수림에 서식하는 무리는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7~8월이면 학동마을 뒤 봉곡사 절주변에서 팔색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2) 흑비둘기

- 천연기념물 제215호
- 학 명 : *Columba janthina* (Temminck)
- 영 명 : Japanese Wood Pigeon
- 지정일자 : 1968년 11월 20일

[형 태] 암·수가 동일하며, 몸 전체가 녹색과 적자색 광택을 띠는 검은색이다. 부리는 검은빛을 띄고, 회색이고 다리는 붉은색이다. 몸 길이는 약 40cm이다.

[습 성] 희귀한 텃새로 동해, 서해, 남해의 도서지방에서 번식하며, 후박나무 숲에서 서식한다. 상록 활엽수의 나무가지 위나 나무구멍에서 번식하며, 풀숲의 암석 위에 둥지를 트는 경우도 있다. 후박나무 열매나 섬자리공 열매 등 주로 식물성 먹이를 먹는다.

[실 태] 우리나라에서는 1936년 8월 26일 울릉도에서 채집된 암컷 1마리의 표본이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된 이래, 1956년과 1971년 울릉도 학술답사에서 100~200개체정도가 울릉도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1961년 전라남도 보길도에서 수컷 1마리가 채집되어 소수나마 그곳에 서식하고 있음이 알려졌고, 1969년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군도 조사에서 사수도에 5개체, 횡간도에 1개체가 발견되었다. 1970년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에서 17개체가 발견되어, 남해연안 도서와 해안가의 후박나무 숲에는 소수의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의 답사에서 전혀 관찰되지 않아, 거제도에서는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3) 거제도 연안의 아비도래지

- 천연기념물 제 227호
- 지정일자 : 1970년 10월 30일

아비류는 5종으로 분류되며, 북극 주변에서 번식하는 한지성(寒地性) 조류들로 겨울에는 온대지방에서 월동한다. 그중 3종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월동한다.

○ 회색머리아비(학명: *Gavia pacifica* (Lawrence), 영명: Pacific Diver)

[형 태] 몸길이는 65cm로 겨울 깃은 아비와 비슷하나, 보다 크고 육중하다. 등쪽 야외에서 더욱 암색으로 보이고, 가까운 거리에서는 반점이 없어 보이며, 배는 흰색이다. 부리는 곧고 비교적 육중하다.

○ 아비(학명: *Gavia stellata stellata* (Pontoppidan), 영명: Red-throated Diver)

[형 태] 몸길이는 63cm이고, 부리는 다소 위로 뺐었으며, 회색머리아비보다 작고 선명한 색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아름답고 등쪽은 작은 백색반점이 있는 회갈색이며, 배쪽은 흰색을 띤다.

○ 큰회색머리아비(학명: *Gavia arctica viridigularis* Dwight, 영명: Black-throated Diver)

[형 태] 여름에는 회색머리아비와 비슷하지만, 목과 머리가 밝은 회색이어서 등의 암갈색과 대조를 이룬다. 앞 목은 어두운 녹색이다. 목의 옆에서 가슴까지 이어지는 흰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뚜렷하다. 아비보다 더 크고, 등쪽이 어두운 편이며, 곧은 부리를 가지고 있어 쉽게 구별된다.

아비는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남해안일대에 드물지 않게 1마리씩 분산되어, 해마다 불규칙적으로 도래하여 월동하고 있다. 특히, 거제도에서는 해안선을 따라 자주 관찰된다.

회색머리아비와 큰회색머리아비는 그 동안 매우 희귀한 겨울새로 출현하는 줄만 알았는데, 거제도 연안에 500~1,000마리 이상의 월동군이 해마다 도래하여 월동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아비도래지로 지정된 거제도지역은 청정해역으로 아직 오염이 적은 곳이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기름 유출사고와 적조현상으로 많은 피해와 위협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하겠다.

(4) 거제도 학동의 동백림 및 팔색조 번식지

- 천연기념물 제 233호
- 지정일자 : 1971년 9월 13일

거제도는 남해해상 동경 128° 37', 북위 34° 51'에 위치하여 있고, 부산에서 동북단의 장목면 진포까지의 최단거리는 184.5km이며, 거제도의 해안선 연장은 294km이다. 팔색조는 대부분이 학동리 남방에 있는 노자산(577m)에서 다대리에 이르는 능선의 남사면 활엽수림에서 번식하지만, 일부는 주변의 활엽수림에 분산되어 번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자산 능선의 남사면은 비교적 심한 경사에 노출된 암석이 산재하고, 여름에는 습기찬 숲으로 팔색조 번식에 최적의 장소를 제공한다. .

학동의 노자산에 팔색조가 서식한다는 사실은, 1959년 7월 29일 어린 암컷 2마리와 어린 수컷 1마리를 포획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후에도 번식시기에는 적지 않게 포획되었다. 1970년 7월 19일 조사에서 학동리 가라산(노자산 남사면) 표고 100m의 어린 느티나무 숲속 큰 바위 위에 둥지를 틀어 5개의 알을 낳은 것을 발견한 보고도 있었다.

둥지를 트는 장소는 앞이 트여 시야가 넓은 큰 바위 위에 너비 23cm, 깊이 20cm, 출입구의 높이 5cm, 출입구경이 6.5cm인 이끼로 만든 둥지였다. 외각은 작은 나뭇가지와 마른덩굴 식물로 쌓고, 바닥은 나무뿌리, 알자리에는 풀대를 깔고 있었다. 학동의 팔색조가 사라진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해금강 주변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상록수림이 파괴된 것을 꼽을 수 있다.

(5) 까막딱따구리

- 천연기념물 제242호
- 학 명 : *Drycopus martius* (Linnaeus)
- 영 명 : Black Woodpecker
- 지정일자 : 1973년 4월 12일

[형 태] 수컷은 머리꼭대기가 붉고, 암컷은 뒷머리만 붉다. 몸전체가 광택이 있는 검은색으로 부리는 녹색을 띤 황색으로 끝은 검다. 몸길이는 약 45.5cm이다.

[습 성] 보기드문 텃새이며, 자연혼합림의 고목이 무성한 평지에서 고준지대에 이르

기까지 서식하며, 지상에서 4~25m 높이의 나무줄기에 암수가 공동으로 8~17일쯤 걸쳐 구멍을 파서 둥지를 만들어 번식한다. 곤충류나 식물의 열매를 주로 먹는다.

[실 태] 서식환경의 주요인이 되는 고목이 벌채되어 감에 따라 점차 사라져 가는 텃새로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함경북도(19회), 함경남도(2회), 강원도(1회), 평안남도(2회), 황해도(2회), 경기도(14회)의 채집기록이 있지만, 중부 이북에 한한 지역이다. 그러나 충청북도, 부산 구덕산, 전라북도 내장산 등지에서도 관찰되었다.

일부 남아있는 자연혼합림의 오래된 큰 나무가 무성한 경기도 광릉, 강원도 설악산, 강원도 명주군 연곡면 청학동, 전라북도 내장산 등지에는 아직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끔 관찰자의 눈에 띈다.

(6) 수리류(독수리·검독수리·참수리·흰꼬리수리)

- 천연기념물 제243호
- 지정일자 : 1973년 6월 20일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8종의 수리류가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2종은 북한지역에서, 또 다른 2종은 남·북한지역에서 각기 두 서너번 채집된 미조이므로, 나머지 4종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 독수리(학명 : *Aegypius monachus* (Linnaeus), 영명 : Black Vulture)

[형 태] 암·수 동일하며, 몸 전체는 검은빛이 도는 짙은 갈색이다. 머리에는 검은색의 피부가 드러나 있고, 목에는 회갈색의 선명하지 않은 줄이 있으며, 부리의 기부와 발은 녹색을 띈다. 몸길이는 약 102~112cm이다.

[습 성] 드문 겨울철새로 홀로 또는 쌍으로 생활하나, 5~6마리의 작은 무리를 이루기도 한다. 큰 하천부근이나 호소지대, 초습지, 하구 등지에서 생활한다. 죽은 동물이나 비틀거리는 오리, 물새 등을 잡아 먹는다.

○ 검독수리(학명 : *Aquila chrysaetos japonica* Severtzov, 영명 : Golden Eagle)

[형 태] 암·수 동일하며, 머리꼭대기와 뒷목은 황갈색이고 나머지 부분은 어두운 갈색으로 날개 중앙부에는 회갈색 무늬가 있다. 어린 새의 날개와 꼬리의 안쪽에는 흰부분이 있다. 몸길이는 약 85cm이다.

[습 성] 주로 내륙지방의 바위 절벽에서 번식하는 텃새이다. 해안선과 하천을 따라 남하하여 해안 앞바다 하구나 삼각주에서 1마리 또는 2~3마리가 함께 생활한다. 작은 포유류와 중형 조류를 주로 먹는다.

○ 참수리(학명 : *Haliaeetus pelagicus pelagicus* (Pallas), 영명 : Steller's Sea Eagle)

[형 태] 암수 동일하며, 몸 전체가 거의 흑갈색이다. 이마, 어깨, 꼬리는 흰색이며, 유난히 큰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발은 노란색이다. 몸길이는 수컷이 약 88cm이고, 암컷은 약 102cm이다.

[습 성] 매우 드문 겨울철새로 해안, 하천의 하류, 평지와 산지의 물가, 호소 등지에서 생활한다. 대개 홀로 생활하나, 독수리, 흰꼬리수리와 함께 5~6마리 내외의 무리를 짓기도 한다. 연어, 송어, 산토끼, 물범, 중형 조류, 각종 물고기, 동물의 썩은 고기 등을 주로 먹는다.

○ 흰꼬리수리(학명 : *Haliaeetus albicilla albicilla* (Linnaeus), 영명 : White-tailed Sea Eagle)

[형 태] 암·수 동일하며, 머리와 어깨는 황갈색이고, 가슴, 배, 등은 갈색이며, 날개의 끝부분은 특히 어두운 갈색이다. 꼬리는 흰색이며, 부리와 발은 노랗다. 몸길이는 수컷이 약 80cm, 암컷이 약 95cm이다.

[습 성] 드문 겨울철새로 해안의 바위, 갯벌, 소택지, 내륙의 호수, 하천하구 및 개활지에서 생활하며, 산악지대에는 서식하지 않는다. 단독생활을 하며 연어, 송어, 산토끼, 쥐, 오리, 물떼새, 도요새, 까마귀 등을 잡아 먹는다.

[실 태] 전체적인 생존집단이 감소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보호를 요구하는 종이다.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깃털의 색깔이나 색깔형에서도 폭 넓은 변이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에는 섬진강, 대성동(경기도 파주군 군내면 비무장지대), 한강, 낙동강 등 큰 하천이나 하구 또는 동서 해안 및 남해 도서연안 등 도처에서 월동하는 드문 겨울새이다. 낙동강과 한강 등 하구의 삼각주 갈대밭 주변과 개펄에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겨울철에는 항상 독수리의 무리 4~5마리가 눈에 띄곤 했었다.

그러나 그곳들은 이미 댐과 하구연 건설 등 매립과 개발로 인해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으며, 독수리를 비롯한 많은 철새들은 이제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오늘날 독수리를 볼 수 있는 곳은 대성동과 판문점 일원에 잔존하는 비무장지대에 국한되거나 그곳이나 인접지역도 해마다 변모해 가고 있다.

(7) 매류(참매 · 붉은배새매 · 새매 · 개구리매 · 황조롱이 · 매)

- 천연기념물 제323호
- 지정일자 : 1982년 11월 4일

지구상에서 매목 Falconiformes에 속하는 조류는 272종에 이른다. 그 가운데 수리과

Accipitridae는 211종, 매과 Falconidae는 61종이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수리류 21종과 매류 6종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27종 가운데,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리류 4종 외에 8종(참매, 붉은배새매, 새매, 잿빛개구리매, 알락개구리매, 개구리매, 황조롱이, 매)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맹금류(수리류와 매류)는 범세계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국토가 겪고 있는 환경오염과 농약으로 인해 서식지와 먹이가 줄어들면서, 그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참매(학명 : *Accipiter gentilis schvedowi* (Menzbier), 영명 : Goshawk)

[형 태] 몸길이는 48~61cm로 등은 회갈색이며, 눈에 띄는 백색 눈썹선이 있고, 어깨는 백색으로 얼룩져 있다. 배쪽은 흰색이고, 회갈색 가로줄 얼룩 무늬가 있다. 날때는 비교적 짧고 폭 넓은 날개와 긴 꼬리가 뚜렷하다.

[습 성] 전국 도처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겨울철새이다.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사용해온 대표적인 평사냥 매이다. 잡목림의 교목가지에 등지를 틀고, 산란기는 5월 상순에서 6월경까지이며, 한 배의 산란수는 2~4개이다.(보통 3개) 포유류 및 조류를 먹이로 하는데, 포유류의 토끼를 주식으로 하고 기타 작은 동물도 먹는다.

○ 붉은배새매(학명 : *Accipiter soloensis* (Horsfield), 영명 : Chinese Sparrow Hawk)

[형 태] 암·수 동일하며, 머리, 등과 꼬리는 검은빛을 띤 회색이고, 배는 흰색이며, 턱밑과 가슴은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다. 날개의 안쪽 끝은 검은색이며, 부리는 빨색이다. 몸길이는 수컷이 약 27cm, 암컷이 약 30cm이다.

[습 성] 우리나라 중부지방 전역에서 번식하는 여름철새로 주로 평지, 구릉, 농촌 인가부근의 참나무와 소나무 등에서 서식한다.

○ 새매(천연기념물 제323호, 학명 : *Accipiter nisus nisosimilis* (Tickell), 영명 : Sparrow Hawk)

[형 태] 몸길이는 28~38cm이고, 암컷은 수컷보다 훨씬 크다. 성조의 수컷은 등쪽은 암회색이며, 어깨에 백색 반점이 있다. 배쪽은 회색이며, 앞가슴에 암갈색의 가로무늬가 있다. 눈 위의 백색 줄무늬가 뚜렷하고, 다리, 눈과 눈동자는 황색이다. 날 때에는 짧고 둥근 날개와 긴 꼬리가 뚜렷하다.

[현실태] 한반도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드물지 않는 텃새이다. 번식기 이외에는 평지나 도시, 교외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잡목림에서 등지를 틀고 산란기는 5월경이며, 한 배의 산란수는 4-5개로 작은 조류와 포유류를 먹이로 한다.

- 잿빛개구리매(천연기념물 제323호, 학명: *Circus cyaneus* (Linnaeus), 영명 : Hen Harrier)

[형 태] 수컷은 머리, 가슴, 등, 꼬리가 잿빛이고, 배는 흰색이다. 암컷은 몸 전체가 갈색으로 진한 갈색무늬가 있다. 암수 모두 날개의 끝은 검은색이고, 허리는 흰색이다. 몸길이는 수컷이 약 43cm, 암컷은 약 53cm이다.

[습 성]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새로 단독 생활을 할 때가 많고, 꼬리를 벌리고 날개를 펼치며, 긴 다리를 뻗고 한 곳에 정지한 채 먹이를 찾는다. 평지, 개활지, 초습지, 야산, 구릉, 하천부지의 초지 및 농경지에서 생활한다.

- 알락개구리매(학명 : *Circus melanoleucos*, 영명 : Pied Harrier)

[형 태] 수컷은 머리, 등, 날개가 검은색이고, 날개의 앞쪽과 배는 흰색이며, 날개의 뒤쪽과 꼬리는 회색이다. 암컷은 잿빛개구리매의 암컷과 비슷한데, 배의 색이 밝고 날개 끝과 꼬리가 진한 회색이다. 몸길이는 약 45cm이다.

[습 성]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드물게 보이는 나그네 새로 하천, 산림부근의 초지에서 서식한다. 작은 조류나 개구리, 물고기 등을 잡아 먹는다.

- 개구리매(학명 : *Circus aeruginosus spilonotus* Kaup, 영명 : Marsh Harrier)

[형 태] 수컷은 머리가 어두운 갈색 또는 검은색이고, 등과 날개는 회색 또는 검은색이며, 가슴과 배는 희다. 암컷은 머리와 가슴이 살색에 가까운 옅은 갈색이며, 등과 날개, 배는 약간 붉은빛을 띤 갈색이다. 몸길이는 수컷이 약 48cm이다.

[습 성] 봄, 가을에 우리나라를 지나는 나그네 새로, 습지 또는 초원위를 1~2m 높이로 날며 먹이를 찾는다. 지상 또는 풀 위에 앉는 것이 보통이나 말뚝 위나 바위에 앉아 쉬기도 하며, 높은 나무 위에 앉는 일은 없다. 홀로 생활할 때가 많다.

- 매(학명 : *Falce Peregrinus japonensis* Gmelin, 영명 : Peregrine Falcon)

[형 태] 암·수 동일하며, 머리, 뺨, 등은 짙은 회색이다. 턱밑은 흰색이고, 가슴과 배는 때묻은 흰색에 검은색의 가로 줄무늬가 있다. 어린 새는 가슴에 세로 점무늬가 있다. 몸길이는 수컷이 약 38cm, 암컷이 약 51cm이다.

[습 성] 드문 텃새로 주로 해안이나 도서지방의 절벽에서 번식한다. 홀로 생활할 때가 많고, 먹이를 발견하면 고공에서 날개를 오므리고 굉장한 속도로 급강하하여 발톱으로 먹이를 채는 것이 보통이다.

○ 황조롱이(학명 : *Falco tinnunculus interstinctus* Horsfield, 영명 : Kestrel)

[형 태] 수컷은 머리와 꼬리가 회색이고, 눈 밑에 검은 세로줄이 있으며, 꼬리 끝에는 검은색과 흰색의 줄이 있다. 등은 붉은빛을 띠는 갈색으로 검은 점이 있고, 날개 끝쪽은 검다. 암컷은 머리와 꼬리에도 등과 마찬가지로 적갈색에 검은점이 있다. 몸길이는 수컷이 약 30cm, 암컷이 약 33cm이다.

[습 성] 우리나라 전역에서 번식하는 텃새로 도시나 시골의 마을 부근에서 서식하며, 강가의 암벽, 건물의 벽사이에서 번식한다.

(8) 올빼미·부엉이류(올빼미·수리부엉이·솔부엉이·짙부엉이·쇠부엉이·소쩍새·큰소쩍새)

- 천연기념물 제324호
- 지정일자 : 1982년 11월 4일

전세계적으로 올빼미목(Strigifotmes) 조류는 136종이 알려져 있으며, 그 가운데 올빼미과 Strigidae 조류는 126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0종의 올빼미과 조류가 기록되어 있으나, 기록이 저조한 흰올빼미, 긴점박이올빼미, 금눈쇠올빼미를 제외한 나머지 7종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맹금류(수리류와 매류)와 함께 범세계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다.

○ 올빼미(학명 : *Strix aluco* (Clark), 영명 : Korean Wood Owl)

[형 태] 암·수 동일하며, 머리와 등은 회갈색으로 흰 점무늬가 많고, 가슴과 배는 잿빛을 띠는 흰색으로 갈색의 세로 점무늬가 있으며, 얼굴도 회갈색이다. 구부러진 부리는 옥색을 띤 황색이고, 발은 살색이다. 몸길이는 약 35cm이다.

[습 성] 주로 우리나라 평지의 침엽수림이나 활엽수림에 생활하는 흔하지 않은 텃새로 낮에는 나무가지에서 휴식을 하고 밤에 활동한다. 경기도 남양주군 광릉의 숲에서 매년 번식한다.

○ 수리부엉이(학명 : *Bubo bubo kiautschensis* Reichenow, 영명 : Eagle Owl)

[형 태] 암·수가 동일하며, 몸 전체가 황갈색을 띠며, 가슴, 등, 날개에는 검은 세로 점무늬가 있고, 그 밖의 부분에는 암갈색의 무늬가 있다. 머리에는 검은색의 큰 귀깃이 2개 있다. 몸길이는 약 66cm이다.

[습 성] 비교적 드문 텃새로 중부 이북지방의 깊은 산의 암벽과 바위산, 강가의 절벽에서 생활하며 주로 야간에 활동한다. 암벽의 선반처럼 생긴 곳이나 바위굴속, 바위사이의 틈에서 번식한다.

○ 솔부엉이(학명 : *Ninox scutulata* (Rattles), 영명 : Brown Hawk Owl)

[형 태] 암수 동일하며, 머리, 등, 꼬리는 진한 갈색이고, 가슴과 배는 흰색으로 암갈색의 세로 점무늬가 있으며, 꼬리에는 암갈색의 가로 띠가 있다. 부리와 발은 노랗고, 몸 길이는 29cm이다.

[습 성] 드물지 않은 여름철새로 평지에서 표고 1,000m정도의 산지에 이르기까지 침엽수, 낙엽 활엽수림, 인가부근의 숲, 도시의 공원, 정원 등에서 서식하며, 주로 밤에 활동하고 번식기에는 사람이 등지부근에 나타나면 습격한다.

○ 칙부엉이(학명 : *Asio otus otus* (Linnaeus), 영명 : Long-eared Owl)

[형 태] 암·수 동일하며, 몸 전체가 황갈색으로 옅은 회색을 띤다. 가슴, 배, 꼬리에는 짙은 갈색의 세로 점줄무늬가 많으며, 등과 날개에는 암갈색의 얼룩 점무늬가 있다. 머리에는 갈색의 큰 귀깃이 있다. 몸길이는 약 38cm이다.

[습 성] 최근 그 수가 감소하고 있는 텃새로, 소나무숲과 같은 침엽수 산림에서 서식하며 야간에 활발한 활동을 한다. 잡목림에서 매류나 말뚝가리 등의 묵은 등지를 이용하여 번식하며, 드물게 교목의 뿌리 부근에서도 번식한다.

○ 쇠부엉이(학명 : *Asio flammeus flammeus* (Pontoppidan), 영명 : Short-eared Owl)

[형 태] 암·수 동일하며, 몸 전체는 황갈색이다. 배는 흰색이며, 등과 날개에는 많은 검은 줄무늬가 있고, 가슴과 배에는 어두운 갈색의 세로 줄무늬가 있다. 날개 끝은 옅은 주황색을 띠며, 머리에는 작은 귀깃이 있다. 몸길이는 약 38.5cm이다.

[습 성] 겨울철새로 산지의 풀숲, 개활지의 갈대밭, 교목, 팜목, 잡목 등에서 생활한다. 주로 야간에 활동하나 낮에 활동하는 수도 있다. 낮에는 대개 풀숲 속에 잠자리를 정하고 숨어 산다.

○ 소쩍새(학명 : *Otus scops* (Sharpe), 영명 : Scops Owl)

[형 태] 암·수 동일하나, 갈색형과 적색형이 있다. 갈색형은 머리가 회갈색으로 암갈색 무늬가 있고, 등은 적갈색으로 암갈색 무늬가 있다. 적색형은 몸 전체가 붉은 갈색을 띤다. 눈은 황색이다. 몸길이는 약 20cm이다.

[습 성]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하게 번식하는 여름철새로 낮에는 숲에서 휴식을 하고,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조류이다. 곤충류, 거미류를 먹는다.

○ 큰소쩍새(학명 : *Otus bakkamoena ussuriensis* (Buturlin), 영명 : Collared Scops Owl)

[형 태] 암·수 동일하며 머리와 등은 갈색으로 각 깃의 끝은 검고 짙은 갈색의 얼룩 무늬가 있다. 턱밑과 아랫배는 희고, 나머지는 등과 비슷하며, 눈은 붉은 색이다. 몸길

이는 약 24cm이다.

[습 성] 남부지방보다는 중부 이북지방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겨울철새로 낮에는 어두운 숲에서 쉬고, 저녁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야행성 조류이다.

(9) 기러기류(개리·흑기러기)

- 천연기념물 제325호
- 지정일자 : 1982년 11월 4일

지구상에서 기러기목 Anseriformes 조류는 146종이 알려져 있으나, 그 가운데 순기러기류는 14종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에는 7종의 기러기류가 도래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사라져가는 개리와 흑기러기의 2종만이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25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개리는 국제조류생활(Bird Life International) 및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의 적색자료서에 의하면 일본, 남북한, 타이완에 50,000마리 밖에 생존해 있지 않은 멸종위기의 새이다.

○ 개리(학명 : *Anser cygnoides* (Linnaeus), 영명 : Swan Goose)

[형 태] 암·수 동일하며 눈 앞, 머리위에서부터 뒷목까지 암갈색이고, 등과 날개는 흑갈색으로 흰색 또는 줄무늬가 있다. 뺨, 앞목, 아랫배는 흰데 뺨은 황갈색을 띠고 있다. 가슴은 회갈색이다. 몸길이는 약 87cm이다.

[습 성] 비교적 드문 철새로 호소, 논, 초습지, 소택지, 해안, 간척지 등지에서 홀로 또는 암수가 함께 생활하며 무리를 이루기도 한다. 날아 오를 때는 5~10m를 달린 후 떠 오른다. 수생식물, 벼, 보리, 밀 등과 조개류를 먹는다.

○ 흑기러기(학명 : *Branta bernicla* (Tougarinov), 영명 : Brant)

[형 태] 암·수 동일하며 머리, 가슴, 등은 검은색이다. 배는 흰색인데, 검은색의 가로 줄무늬가 있고, 턱밑도 흰색인데, 검은 줄무늬가 있다. 다리는 검은색이며, 몸길이는 약 61cm이다.

[습 성] 남해연안과 도서에 규칙적으로 날아오는 드문 겨울철새이다. 홀로 또는 작은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만조시나 밤에는 해상에서 쉬며, 낮의 간조시에는 해안이나 얕은 곳에서 먹이를 찾는다.

(10) 검은머리물떼새

- 천연기념물 제326호
- 학 명 : *Haematopus ostralegus* (Swinhoe)

- 영 명 : Oystercatcher,
- 지정일자 : 1982년 11월 4일

[형 태] 암·수가 동일하며 머리, 가슴, 등은 검고 배, 어깨, 허리, 날개의 기부 뒷쪽과 꼬리의 기부는 희며, 부리, 눈, 발은 붉은색이다. 몸길이는 약 45cm이다.

[습 성] 희귀한 텃새로 번식기에는 무인도서의 암초가 있는 곳, 하구의 삼각주, 해안의 자갈밭, 갯벌 등지에서 서식하며, 하천의 모래밭이나 하구의 삼각주에서 월동한다. 4~5마리가 무리를 이룬다. 해산 연체동물이나 게류, 작은 어류를 먹는다.

[실 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적은 수의 집단이 캄차카 동해안, 오호츠크해 북단 펜진만과 우리나라의 서해안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은, 1917년 4월 구로다 나가미치박사가 전라남도 영산강 하구에서 2개의 알을 발견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 뒤 1973년 6월과 1974년 6월, 강화도 삼산면 매음리의 보문사 앞바다에 자리한 대송도에서 알이 확인됨으로써 비로소 우리나라에서도 드물게나마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북쪽은 강화도 삼산면 휴전선부근 괴리섬에, 남쪽은 신안군 앞바다에 이르는 서해안 무인도서에서 약 150마리 안팎의 작은 집단이 해마다 번식하리라 추정해 왔으며, 이들 번식집단과 번식지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가 요청되고 있다.

겨울에는 동북아 북쪽의 번식집단, 러시아와 중국 동북지방에서 번식한 무리는 한반도의 서해안 군산 외항에서 월동하며, 최근 확인된 바로는 850마리까지의 큰 월동군을 관찰한 예도 있다. 겨울철 서해안이나 낙동강 하구 그리고 내륙의 물가에서도 간혹 1, 2마리가 눈에 띄나, 여름에는 매우 한정된 해안과 무인도서에서 볼 수 있다. 그 밖에 1979년 7월 19일에는 목포와 비금도사이에서 8마리, 1980년 7월 25~28일에는 서해 고군산군도에서 77마리나 되는 집단이 관찰되었다.

(11) 원앙이

- 천연기념물 제327호
- 학 명 : *Aix galericulata* (Linnaeus)
- 영 명 : Mandarin Duck
- 지정일자 : 1982년 11월 4일

[형 태] 수컷은 머리와 가슴이 진한 밤색이고, 가슴에 2개의 세로 줄무늬가 있으며, 등은 청록색, 얼굴과 장식깃은 누른빛을 띤다. 암컷은 몸 전체가 어두운 회색이며, 수많은 흰 점무늬가 있다. 몸길이는 약 45cm이다.

[습 성] 삼림이 울창한 산간 계류에서 번식하는 흔하지 않은 텃새로 겨울에는 저수지, 호소, 해변, 냇가의 물에서 크고 작은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숲속에 있는 활엽수의 나무구멍, 인공 새집, 돌담 틈새에 둥지를 틀고 번식한다. 풀씨, 나무열매, 달팽이류, 작은 민물고기 등을 먹으며, 특히 도토리를 즐겨 먹는다.

[실 태] 아무르강 계곡의 중앙부와 하류의 쿠마리강 하류, 남쪽은 우수리지역과 중국 동북지방을 거쳐 하북성 북부까지와 일본에서 번식한다. 북부의 번식집단은 결빙 후에 남쪽으로 퇴각하며 중국 동남부, 드물게는 타이완, 아셈에서의 기록도 있으며, 사할린 남부에도 나타난다. 분포권 안에서도 흔한 새는 아니며,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드문 텃새이다. 지구상에는 현재 약 20,000개체가 생존하리라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광릉 숲속의 물가에서는 언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해마다 번식하며 불어나고 있다. 겨울에는 100마리 이상의 무리도 흔히 볼 수 있고, 수컷은 털갈이 시기나 늦여름에 무리를 짓기도 하지만, 단독생활도 한다. 매년 4월 하순부터 7월 사이에 나무구멍을 이용하여 번식하나, 때로는 쓰러진 나무 밑이나 우거진 풀 속에서도 새끼를 친다. 한 배에 9~12개의 알을 낳으며, 28~30일동안 약 80%의 낮과 밤에 암컷이 알을 품는다. 부화 뒤 육추기간은 약 6주일이고, 5월 하순에서 7월 하순사이에 새끼를 볼 수 있다.

거 제 도 의 조 류 목 록

* 표시는 문헌상 기록은 있으나 현재 관찰이 불가능하여 서식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종임.

아비목	GAVIFORMS
아비과	GAVIDAE
아비	<i>Gavia stellata stellata</i>
회색머리아비	<i>Gavia pacifica</i>
*흰부리아비	<i>Gavia adamsii</i>
논병아리목	PODICIPEDIFORMES
논병아리과	PODICIPEDIDAE
논병아리	<i>Podiceps ruficollis</i>
귀뿔논병아리	<i>Podiceps auritus auritus</i>
검은목논병아리	<i>Podiceps nigricollis nigricollis</i>
뿔논병아리	<i>Podiceps cristatus cristatus</i>
큰논병아리	<i>Podiceps grisegena holbollii</i>
습새목	PROCELLARIIFORMES
습새과	PROCELLARIDAE

습새	<i>Calonectris leucimelas</i>
바다제비과	HYDROBATIDAE
바다제비	<i>Oceanodroma monorhis</i>
사다새목	PELECANIFORMES
가마우지과	PHALACROCORACIDAE
민물가마우지	<i>Phalacrocorax carbo hanedae</i>
가마우지	<i>Phalacrocorax filamentosus</i>
쇠가마우지	<i>Phalacrocorax pelagicus pelagicus</i>
군함조과	FREGATIDAE
*군함조	<i>Fregata ariel ariel</i>
황새목	CICONIIFORMES
백로과	ARDEIDAE
왜가리	<i>Ardea cinerea</i>
*붉은왜가리	<i>Ardea purpurea manilensis</i>
중대백로	<i>Egretta alba</i>
중백로	<i>Egretta intermedia</i>
흑로	<i>Egretta sacra</i>
황로	<i>Bubulcus ibis</i>
해오라기	<i>Bubulcus nycticorax</i>
쇠백로	<i>Egretta garzetta</i>
검은댕기해오라기	<i>Ardeola striata</i>
*알락해오라비	<i>Botaurus stellaris stellaris</i>
덤불해오라비	<i>Ixobrychus sinensis sinensis</i>
*붉은해오라비	<i>Gorsakius goisagi</i>
해오라비	<i>Nycticorax nycticorax nycticorax</i>
검은댕기해오라비	<i>Butorides striatus amurensis</i>
매목	FALCONIFORMES
수리과	ACCIPITRIDAE
벌매	<i>Pernis ptilorhynchus orintalis</i>
솔개	<i>Milvus migrans lineatus</i>
흰꼬리수리	<i>Haliaeetus albicilla</i>
참수리	<i>Haliaeetus pelagicus pelagicus</i>
참매	<i>Accipiter gentilis schvedowi</i>

*개구리매	<i>Circus aeruginosus</i>
*갯빛개구리매	<i>Circus cyaneus cyaneus</i>
붉은배새매	<i>Accipiter soloensis</i>
새매	<i>Accipiter nisus</i>
*털발말뚝가리	<i>Buteo lagopus menzbieri</i>
*큰털발말뚝가리	<i>Buteo hemilasius</i>
말뚝가리	<i>Buteo buteo japonicus</i>
왕새매	<i>Butastur indicus</i>
*검독수리	<i>Aquila chrysaetos japonica</i>
*독수리	<i>Aegypius monachus</i>
매과	FALCONIDAE
황조롱이	<i>Falco tinnunculus</i>
매	<i>Falco peregrinus japonensis</i>
새호리기	<i>Falco subbuteo subbuteo</i>
기러기목	ANSERIFORMES
오리과	ANATIDAE
흑기러기	<i>Branta bernicla orientalis</i>
쇠기러기	<i>Anser albifrons frontalis</i>
큰기러기	<i>Anser fabalis</i>
황오리	<i>Tadorna ferruginea</i>
*흑부리오리	<i>Tadorna tadorna</i>
청둥오리	<i>Anas platyrhynchos</i>
흰뺨검둥오리	<i>Anas poecilorhyncha</i>
쇠오리	<i>Anas crecca</i>
원앙이	<i>Aix galericulata</i>
*가창오리	<i>Anas formosa</i>
홍머리오리	<i>Anas penelope</i>
발구지	<i>Anas querquedula</i>
*넓적부리	<i>Anas clypeata</i>
*청머리오리	<i>Anas facata</i>
알락오리	<i>Anas strepera</i>
고방오리	<i>Anas acuta</i>
*비오리	<i>Mergus serrata</i>

흰비오리	<i>Mergus albellus</i>
바다비오리	<i>Mergus serrator</i>
검은머리흰쭈지	<i>Aythya marila marila</i>
댕기흰쭈지	<i>Aythya fuligula</i>
흰쭈지	<i>Aythya ferrina</i>
검둥오리	<i>Melanitta nigra americana</i>
검둥오리사촌	<i>Melanitta fusca stejnegeri</i>
흰줄박이오리	<i>Histrionicus histrionicus</i>
흰뺨오리	<i>Bucephala clangula clangula</i>
뚝부기과	RALLIDAE
*흰눈썹뚝부기	<i>Rallus aquaticus indicus</i>
*쇠뚝부기	<i>Porzana pusilla pusilla</i>
쇠뚝부기사촌	<i>Porzana fusca</i>
뚝부기	<i>Gallicrex cinerea cinerea</i>
물닭	<i>Fulica atra</i>
쇠물닭	<i>Gallinula chloropus</i>
닭목	GALLIFORMES
평과	PHASIANIDAE
평	<i>Phasianus colchicus</i>
매추라기	<i>Coturnix coturnix japonica</i>
들평과	TETRANONIDAE
*들평	<i>Tetrastes bonasia vicinitas</i>
도요목	CHARADRIIFORMES
검은머리물떼새과	JAEMATOPODIDAE
검은머리물떼새	<i>Haematopus ostralegus osculams</i>
물떼새과	CHARADRIIDAE
꼬마물떼새	<i>Charadrius dubius</i>
*흰목물떼새	<i>Charadrius placidus</i>
왕눈물떼새	<i>Charadrius mongolus stegmanni</i>
*큰왕눈물떼새	<i>Charadrius leschenaultii</i>
*큰물떼새	<i>Charadrius asiaticus veredus</i>
흰물떼새	<i>Charadrius alexandrinus</i>
검은가슴물떼새	<i>Pluvialis dominica fluva</i>

개평	<i>Pluvialis squatarola</i>
*댕기물떼새	<i>Vanellus vanellus</i>
도요과	SCOLOPACIDAE
꼬까도요	<i>Arenaria interpres interpres</i>
좁도요	<i>Calidris ruficollis</i>
중달도요	<i>Calidris minutilla subminuta</i>
백백도요	<i>Tringa ochropus</i>
민물도요	<i>Calidris tenuirostris</i>
붉은갯도요	<i>Calidris ferruginea</i>
붉은어깨도요	<i>Calidris tenuirostris</i>
세가락도요	<i>Crocethia alba</i>
*넓적부리도요	<i>Eurynorhynchus pygmeus</i>
*송곳부리도요	<i>Limicola falcinellus sibirica</i>
학도요	<i>Tringa totanus eurhinus</i>
청다리도요	<i>Tringa nebularia</i>
알락도요	<i>Tringa glareola</i>
노랑발도요	<i>Tringa brevipes</i>
깍작도요	<i>Tringa hypoleucos</i>
각도요	<i>Gallinago gallinago</i>
흑꼬리도요	<i>Limosa limosa</i>
큰뺨부리도요	<i>Limosa lapponica baueri</i>
마도요	<i>Numenius arquata orientalis</i>
알락꼬리마도요	<i>Numenius madagascariensis</i>
중부리도요	<i>Numenius phaeopus variegatus</i>
멧도요	<i>Scolopax rusticola</i>
*바늘꼬리도요	<i>Gallinago stenura</i>
장다리물떼새과	RECURVIROSTRIDAE
*장다리물떼새	<i>Himantopus himantopus</i>
지느러미발도요과	PHALAROPODIDAE
지느러미발도요	<i>Phalaropus labatus</i>
제비물떼새과	GLAREOLIDAE
*제비물떼새	<i>Glareola maldivarum</i>
갈매기과	LARIDAE

붉은부리갈매기	<i>Larus ridibundus sibiricus</i>
재갈매기	<i>Larus argentatus vagae</i>
큰재갈매기	<i>Larus schistisagus</i>
*갈매기	<i>Larus canus</i>
쇠제비갈매기	<i>Sterna albifrons</i>
괭이갈매기	<i>Larus crassirostris</i>
*검은머리갈매기	<i>Larus saundersi</i>
세가락갈매기	<i>Larus tridactylus</i>
제비갈매기	<i>Sterna hirundo</i>
바다오리과	ALCIDAE
바다쇠오리	<i>Brachyramphus marmoratus</i>
비둘기목	COLUMBIFORMES
비둘기과	COLUMBIDAE
양비둘기	<i>Columba rupestris</i>
멧비둘기	<i>Streptopelia orientalis</i>
*흑비둘기	<i>Columba janthina</i>
두견목	CUCULIFORMES
두견과	CUCULIDAE
빼꾸기	<i>Cuculus canorus</i>
매사춘	<i>Cuculus canorus</i>
두견이	<i>Cuculus poliocephalus</i>
병어리빼꾸기	<i>Cuculus saturatus</i>
올빼미목	STRIGIFORMES
올빼미과	STRIGIDAE
수리부엉이	<i>Bubo budo kiautschensis</i>
참부엉이	<i>Asio otus otus</i>
솔부엉이	<i>Ninox scutulata</i>
소쩍새	<i>Otus scops</i>
*큰소쩍새	<i>Otus bakkamoens</i>
올빼미	<i>Strix aluco</i>
쪽독새목	CAPRIMULGIFORMES
쪽독새과	CAPRIMULGIDAE
쪽독새	<i>Caprimulgus indicus</i>

칼새목	APODIFORMES
칼새과	APODIDAE
칼새	<i>Apus pacificus</i>
파랑새목	CORACIIFORMES
파랑새과	CORACIIDAE
파랑새	<i>Eurystomus orientalis</i>
물총새과	ALCEDINIDAE
물총새	<i>Alcedo atthis</i>
호반새	<i>Halcyon coromanda</i>
청호반새	<i>Halcyon pileata</i>
후투티과	UPUPIDAE
후투티	<i>Upupa epops</i>
딱다구리목	PICIFORMES
딱다구리과	PICIDEA
쇠딱다구리	<i>Dendrycopos kizuki</i>
오색딱다구리	<i>Dendrycopos major</i>
큰오색딱다구리	<i>Dendrycopos leucotos</i>
*청딱다구리	<i>Dendrycopos canus</i>
참새목	PASSERIFORMES
팔색조과	PIRRIDAE
팔색조	<i>Pitta brachyura</i>
빨종다리과	ALAUDIDAE
*빨종다리	<i>Galerida cristata</i>
종다리	<i>Alauda arvensis</i>
제비과	HIRUNDINIDAE
*갈색제비	<i>Riparia riparia</i>
제비	<i>Hirundo rustica</i>
귀제비	<i>Hirundo daurica</i>
할미새과	MOTACILLIDAE
물레새	<i>Dindronanthus indicus</i>
노랑할미새	<i>Motacilla cinerea</i>
알락할미새	<i>Motacilla alba leucopsis</i>
백할미새	<i>Motacilla alba ocularis</i>

검은등할미새	<i>Motacilla grandis</i>
HING새	<i>Anthus hodgsoni</i>
밭종다리	<i>Anthus spinoletta</i>
할미새사촌과	CAMPEPHAGIDAE
*할미새사촌	<i>Pericroctus devaricatus</i>
직박구리과	PYCNONOTIDAE
직박구리	<i>Hypsipetes amaurotis</i>
때까치과	LANIIDAE
때까치	<i>Lanius bucephalus</i>
췌때까치	<i>Lanius tigrinus</i>
노랑때까치	<i>Lanius cristatus</i>
여새과	BOMBYCILLIDAE
*황여새	<i>Bombycilla garrulus</i>
*홍여새	<i>Bombycilla japonica</i>
물까마귀과	CINCLIDAE
*물까마귀	<i>Cinclus pallasii</i>
굴뚝새과	TROGLODYTIDAE
굴뚝새	<i>Troglodytes troglodytes</i>
바위종다리과	PRUNELLIDAE
*바위종다리	<i>Prunella ciliaris</i>
*멧종다리	<i>Prunella montunella</i>
딱새과	MUSCICAPIDAE
울새	<i>Erithacus sibilans</i>
붉은가슴울새	<i>Erithacus akahige</i>
*진홍가슴	<i>Erithacus calliope</i>
쇠유리새	<i>Erithacus cyane</i>
유리딱새	<i>Erithacus cyanurus</i>
딱새	<i>Phoenicurus auroreus</i>
검은딱새	<i>Saxicola torquata</i>
흰눈썹지빠귀	<i>Turdus sibiricus</i>
호랑지빠귀	<i>Turdus dauma</i>
되지빠귀	<i>Turdus hortulorum</i>
흰배지빠귀	<i>Turdus pallidus</i>

*검은지빠귀	<i>Turdus cardis</i>
붉은배지빠귀	<i>Turdus chrysolaus</i>
노랑지빠귀	<i>Turdus namunanni</i>
개똥지빠귀	<i>Turdus naumanni eunomus</i>
붉은머리오목눈이	<i>Paradoxornis webbianus</i>
숲새	<i>Cettia squameiceps</i>
휘파람새	<i>Cettia diphone</i>
*붉은허리개개비	<i>Locustella fasciolata</i>
취발귀개개비	<i>Locustella lanceolata</i>
*쇠개개비	<i>Acrocephalus bistrigiceps</i>
*큰부리개개비	<i>Acrocephalus aedon</i>
개개비	<i>Acrocephalus arundinaceus</i>
*쇠솔새	<i>Phylloscopus borealis</i>
산솔새	<i>Phylloscopus occipitalis</i>
상모솔새	<i>Regulus regulus japonensis</i>
흰눈썹황금새	<i>Ficedula zanthopygia</i>
황금새	<i>Ficedula narcissina</i>
*솔딱새	<i>Muscicapa sibirica</i>
제비딱새	<i>Muscicapa griseistricata</i>
*쇠솔딱새	<i>Muscicapa latirostris</i>
노랑딱새	<i>Ficedula mugimaki</i>
큰유리새	<i>Cynopyila cyanomelana</i>
오목눈이	<i>Aegithalos caudatus</i>
바다직박구리	<i>Monticola solitarius</i>
섬개개비	<i>Locustella ochotensis pleskei</i>
삼광조	<i>Terpsiphone atrocaudata</i>
박새과	PARIDAE
박새	<i>Parus major</i>
진박새	<i>Parus ater</i>
쇠박새	<i>Parus palustris</i>
곤줄박이	<i>Parus varius</i>
동고비과	SITTIDAE
동고비	<i>Sitta europaea</i>

나무발발이과	CERTHIDAE
*나무발발이	<i>Certhia familiaris</i>
동박새과	SITTIDAE
동박새	<i>Zosterops japonica</i>
멧새과	EMBERIZIDAE
멧새	<i>Emberiza cioides</i>
쇠검은머리쭈새	<i>Emberiza yessoensis</i>
붉은뺨멧새	<i>Emberiza fucata</i>
쭈새	<i>Emberiza rustica</i>
노랑턱멧새	<i>Emberiza elegans</i>
꼬까참새	<i>Emberiza rutila</i>
무당새	<i>Emberiza sulphurata</i>
축새	<i>Emberiza spodocephala</i>
되새과	FRINGILLIDAE
되새	<i>Fringilla montifringilla</i>
방울새	<i>Carduelis sinica ussurien</i>
장박새	<i>Carduelis sinica</i>
검은머리방울새	<i>Carduelis spinus</i>
*홍방울새	<i>Acanthis flammea</i>
양진이	<i>Carpodacus rosea</i>
*솔갓새	<i>Loxia curvirostra</i>
긴꼬리홍양진이	<i>Uragus sibiricus</i>
*멧쟁이새	<i>Pyrrhula pyrrhula rosacea</i>
밀화부리	<i>Eophona migratoriu</i>
큰부리밀화부리	<i>Eophona personata</i>
콩새	<i>Coccothraustes coccothrastes</i>
참새과	PLOCEIDAE
참새	<i>Passer montanus</i>
찌르레기과	STURNIDAE
찌르레기	<i>Sturnus cineraceus</i>
쇠찌르레기	<i>Sturnus philippensis</i>
피꼬리과	ORIOLIDAE
피꼬리	<i>Oriolus chinensis</i>

까마귀과	CORVIDAE
어치	<i>Garrulus glandarius</i>
*물까치	<i>Cyanopica cyana</i>
까치	<i>Pica pica</i>
까마귀	<i>Corvus corone</i>
갈까마귀	<i>Corvus minedula</i>
떼까마귀	<i>Corvus frugilegus</i>
*큰부리까마귀	<i>Corvus macrorhynchos</i>
*잣까마귀	<i>Nucifraga caryocatactes</i>

3. 곤충

거제도의 곤충은 총 17목 199과 1,310종이 기록되어 이 지역은 상당히 풍부한 곤충 자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곤충의 목(目)별로는 나비목이 45과 663종으로 종수가 제일 많아 50.61%이고, 딱정벌레목이 38과 213종으로 16.26%이고, 벌목 17과 124종으로 9.47% 순위였고, 파리목, 노린재목, 매미목 순으로 종수가 많았다.

거제도의 곤충 목별현황(환경부, 1997년)

목	명	총	계	%
하루살이목	Eogeneriotea	4과	9종	0.69
잠자리목	Odonata	7과	24종	1.83
바퀴목	Blattaria	2과	2종	0.15
사마귀목	Mantodea	1과	1종	0.08
강도래목	Placoptera	3과	4종	0.31
집게벌레목	Dermaptera	3과	6종	0.46
메뚜기목	Drthoptera	8과	33종	2.52
대벌레목	Phasmida	1과	1종	0.08
노린재목	Hemiptera	20과	68종	5.19
매미목	Homoptera	19과	53종	4.05
풀잠자리목	Neuroptera	5과	8종	0.61
딱정벌레목	Coleoptera	38과	213종	16.26
벌목	Hymenoptera	17과	124종	9.47

목	명	총	계	%
밑들이목	Mecoptera	1과	1종	0.08
파리목	Diptera	19과	91종	6.95
날도래목	Tricoptera	6과	9종	0.69
나비목	Lepidoptera	45과	663종	50.61
합	계 17목	199과	1,310종	100.00

환경부(1993. 1. 18)가 지정한 특정 야생동·식물 곤충류 중에서 다음과 같이 9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딱정벌레목, 사슴벌레과의 톱사슴벌레 [*Prosopocoilus inclinatus inclinatus* (Motschulsky)]는 노자산, 산방산, 북병산에서, 장수풍뎅이과의 장수풍뎅이 [*Allomyrina dichotoma* (Linne)]는 노자산, 산방산, 북병산에서 비단벌레과의 소나무비단벌레 [*Chalcophora japonica* (Glory)]는 노자산, 동부면 구천리 망골 임산로에서 꽃무지과의 사슴풍뎅이 [*Dicranocephalus adamsi* Pascoe]는 북병산에서 하늘소과의 범하늘소 [*Chlorphorus diadema* (Motschulsky)]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비목, 팔랑나비과의 대왕팔랑나비 [*Satarupa nymphalis* (Speyer)], 호랑나비과의 청띠제비나비 [*Luehdorfia pusiloi* (Linné)]는 노자산과 공고지에서, 왕나비과의 왕나비 [*Parantica sita* (Kollar)]는 거제군 동부면 구천리 망골 임산로에서, 네발나비과의 왕오색나비 [*Sasakia charonda* (Hewiton)], 노자산에서 청띠제비나비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자연보존협회(1989)가 보고한 한국의 희귀 및 위기 동·식물 곤충류중에서 다음과 같이 2종이 조사되었다. 나비목, 네발나비과의 먹그림나비 [*Dichorragia nesimachus* (Boisduval)]는 산방산, 노자산에서 뱀눈나비과의 먹나비 [*Melanitis leda* (Linné)]가 기록되어 있다. 그외 관심이 주목되는 희귀종으로는 딱정벌레목, 하늘소과의 참나무하늘소 [*Batocera lineolata* Chevrolata]는 동부면 구천리 망골, 학동리 봉곡사주변과 칠천도에서 기록이 있다.

환경부(1993)가 지정한 특정 야생동·식물 곤충류중에 톱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소나무비단벌레, 사슴풍뎅이, 범하늘소, 대왕팔랑나비, 청띠제비나비, 왕나비와 왕오색나비가, 한국자연보존협회(1989)가 보고한 한국의 희귀 및 위기 동·식물 곤충류 중에 먹그림나비와 먹나비가 확인되었다. 그외 관심이 주목되는 종으로 참나무하늘소는 거제도가 북방 한계선으로 추정된다.

조사지역의 육상 곤충상 목록

Lepismatidae	좀科
<i>Ctenolepisma longicaudata</i>	좀
<i>Lepismachilis nipponica</i>	돌좀
Smynthuridae	톡토기科
<i>Bourletiella pruinosa</i>	톡토기
Ephemeridae	하루살이科
<i>Ephemera lineata</i>	하루살이
<i>Ephemera orientalis</i>	동양하루살이
<i>Ephemera strigata</i>	무늬하루살이
Siphonuridae	쌍꼬리하루살이科
<i>Siphonurus chankae</i>	날개하루살이
Ephemerellidae	알락하루살이科
<i>Ephemerella imanishi</i>	이마니시알락하루살이
<i>Drunella aculea</i>	뿔알락하루살이
<i>Drunella cryptomeria</i>	알통알락하루살이
<i>Serratella rufa</i>	등줄빛살알락하루살이
<i>Serratella setigera</i>	빛살알락하루살이
Baetidae	꼬마하루살이科
<i>Baetis thermicus</i>	꼬마하루살이
<i>Choroiterpes trifurcata</i>	세줄밤색하루살이
<i>Cloeon dipterum</i>	두날개꼬마하루살이
<i>Ecdyonurus</i>	꼬리하루살이
<i>Ecdyonurus kibunensis</i>	개꼬리하루살이
<i>Ecdyonurus yoshidae</i>	요시다꼬리하루살이
<i>Epeorus curvatulus</i>	큰흰꼬리하루살이
<i>Epeorus latifolium</i>	흰꼬리하루살이

<i>Heptagenia kihaga</i>	참꼬리하루살이
Calopterygidae	물잠자리科
<i>Calopteryx virgo</i>	물잠자리
<i>Calopteryx atrata</i>	검은물잠자리
Agionidae	실잠자리科
<i>Ceriagrion melanulum Selys</i>	노랑실잠자리
<i>Copera annulata Selys</i>	넓적다리실잠자리
<i>Ischnura asiatica Brauer</i>	아시아실잠자리
Lestidae	청실잠자리科
<i>Sympecma paedisca</i>	묵은실잠자리
<i>Ceylonolestes gracilis</i>	가는묵은실잠자리
Gomphidae	부채장수잠자리科
<i>Trigomphus citimuso</i>	가시측범잠자리
<i>Gomphus ocuiatus</i>	안경잡이측범잠자리
Cordulegasteridae	장수잠자리科
<i>Anotogaster sieboldii</i>	장수잠자리
Libellulidae	잠자리科
<i>Crocothemis servilia</i>	고추잠자리
<i>Pantala flavescens</i>	된장잠자리
<i>Epophthalmia elegans</i>	산잠자리
<i>Orthetrum albistylum speciosum</i>	밀잠자리
<i>Orthetrum japonicum</i>	중간밀잠자리
<i>Orthetrum triangulare melania</i>	큰밀잠자리
<i>Sympetrum baccha matutinum</i>	깃동잠자리붙이
<i>Sympetrum ignotum</i>	두눈박이좁잠자리
<i>Sympetrum infuscatum</i>	깃동잠자리
<i>Sympetrum kunkeli</i>	흰얼굴좁잠자리

<i>Sympetrum pedemontanum elatum</i>	노랑띠좀잠자리
<i>Sympetrum uniforme</i>	진노랑잠자리
<i>Sympetrum frequense Selys</i>	고추좀잠자리
<i>Sympetrum darwinianum Selys</i>	여름좀잠자리
Aeschnidae	왕잠자리科
<i>Anax parthenope</i>	왕잠자리
Tingitidae	방패벌레科
<i>Stephanitis nashi</i>	배나무방패벌레
<i>Tingis popugi</i>	버들방패벌레
Perlidae	강도래科
<i>Kamimuria tibialis</i>	강도래
<i>Paragnetina tinctipennis</i>	노랑다리강도래
Nemouridae	민강도래科
<i>Nemoura sagittata Okamoto</i>	민강도래
Locustidae	메뚜기科
<i>Acrida cinerea</i>	방아깨비
<i>Gelastorrhinus bicolor</i>	딱따기
<i>Euprepocnemis shirakii</i>	등검은메뚜기
<i>Atractomorpha bedeli</i>	섬서메뚜기
<i>Mongolotettix japonicus</i>	삽사리
<i>Podisma sapporensis</i>	밑드리메뚜기
<i>Trilophidia velnerata</i>	두꺼비메뚜기
<i>Oxya velox</i>	벼메뚜기
<i>Locusta danica</i>	풀무치
Tettigidae	모메뚜기科
<i>Acrydium japonicum</i>	모메뚜기

<i>Tettigoniidae</i>	여치科
<i>Gampsocleis sedakovi obscura</i>	여치
<i>Holochora japonica</i>	베짱이붙이
<i>Stenopelmatidae</i>	뽕등이科
<i>Diestrammena apicalis</i>	뽕등이
<i>Gryllidae</i>	귀뚜라미科
<i>Scapsipedus aspersus</i>	귀뚜라미
<i>Oecanthus longicauda</i>	긴꼬리
<i>Gryllodes sigillatus</i>	희시무르귀뚜라미
<i>Loxoblemmus arietulus</i>	알락귀뚜라미
<i>Blattidae</i>	바퀴科
<i>Blattella germanica</i>	바퀴
<i>Blattella niponica</i>	산바퀴
<i>Blattella orientalis</i>	잔날개바퀴
<i>Anisolabiidae</i>	등근가슴집게벌레科
<i>Anisolabis maritima</i>	집게벌레
<i>Euborellia pallipes</i>	노랑다리집게벌레
<i>Forficulidae</i>	집게벌레科
<i>Forficula mikado</i>	노랑날개집게벌레
<i>Forficula scudderi</i>	못뽑이집게벌레
<i>Nitidulidae</i>	밀빠진벌레科
<i>Libroder japonicas Motschulsky</i>	네눈박이밀빠진벌레
<i>Soronia fracta Reitter</i>	큰납작밀빠진벌레
<i>Cercopidae</i>	거품벌레科
<i>Petaphora maritima</i>	갈잎거품벌레
<i>Aphrophora costaris</i>	거품벌레

<i>Aphrophora flavipes</i>	솔거품벌레
Caxiidae	장삼벌레科
<i>Oliarus apicalis</i>	장삼벌레
Termitidae	흰개미科
<i>Leucotermes Speratus Kolbe</i>	흰개미
Cicadidae	매미科
<i>Cryptotympana dubia</i>	말매미
<i>Suisha coreana Matsumura</i>	늦털매미
<i>Meimuna mongolica</i>	쓰름매미
<i>Graptosaltria nigrofuscata</i>	유지매미
<i>Meimuna opalifera</i>	애매미
<i>Oncotympana coreana</i>	참매미
<i>Platypleura kaempferi</i>	털매미
Cercopidae	귀머리거품벌레科
<i>Tilophora flaviper Uhler</i>	솔거품벌레
Jassidae	매미충科
<i>Nephotettix concticeps</i>	끝동매미충
<i>Recilia dorsalis</i>	번개매미충
<i>Cicadula fasciifrons</i>	쌍점매미충
<i>Bothrogonia japonica</i>	끝검은말매미충
<i>Cicadella viridis</i>	말매미충
<i>Kolla semiglauca</i>	줄친말매미충
<i>Penthimia dorsimaculata</i>	노랑무늬넓적매미충
Membracidae	뿔매미科
<i>Machaerotypus sibiricusticus</i>	외뿔매미
Plataspidae	알노린재科

<i>Coptosoma biguttulum</i>	눈박이알노린재
<i>Coptosoma vijurium</i>	알노린재
Pentatomidae	
<i>Nezara antennata</i>	풀노린재科
<i>Halymorpha brevis</i>	노린재
<i>Dolycoris baccarum</i>	썩덩나무노린재
<i>Nezara antennata</i>	알락수염노린재
<i>Graphosoma rubrolineatum</i>	풀노린재
<i>Acanthosoma crassicauda</i>	홍줄노린재
<i>Acanthosoma forficula</i>	굵은가위빨노린재
<i>Aelia fieberi</i>	녹색가위빨노린재
<i>Arma chinensis</i>	메추리노린재
<i>Arma custos</i>	지나주둥이노린재
<i>Carbula putoni</i>	갈색주둥이노린재
<i>Carpocoris purpurcipennis</i>	가시노린재
<i>Dalpada nigricorllis</i>	보라노린재
<i>Dinorhynchus dybowskyi</i>	다리무늬두흰점노린재
<i>Pinthaeus sangumipes (Fabricius)</i>	왕주둥이노린재
<i>Elasmucha putoni</i>	홍다리주둥이노린재
<i>Eurydema rugosa</i>	푸토니빨노린재
<i>Eurydema pulchra Westwood</i>	비단노린재
<i>Carpocoris Purpureipennis De Geer</i>	각시비단노린재
<i>Eurydema sexpunctatum</i>	홍보라노린재
<i>Eurygaster sinica</i>	북쪽비단노린재
<i>Eysarcoris guttiger</i>	도토리노린재
<i>Eysarcoris parvus</i>	점박이등글노린재
<i>Eysarcoris ventralis</i>	가시점등글노린재
<i>Homalogonia obtusa</i>	배등글노린재
<i>Lelia decempunctata</i>	네눈박이노린재
<i>Menida violacera</i>	열점박이노린재
<i>Palomena angulosa</i>	깜보라노린재
<i>Pentatoma semiannulata</i>	북방풀노린재
	장흙노린재

<i>Picromerus lewisi</i>	주둥이노린재
<i>Placosternum alces</i>	얼룩대장노린재
<i>Plautia crossata</i> var. <i>stali</i>	갈색날개노린재
<i>Rubiconia intermedia</i>	애기노린재
<i>Sastragala esakii</i>	에사키뿔노린재
<i>Zicroma caerulea</i>	남색주둥이노린재
Acanthosomatidae	뿔노린재科
<i>Acanthosoma labiduroides</i> Jakovlev	긴가위뿔노린재
<i>Acanthosoma crassicauda</i> Jakovlev	굵은가위뿔노린재
<i>Elasmucha dorsalis</i>	꼬마뿔노린재
<i>Elasmucha putoni</i>	푸토니뿔노린재
Phyllocephalidae	억새노린재科
<i>Gonopsis affinis</i>	억새노린재
Urostylidae	참나무노린재科
<i>Urochela tunglingensis</i>	애두쌍무늬노린재
<i>Urostylis annulicornis</i>	작은주걱참나무노린재
Coreidae	허리노린재科
<i>Riptortus clavatus</i>	툽다리개미허리노린재
<i>Cletus rusticus</i>	시골가시허리노린재
<i>Cletus schmidtii</i>	우리가시허리노린재
<i>Cletus trigonus</i> (Thunberg)	벼가시허리노린재
<i>Colpura lativentris</i>	떼허리노린재
<i>Molipteryx fuliginosa</i>	큰허리노린재
<i>Anoplocnemis dallasi</i>	장수허리노린재
<i>Homoecerus dilatatus</i>	넓적배허리노린재
<i>Acanthocoris sordidus</i>	파리허리노린재
<i>Mesocerus marginatus</i>	허리노린재
Berytidae	실노린재科

<i>Yemma exilis</i>	실노린재
<i>Pachygrontha antennata</i> (Uhler)	더듬이긴노린재
Rhopalidae	
<i>Rhoplus sapporensis</i>	잡초노린재科
<i>Rhoplus (Aedchynteles) maculatus</i>	삿포로잡초노린재
<i>Stictoplerus crassicornis</i>	붉은잡초노린재
<i>Lioryssus hyalinus</i> Fabricius	흑다리잡초노린재
	투명잡초노린재
Lygaeidae	
<i>Pachygroritha antennataantennata</i>	긴노린재科
<i>Arocatus sericans</i>	더듬이긴노린재
<i>Piocoris varius</i>	둘레빨강긴노린재
<i>Togo hemipterus</i>	큰딱부리긴노린재
<i>Tropidothorax cruciger</i>	미디표주박긴노린재
<i>Paromius exiguus</i> Distant	십자무늬긴노린재
<i>Rhyparochromus albomaculatus</i> Scott	흑다리긴노린재
	흰무늬긴노린재
Pyrrhocoridae	
<i>Pyrrhocorist tibialis</i> Stal	별노린재科
	땅별노린재
Reduviidae	
<i>Hamatoloecha rufithorax</i>	침노린재科
<i>Pirates cinctiventris</i>	붉은등침노린재
<i>Pirates turpis</i> Walker	검정침노린재
<i>Spedanolestes impressicollis</i>	검정무늬침노린재
<i>Cydnocoris russatus</i> Stal	다리무늬침노린재
	고추침노린재
Miridae	
<i>Trichophoroncus albonotatus</i> Jakovlev	장님노린재科
<i>Adelphocoris triannulatus</i>	네무늬장님노린재
<i>Creontiades pallidifer</i>	설상무늬장님노린재
<i>Proboscidocoris malayus</i>	날개홍선장님노린재
	큰흰털검정장님노린재

<i>Orthocephalus funestus</i>	암수다른장님노린재
<i>Polymerus pekinensis</i> Horvath	폐킨장님노린재
Coccidae	
<i>Ceroplastes pseudoceriferus</i>	각지벌레科
<i>Ceroplastes rubens</i>	빨밀각지벌레
<i>Chrysomphalus dictyospermi</i>	루비각지벌레
<i>Comstockaspis perniciososa</i>	귤각지벌레
<i>Crisicoccus pini</i>	센호제각지벌레
<i>Dysmicoccus cuspidata</i>	소나무가루각지벌레
<i>Eriopeltis festucae</i>	배나무각지벌레
<i>Sepidisaphes conchiformicoides</i>	숨각지벌레
<i>Lepidosaphes ulmi</i>	배굴각지벌레
<i>Liphileucaspis japonica</i>	사과굴각지벌레
<i>Parlatoria theae</i>	배나무각지벌레
<i>Planococcus citri</i>	차나무점각지벌레
<i>Pseudococcus comstocki</i>	귤가루각지벌레
<i>Pseudaulacaspis pentagona</i>	가루각지벌레
	뽕나무각지벌레
Silphidae	
<i>Necrophorus japonicus</i>	송장벌레科
<i>Tanatophilus rugosus</i> (Linne)	송장벌레
<i>Calosilpha brunneicollis</i>	곰보송장벌레
<i>Promascopeus morio</i> Kraatz	대모송장벌레
<i>Nicrophorus quadripunctatus</i>	꼬마검정송장벌레
	넉점박이송장벌레
Temnochilidae	
<i>Tenebroides macuritanicus</i>	쌀도둑科
	쌀도둑
Gerridae	
<i>Aquarius polludum</i>	소금쟁이科
<i>Metrocoris histrio</i>	소금쟁이
	광대소금쟁이

Belostomatidae	물장군科
<i>Dilonychus japonicus</i> Vullefroy	물자라
Notonectidae	송장헤엄치개科
<i>Notonecta triguttata</i>	송장헤엄치개
Corydalidae	뱀잠자리科
<i>Protohermes grandis</i>	뱀잠자리
Ascalaphidae	뿔잠자리科
<i>Hybris subjacans</i>	뿔잠자리
<i>Ascalaphus sibilicus</i> Eversmann	노랑뿔잠자리
Hemerobiidae	뱀잠자리붙이科
<i>Eumicromus numerosus</i>	뱀잠자리붙이
Crysopidae	풀잠자리科
<i>Chrysopa intima</i>	풀잠자리
<i>Nothochrysa japonica</i>	등빨간풀잠자리
Myrmeleonidae	명주잠자리科
<i>Hagenomyia micans</i>	명주잠자리
Cossidae	꿀벌레나방科
<i>Zeuzera leuconotum</i>	깨다시꿀벌레나방
Pyrallidae	명나방科
<i>Diptychophora suppressalis</i>	이화명나방
<i>Ostrinia furnacalis</i>	조명나방
<i>Cnaphalocrocis medinalis</i>	흑들명나방
<i>Plodia interpunctella</i>	화랑곡나방
<i>Dichocrocis punctiferalis</i>	복숭아들명나방
<i>Ectomyelois pyrivorella</i>	배명나방

<i>Maruca testlais</i> Geyer	콩들명나방
<i>Brakina admixtalis</i> Walker	외줄들명나방
<i>Teliphasa amica</i> Butleer	흰무늬집명나방
<i>Syllepta balteata</i> Fabricius	상수리들명나방
Zygaenidae	알락나방科
<i>Chalcusia remota</i>	뒤흰띠알락나방
<i>Pidorus glaucopis</i>	흰띠알락나방
Cochlidionidae	췌기나방科
<i>Narosoiceus flavidorsalis</i>	배나무췌기나방
<i>Cnidocampa flavescens</i>	노랑췌기나방
<i>Parasa sinica</i>	뒷검은푸른췌기나방
Derpanidae	갈고리나방科
<i>Drepana curvatula acuta</i> Butler	밤색갈고리나방
<i>Agnidra scabiosa fixseni</i> Bryx	참나무갈고리나방
Geometridae	자나방科
<i>Percnia albinigrata</i>	알락흰가지나방
<i>Angerona prunaria</i>	오얏나무가지나방
<i>Bapiria tibiale mychioleuca</i>	흰띠큰물결자나방
<i>Comibaena argentataria</i>	쌍눈푸른자나방
<i>Epirrhoe supergressa albigressa</i>	두줄물결자나방
<i>Euctenyraapteryx maculicaudaria</i>	흰띠제비가지나방
<i>Grandaritis fixseni magnifica</i>	큰노랑물결자나방
<i>Percnia albinigrata albinigrata</i>	큰알락가지나방
<i>Thinopteryx crocoptera coreae</i>	알락제비가지나방
<i>Xandrames dholaria sericea</i>	흰띠왕가지나방
<i>Comibaena amoenaria</i> Oberthur	네점푸른자나방
<i>Semibaena hebeata</i> Walker	세점점가지나방
<i>Phthonosema tendinosaria</i> Bremer	빨무늬큰가지나방
<i>Culcula panterinaria</i> Bremer et Grey	노랑꼬리알락가지나방

<i>Pseudostegania defectata</i> Christoph	노랑물결자나방
Drepanidae	갈구리나방科
<i>Cyclidia substigmata nigralbata</i>	왕인갈구리나방
Thyatiridae	뽕족날개나방科
<i>Habrosyne pyritoides</i>	흰줄뽕족날개나방
Lasiocampidae	솔나방科
<i>Dendrolimus spectabilis</i>	솔나방
<i>Philudoria albomaculata</i>	대나방
<i>Gastropacha populifolia</i>	버들나방
<i>Gastropacha quercifolia cerridifolia</i>	배버들나방
<i>Paralebeda femorata</i> Menetries	대만나방
Lymantriidae	독나방科
<i>Euproctis flava</i>	독나방
<i>Arctornis alba</i>	알바독나방
<i>Lymantria dispar chosonensis</i>	매미나방
<i>Numenes disponlic</i>	흰띠독나방
<i>Lymantria bantaizana</i> Matsumura	취색매미나방
<i>Pida nipponis</i> Butler	파디독나방
Notodontidae	하늘나방科
<i>Sptaliodes doerriesi</i> Graeser	은무늬하늘나방
<i>Clostera anachoreta</i> Fabrieius	꼬마버들하늘나방
<i>Dudusa sphingiformis</i>	스핀하늘나방
<i>Nadata cristata</i>	곶추하늘나방
<i>Phalera assimilis</i>	참나무하늘나방
<i>Phalera flavescens</i>	장미과하늘나방
<i>Rosama ornata</i>	각시하늘나방
<i>Tarsolepis japonica</i>	왕하늘나방
<i>Uropyia meticulodina</i>	기생하늘나방

Noctuidae	밤나방科
<i>Dermaleipa juno</i>	무궁화밤나방
<i>Speiredonia retorta</i> Clerck	태극나방
<i>Amphipyra livida</i>	까마귀밤나방
<i>Catocala electa</i>	회색뿔붉은나방
<i>Catocala jonasii</i>	조나시뿔노랑나방
<i>Edessena hamada</i> C. et R. Felder	쌍복판눈수염나방
<i>Oraesia lata</i>	큰갈구리밤나방
<i>Pangrapta obscurata</i>	검은끝짚름나방
<i>Sphragifera bipiaga</i>	꼬마봉인밤나방
<i>Parallelia maturata</i>	보라끝빨름나방
<i>Pyrrhia umbra</i>	그늘밤나방
<i>Plusia purissima</i>	은무늬윗날개나방
<i>Mythimma turca</i>	쌍띠밤나방
<i>Apatele leucocuspis</i>	뿔무늬저녁밤나방
<i>Mocis ancilla</i>	구름꼬마무늬나방
<i>Catocala actaea</i>	꼬마뒤나방
<i>Plusia festata</i> Greaser	벼은무늬윗날개나방
<i>Oraesia lata</i> Butler	큰갈고리밤나방
<i>Apatele major</i> Bremer	왕뿔무늬저녁밤나방
<i>Apatele incretata</i> Hampson	사과저녁나방
<i>Erebus crepuscularis</i> Linne	왕흰줄태극나방
Agaristidae	얼룩나방科
<i>Seudyra subflava</i>	뿔노랑얼룩나방
<i>Seudyra venusta</i>	기생얼룩나방
<i>Mimeusemia persimilis</i> Butler	애기얼룩나방
Amatidae	애기나방科
<i>Amata germana</i> Felder	애기얼룩나방
Arctiidae	불나방科
<i>Miltochrista striata</i>	홍줄불나방

<i>Ilema degernerella</i>	흰불나방
<i>Collimorpha histrio histrio</i>	흰무늬왕불나방
<i>Miltochrista miniata</i>	주홍테불나방
<i>Miltochrista pulchra</i>	알락주홍불나방
<i>Spilarctia seriatopunctata</i>	줄점불나방
<i>Spilosoma menthastri</i>	점불나방
<i>Eilema griseola</i> Hubner	노랑테불나방
<i>Spilosoma lubricipeda</i> Linne	배점무늬불나방
<i>Spilosoma nivea</i> Menetries	흰제비불나방
<i>Spilosoma lutea</i> Hufnagel	외줄점뿔나방
<i>Spilosoma subcarnea</i> Walker	베붉은흰불나방
Saturniidae	산누에나방科
<i>Antheraea yamami</i>	참나무산누에나방
<i>Dictyoploca japonica</i>	밤나무산누에나방
<i>Actias artemis artemis</i>	긴꼬리산누에나방
Yponomeutidae	집나방科
<i>Plutella xylostella</i>	배추좀나방
Acrolepiidae	과즙나방科
<i>Acrolepiopsis sapporensis</i>	과즙나방
Hepialidae	박쥐나방科
<i>Endoclyta excrescens</i>	박쥐나방
Tortricidae	잎말이나방科
<i>Grapholita molesta</i>	복숭아순나방
<i>Spilonota lechriaspis</i>	사과순나방
<i>Archipis adumbratana</i>	사과잎말이나방
Carposinidae	심식나방科
<i>Carposina niponensis</i>	복숭아심식나방

Stathmopodidae	감꼭지나방科
<i>Stathmopoda masinissa</i>	감꼭지나방
Gdlechiidae	빨나방科
<i>Sitotroga cerealella</i>	보리나방
<i>Brachmia macroscopae</i>	고구마빨나방
Bombycidae	누에나방科
<i>Bombyx mori</i>	누에나방
Sphingidae	박각시科
<i>Agrius convolvuli</i>	박각시
<i>Acherontia styx</i>	털박각시
<i>Acherontia styx crathis</i>	탈박각시
<i>Ampelophaga rubiginosa</i>	머루박각시
<i>Callambulyx tatarinovii</i>	녹색박각시
<i>Clanis undulosa</i>	무늬콩박각시
<i>Gureloa himachala</i>	애벌꼬리박각시
<i>Hemaris fuciformis</i>	검정 황나꼬리박각시
<i>Macroglossium stellatarum</i>	꼬리박각시
<i>Marumba gaschkewitschii</i>	분홍등줄박각시
<i>Psilogramma increta</i>	큰쥐박각시
<i>Theretra japonica</i>	줄박각시
<i>Sphinx ligustri</i>	줄홍색박각시
<i>Kolbina tancrei</i>	물결박각시
<i>Pergesa elpenor</i> Linne	주홍박각시
<i>Theretra oldenlundiae</i> Fabricius	세줄박각시
<i>Rhages mongoliana</i> Butler	우단박각시
<i>Maganoton scribae</i> Astant	쥐박각시
<i>Clanis bilineata</i> Walker	콩박각시
<i>Parum colligata</i> Walker	닥나무박각시
<i>Hyloicus caliginus</i> Butler	솔박각시
<i>Marumba spechius</i> Menetries	등줄박각시

Smerinthus planus Walker

뱀눈박각시

Hesperidae

팔랑나비科

Parnara guttata

줄점팔랑나비

Acromachus inachus

글라이더팔랑나비

Choaspes benjaminii japonica

푸른큰수리팔랑나비

Daimio tethys

왕자팔랑나비

Erynnis montanus

멧팔랑나비

Isoteinon lamprospilus

지이산팔랑나비

Leptalina unicolor

은줄팔랑나비

Ochlodes ochracea

검은테떠들썩팔랑나비

Ochlodes subhyalina Bremer et Grey

유리창떠들썩팔랑나비

Ochlodees venata

수풀떠들썩팔랑나비

Pelopidas jansonis

산줄점팔랑나비

Pyrgus maculatus

흰점팔랑나비

Thymelicus sylvaticus

수풀꼬마팔랑나비

Heterropterus morpheus Pallas

돈무늬팔랑나비

Papilionidae

호랑나비科

Papilio xuthus

호랑나비

Papilio machaon

산호랑나비

Papilio boampr

제비나비

Papilio maackii

산제비나비

Papilio macilentus

긴꼬리제비나비

Sericinus telamon

꼬리명주나비

Atrophaneura alcinous

사향제비나비

Parnassius stubbendorfi

모시나비

Pieridae

흰나비科

Pieris rapae

배추흰나비

Pieris xutnus

호랑나비

Colias hyale

노랑나비

Eurema laeta

극남노랑나비

제1편 자연

<i>Eurema hecabe</i>	남방노랑나비
<i>Anthocaris scolymus Butler</i>	갈구리나비
<i>Pieris(Artogeia) melete</i>	큰줄흰나비
<i>Pieris canidia</i>	대만흰나비
<i>Gonepteryx aspasia Menetries</i>	각시뱀노랑나비
Lycaenidae	부전나비科
<i>Everes argiades</i>	암떡부전나비
<i>Celastrina argiolus</i>	푸른부전나비
<i>Lycaena phlaeas chinensis</i>	작은주홍부전나비
<i>Plebejus argus</i>	부전나비
<i>Niphanda fusca</i>	담흑부전나비
<i>Rapala caerulea</i>	범부전나비
<i>Zizera maha</i>	남방부전나비
<i>Ahlbergia ferra</i>	췌빛부전나비
<i>Taraka hamada</i>	바둑돌부전나비
Satyridae	뱀눈나비科
<i>Minois dryas</i>	굴뚝나비
<i>Ypthima argus</i>	애물결나비
<i>Ypthima motschulski</i>	물결나비
<i>Lethe diana</i>	먹그늘나비
<i>Mycalesis gotama</i>	부치나비
<i>Mycalesis perdiccus</i>	부치사촌나비
<i>Kirinia epimenides</i>	알락그늘나비
<i>Melanargia halimede Menetries</i>	흰뱀눈나비
<i>Lethe marginalis Motschulsky</i>	먹그늘나비붙이
<i>Pararge achine Scopoli</i>	눈많은그늘나비
Libytheidae	빨나비科
<i>Libythea celtis celtoides</i>	빨나비
Nynphalidae	네발나비科

<i>Apatura ilia</i>	오색나비
<i>Kaniska canace</i>	청띠신선나비
<i>Neptis aceris intermedia</i>	애기세줄나비
<i>Argynnis sagana</i>	암검은표범나비
<i>Argyronome laodice</i>	흰줄표범나비
<i>Mellicta athalia Rottemburgh</i>	어리표범나비
<i>Clossiana selene</i>	작은은점선표범나비
<i>Dichorragia nesimachus</i>	먹그림나비
<i>Dilipa fenestra</i>	유리창나비
<i>Hestina japonica</i>	흑백알락나비
<i>Limenitis camilla</i>	줄나비
<i>Limenitis helmanni</i>	제일줄나비
<i>Polygonia c-aureum</i>	네발나비
<i>Sasakia charonda</i>	왕오색나비
<i>Sephisa princeps</i>	대왕나비
<i>Argynnis papphia</i>	은줄표범나비
<i>Argynnis adippe Linne</i>	은점표범나비
<i>Neptis(Paranepetes) rivalaris</i>	두줄나비
<i>Neptis philyrodies</i>	참세줄나비
<i>Polygonia c-aureum</i>	남방C-알뿔나비
<i>Adolias schrenckii</i>	은판나비
<i>Chitoria ulupi</i>	수노랑나비
<i>Neptis pryeri Butler</i>	별박이세줄나비
<i>Vanessa indica Herbst</i>	큰멋쟁이나비
<i>Hestina assimilis Linne</i>	홍점알락나비
Stenopsychidae	각날도래科
<i>Stenopsyche griseipennis Mclachlan</i>	수염치레각날도래
Hydropsychidae	줄날도래科
<i>Cheumatopsyche brevilineata</i>	꼬마줄날도래
<i>Hydropsyche KUd</i>	줄날도래

Rhyacophilidae	물날도래과
<i>Rhyacophila bilobata</i>	두앞물날도래
<i>Rhyacophila shikotsuensis</i>	민무늬물날도래
Glossosomatidae	광택날도래과
<i>Glossosoma KUa</i>	광택날도래
Limnephilidae	우묵날도래과
<i>Hydatophylax nigrovittatus</i>	띠무늬우묵날도래
Cicindelidae	길앞잡이과
<i>Cicindela chinensis</i>	길앞잡이
<i>Cicindela gemmata</i>	아이누길앞잡이
<i>Cicindela japonica</i>	비단길앞잡이
Carabidae	딱정벌레과
<i>Carabus japonicus</i>	마야산딱정벌레
<i>Carabus procerulus</i>	큰검은딱정벌레
<i>Coptolabrus jankowskii</i>	양코스기딱정벌레
<i>Coptolabrus smaragdinus</i>	홍단딱정벌레
<i>Epomis nigricans</i>	큰노란테면지벌레
<i>Eucarabus sternbergi</i>	줄무늬딱정벌레
<i>Calosoma maximowoczi Morawitz</i>	검정명주딱정벌레
<i>Eucarabus sternberg Roeschke</i>	스테른베그딱정벌레
Harpalidae	먼지벌레과
<i>Brachinus scotomedes</i>	큰목가는먼지벌레
<i>Cahlaenius virgulifer</i>	큰무늬먼지벌레
<i>Patrabus sp.</i>	지리산노란먼지벌레
<i>Pheropsophus jessoensis</i>	폭탄먼지벌레
<i>Nebria livida lateralis Fabricius</i>	노란가슴선두리먼지벌레
<i>Calathus halensis Schaller</i>	등빨간먼지벌레
<i>Macrochlaeniles costiger Chaudoir</i>	줄먼지벌레

<i>Chlaenius vigulifer</i> Chaudoir	끝무늬먼지벌레
<i>Chlaenius naeviger</i> Morawitz	쌍무늬먼지벌레
Brachinidae	폭탄먼지벌레科
<i>Brachinus scotomedes</i>	큰목가는먼지벌레
<i>Pheropsophus jessoensis</i>	폭탄먼지벌레
Gyrinidae	물땀이科
<i>Gyrinus japonicus</i>	물땀이
Staphylinidae	반날개科
<i>Philonthus japonicus</i> Sharp	좀반날개
Dytiscidae	물방개科
<i>Cybister japonicus</i>	물방개
<i>Rhantus pulverosus</i> Stephans	애기물방개
<i>Hydaticus grammicus</i> Germers	꼬마줄물방개
<i>Laccophilus sharpi</i> Regimbalt	샤아푸개알물방개
<i>Hydaticus bowringi</i> Clark	줄무늬물방개
<i>Graphyderes adamsi</i> Clark	아담스물방개
<i>Erectes sticticus</i>	재물방개
Hydrophilidae	물땡땡이科
<i>Hydrous acuminatus</i>	물땡땡이
<i>Sternolophus rufipes</i> Fabricius	애물땡땡이
Lucanidae	사슴벌레科
<i>Lucanus maculifemoratus</i>	사슴벌레
<i>Macrodercus rectus</i>	애사슴벌레
<i>Prosopocoilus inclinatus</i>	툽사슴벌레
<i>Serrognathus titanus castanicolor</i>	넓적사슴벌레
Scarabaeidae	소똥구리科

<i>Onthophagus solivagus</i> Harold	노랑무늬소똥풍뎅이
<i>Onthophagus lenzii</i> Harold	렌지소똥풍뎅이
<i>Onthophagus fodiens</i> Harold	모가슴소똥풍뎅이
<i>Onthophagus atripennis</i> Harold	흑가슴소똥풍뎅이
Melolonthidae	검정풍뎅이과
<i>Apogonia cupreoviridis</i> (Kolbe)	감자풍뎅이
<i>Gastroserica herzi</i> Heyden	참줄우단풍뎅이
<i>Holotrichia kiotoensis</i> Brenske	검정풍뎅이
Dynastidae	장수풍뎅이과
<i>Eophileurus chinensis</i> (Falderman)	외뿔장수풍뎅이
Scarabaeidae	풍뎅이과
<i>Mimela splendens</i>	풍뎅이
<i>Aphodius rectus</i>	똥풍뎅이
<i>Popillia indigomacea</i>	콩풍뎅이
<i>Maladera japonica</i>	우단풍뎅이
<i>Anomala albopilosa</i>	청동풍뎅이
<i>Anomala corpulenta</i>	다색줄풍뎅이
<i>Anomala sieversi</i> Hdyden	대마도줄풍뎅이
<i>Anomala viridana</i> Kolbe	애청동풍뎅이
<i>Brahmina rubestra fuldermanni</i>	필더맨홍다리풍뎅이
<i>Datosia aerata</i>	점박이풍뎅이
<i>Holotrichia titanis</i>	검정풍뎅이
<i>Holotrichia titanis</i>	큰다색줄풍뎅이
<i>Lasiotrichius succinctus</i>	호랑꽃무지
<i>Liatongus phanaeoides</i>	창뿔소똥구리
<i>Mimela fusania</i>	부산풍뎅이
<i>Onthophagus atipennis</i>	분이똥풍뎅이
<i>Onthophagus bivertex</i>	물소뿔똥풍뎅이
<i>Oxycetonia jucunda</i>	풀색꽃무지
<i>Protaetia lewisi</i> (Janson)	녹동색점박이꽃무

<i>Popillia atrocoerulea</i>	흰점박이콩풍뎅이
<i>Serica castanae</i>	밤색우단풍뎅이
<i>Serica formosa</i>	대만우단풍뎅이
<i>Serica gibhiventris</i>	주홍배우단풍뎅이
<i>Serica septentrionalis</i>	참우단풍뎅이
<i>Adoretus tenuimaculatus</i>	주동무늬차색풍뎅이
<i>Blitopertha conspurcata</i>	어깨무늬풍뎅이
<i>Blitopertha orientalis</i>	등얼룩무늬풍뎅이
<i>Onthophagus fodiens</i>	모본이풍뎅이
<i>Anomala chamaeleon</i>	카메레온풍뎅이
<i>Phyllopertha pallidipennis</i>	연노랑풍뎅이
<i>Phyllopertha pallidipennis</i>	농자색풍뎅이
<i>Popillia atrocoerulea</i>	참콩풍뎅이
<i>Popillia japonica Newman</i>	왜콩풍뎅이
<i>Apogonia cupreoviridis Kolbe</i>	감자풍뎅이
<i>Lachnoterna morosa Waterhouse</i>	큰검정풍뎅이
<i>Sophrops heydeni Brenske</i>	하이덴줄풍뎅이
<i>Trichius succinctus Pallas</i>	범꽃무지
<i>Protaetia brevitarsis Lewis</i>	흰점박이꽃무지
<i>Dicranocephalus adamsi Pascoe</i>	사슴풍뎅이
Buprestidae	비단벌레科
<i>Chrysoboyhris succedanea</i>	육점박이비단벌레
<i>Chrysoboyhris fulgidissima</i>	비단벌레
Elateridae	방아벌레科
<i>Lacon binodulus</i>	녹슬은방아벌레
<i>Paralacon argiliaceous Solsky</i>	대유동방아벌레
<i>Silesis musculus</i>	주둥이방아벌레
<i>Tetrigus lewisi</i>	루이스방아벌레
<i>Melanotus annosue Candeze</i>	젓털빛살수염방아벌레
<i>Salatosomus punctcollis</i>	청동방아벌레

Lamphyridae	반딧불붙이科
<i>Luciola lateralis</i>	애반딧불붙이
Erotylidae	버섯벌레科
<i>Episcapha flavofasciata</i>	무늬버섯벌레
Coccinellidae	무당벌레科
<i>Epilachna spasta</i>	무당벌레
<i>Epilachna vigintioctomaculata</i>	왕무당벌레
<i>Coccinella septeminctata</i>	칠성무당벌레
<i>Calvia (Anisocalvia) muiri</i>	네점가슴무당벌레
<i>Calvia (Anisocalvia) quatuor</i>	열다섯점박이무당벌레
<i>Coccinela septempunctata</i>	칠성무당벌레
<i>Epilachna sparsa</i>	28점박이무당벌레
<i>Epilachna vigintioctomaculata</i>	큰28점박이무당벌레
<i>Propylea japonica</i>	꼬마남생이무당벌레
<i>Vibidia duodecimguttata</i> (Poda)	열두흰점박이무당벌레
Oedemeridae	하늘소붙이科
<i>Dedemera amurenis</i>	아무르하늘소붙이
<i>Xanthchroa atriceps</i>	노랑가슴하늘소붙이
Cephaloidea	목대장科
<i>Cephaloon pallwns</i>	목대장
Meloidae	가뢰科
<i>Epicuata chinensis</i>	떡가뢰
Helotidae	나무쭈시기科
<i>Helota fulviventris</i>	고려나무쭈시기
Chrysomelidae	잎벌레科
<i>Colasposoma dauricum</i>	고구마잎벌레

<i>Chrysomela vihintipunetata</i>	버들잎벌레
<i>Agelastica coerulea</i>	오리나무더듬이긴잎벌레
<i>Aulacophora fenoralis</i>	외잎벌레
<i>Aulacophora nigripennis</i>	검정외잎벌레
<i>Cassida nedulosa</i>	남생이잎벌레
<i>Cassida vespertina</i>	애남생이잎벌레
<i>Chrysomela populi</i>	포플라나무잎벌레
<i>Clytra laeviuscula</i>	넉점박이잎벌레
<i>Cryptocephalus japanus</i>	8점박이잎벌레
<i>Cyaniris japonica</i>	검은띠꼬마잎벌레
<i>Dactylispa angulosa</i>	노란가시태잎벌레
<i>Gallerucida bifasciata</i>	호장근잎벌레
<i>Lema concinnipennis</i>	애노랑가슴잎벌레
<i>Oides decempunctata</i>	열점박이잎벌레
<i>Paropsides duodecimpustulata</i>	열두점박이잎벌레
<i>Smaragdina nigrifrons</i>	밤나무잎벌레
<i>Fleutiauxia armata</i>	뽕나무잎벌레
<i>Chrysomela populi Linne</i>	황철나무잎벌레
<i>Plagiodela versicolora Laicharting</i>	버들보라잎벌레
<i>Phaedon brassicae</i>	무잎벌레
<i>Rhaphidepalpa femoralis</i>	오이잎벌레
Gerambycidae	하늘소科
<i>Megopsis sinica</i>	버드나무하늘소
<i>Leptura aethiop</i>	검정꽃하늘소
<i>Apriona germari</i>	뽕나무하늘소
<i>Bactocera rubus</i>	무화과하늘소
<i>Melanauster chinensis</i>	알락하늘소
<i>Aromia bungii</i>	벗나무하늘소
<i>Polyzonus fasciatus</i>	노란띠하늘소
<i>Prionus insularis Motschulsky</i>	톱하늘소
<i>Moechtypa diyhysis Pascoe</i>	털두꺼비하늘소
<i>Xystrocera globosa Oliver</i>	청줄박이하늘소

<i>Mallambyx raddei</i> Blessig	참나무하늘소
<i>Anastrangalia sequensi</i> (Reitter)	옆검은산꽃하늘소
<i>Anoploderomorpha cyanea</i> (Gebler)	남색산꽃하늘소
<i>Corymbia rubra</i> (Linne)	붉은산꽃하늘소
<i>Megaleptura thoracica</i> (Creutzer)	홍가슴꽃하늘소
<i>Amarysius altaensis</i> (Laxmann)	무늬소주홍하늘소
<i>Amarysius sanquinpennis</i> (Blessing)	소주홍하늘소
<i>Oberea oculata</i> (Linnaeus)	두눈사과하늘소
<i>Agapanthia pilicornis</i>	남색초원하늘소
<i>Distenia gracillis</i>	갈따구하늘소
<i>Phytoecia rufiventris</i>	국화하늘소
<i>Pidonai puzilo</i>	넉점박이각시꽃하늘소
<i>Pidonia debilis</i>	노란각시하늘소
<i>Psephactus remiger</i>	반날개하늘소
<i>Thyestilla gebleri</i>	삼하늘소
<i>Xylotrechus clarinus</i>	오리나무호랑하늘소
Attelabidae	거우벌레科
<i>Apoderus jekelii</i> Roelofs	거우벌레
<i>Apoderus (comsapoderus) ery</i>	북방거우벌레
<i>Cyconotrachelus coloratus</i>	노랑배거우벌레
<i>Cyconotrachelus roelofsi</i>	두루미목로엘프거우벌레
<i>Paratrachelophorus longicornis</i>	왕거우벌레
Curculionidae	바구미科
<i>Baris dispiota</i>	네눈박이애바구미
<i>Euaptorrhinus grakulatus</i>	털보바구미
<i>Poyaumbus bebleri</i>	검정곰보바구미
<i>Eugnathus distinctus</i>	쌍무늬바구미
<i>Lixus acutipennis</i>	길쭉바구미
<i>Mesalcidodes trifides</i>	배자바구미
<i>Sitophilus oryzae</i>	바구미
<i>Echinocnemus squameus</i>	벼바구미

<i>Episomus turritus</i> Gyllenhal	흑바구미
Bruchidae	콩바구미科
<i>Bruchus pisorum</i>	완두콩바구미
<i>Callosobruchus chinensis</i>	팥바구미
<i>Bruchus rufimaous</i>	잠두콩바구미
Panorpidae	밀드리科
<i>Panorpa coreana</i> Okamoto	참밀드리
Xyelidae	칼잎벌科
<i>Megaxyela gigantea</i>	호도칼잎벌
Argiidae	등에잎벌科
<i>Arge nipponensis</i>	왜장미등에잎벌
<i>Arge similis</i>	극동등에잎벌
Tenthredinidae	잎벌科
<i>Athalia japonica</i>	왜무잎벌
<i>Athalia rosae</i>	무잎벌
<i>Athalia colibri</i>	배추잎벌
<i>Dolerus hordei</i>	보리잎벌
<i>Dolerus armillatus</i>	어리노랑배잎벌
<i>Dolerus gessneri labiosus</i>	네줄홍띠잎벌
<i>Dolerus japonicus</i>	왜잎벌
<i>Macrophya duodecimpunctata</i>	북방넙점박이잎벌
<i>Macrophya obesa</i>	똥똥보검정잎벌
<i>Tenthredo nigropicta</i>	황줄잎벌
<i>Athalaia lugens proxima</i>	두색무잎벌
<i>Tenthredo amalis</i>	띠호리잎벌
<i>Monophadnus koreanus</i> Konow	고려노랑잎벌
Ichneumonidae	맷시벌科

제1편 자연

<i>Callajoppa pepsoides</i>	왕맵시벌
<i>Coocygomimus luctuosa</i>	꼬리납작맵시벌
<i>Dictyonotus purpurascens</i>	보라자루맵시벌
<i>Habronyx insidiator</i>	곤봉자루맵시벌
<i>Ophion luteus</i>	왕자루맵시벌
<i>Coccygomimus parnarae</i> Viereck	민꼬리납작맵시벌
<i>Ichneumon flavoguttatus</i> Uchida	노란무늬맵시벌
<i>geodartia aldoguttata</i> G.	흰무늬맵시벌
<i>Ephialtes capulifera</i>	황다리납작맵시벌
<i>Amblyjoppa cognatoria</i>	검정맵시벌
<i>Schixoloma amictum</i> Fabricius	어리곤봉자루맵시벌
Gasteruptiidae	곤봉호리벌科
<i>Gasteruption thomasoni japonicum</i>	곤봉호리벌
Formicidae	개미科
<i>Leptothorax congruus</i>	집개미
<i>Camponotus japonicus</i>	홍가슴개미
<i>Camponotus ligniperda</i>	왕개미
<i>Formica fusca</i>	곰개미
<i>Camponotus herculeanus</i>	일본왕개미
<i>Monomorium minutum</i>	꼬마개미
<i>Formica sanguinea fusciceps</i>	불개미
<i>Formica sanguinea</i>	분개미
Chrysididae	청벌科
<i>Chrysis principalis</i>	육니청벌
Scoliidae	배벌科
<i>Campsomeris prismatica</i>	금테줄배벌
<i>Campsomeris annulata</i> Fabricius	애배벌
Vespidae	말벌科

<i>Vespa crabro</i>	말벌
<i>Vespula vulgaris</i>	땅벌
<i>Vespa mandarina</i>	장수말벌
<i>Vespa xanthoptera</i>	황말벌
<i>Vespula koreanus Rodoszkowski</i>	참땅벌
<i>Vespa simillima</i>	털보말벌
<i>Vespa media</i>	중땅벌
Polistidae	쌍살벌科
<i>Polistes chinensis antennalis</i>	두눈박이쌍살벌
<i>Polistes jsqifw</i>	등검정쌍살벌
<i>Polistes mandarinus</i>	어리별쌍살벌
<i>Polistes snelleni</i>	별쌍살벌
<i>Polistes chinensis antennalis Perez</i>	두줄박이쌍살벌
<i>Polistes jadwigae Dolla Torrrre</i>	등검정쌍살벌
<i>Polistes yokohamae Rakoszkowski</i>	꼬마쌍살벌
Polybiidae	뱀허물쌍살벌科
<i>Parapolybia varia</i>	뱀허물쌍살벌
Eumenidae	호리병벌科
<i>Anterhynchium flavomarginatum</i>	황숯감탕벌
<i>Eumenes architectus</i>	민호리병벌
<i>Eumenes decoratus</i>	호리병벌
<i>Eumenes promiformis</i>	애호리병벌
<i>Euodyneruis triblus</i>	십자감탕벌
<i>Discoelius japonicus Perez</i>	띠호리병벌
<i>Ddynerus dantici</i>	별감탕벌
<i>Pareumenus quadrispinosa</i>	사치호리병벌
<i>Sphex harmandi</i>	홍다리조롱박벌
<i>Sphex subfuscatus</i>	어리조롱박벌
<i>Symmorphus captivus</i>	잎벌레살이감탕벌

Pompilidae	대모벌科
<i>Anoplius samariensis</i>	왕무늬대모벌
<i>Episyron arrogans</i>	허리무늬대모벌
Sphecidae	구멍벌科
<i>Ammophila aemulans</i>	왕나나니
<i>Ammophila sabulosa infesta</i>	나나니
<i>Ammophila compoctris Latreille</i>	애기나나니
<i>Sceliphron deforme</i>	노란점나나니
<i>Sceliphron inflexum</i>	루리나나니
<i>Sphex harmandi</i>	홍다리조롱박벌
<i>Sphex subfuscatus</i>	어리조롱박벌
<i>Sphex argentata fumos</i>	조롱박벌
Halictidae	꼬마꽃벌科
<i>Halicus aerarius Smith</i>	스미드꼬마꽃벌
<i>Lasioglossum mutillum Vachal</i>	어리흰줄애꽃벌
Cerceridae	노래기벌科
<i>Cerceris hortivaga</i>	노래기벌
Crabronidae	은주둥이벌科
<i>Ectemnius(Metacrabro) iridi</i>	흰줄은주둥이벌
Halictidae	꼬마꽃벌科
<i>Sphcodes esakii</i>	에사기꼬마꽃벌
<i>Lasioglossum sapopacum Smith</i>	흰줄꼬마꽃벌
Nomiidae	띠애꽃벌科
<i>Nomia fruhstorferi</i>	흰띠애꽃벌
Nomadidae	알락꽃벌科
<i>Nomada japonica</i>	왜알락꽃벌

<i>Nomada colloptera</i>	꼭케알락꽃벌
Anthophoridae	청줄벌科
<i>Amegilla florea</i>	흰줄벌
<i>Anthopora acervorum</i>	털보줄벌
<i>Eucera spurafipes</i>	수염줄벌
<i>Tetralonia nipponensis</i>	일본애수염줄벌
Megachilidae	가위벌科
<i>Megachile humilis</i>	어리장미가위벌
<i>Megachile sculpturalis</i>	왕가위벌
<i>Osmia(Osmia) cornifrons</i>	머리빨가위벌
Stelididae	뽕족벌科
<i>Coelioxys yanonis</i>	야노뽕족벌
Xylocopidae	어리호박벌科
<i>Xylocopa appendiculata circum</i>	어리호박벌
Bombidae	뒤영벌科
<i>Bombus ignitus</i>	호박벌
<i>Bombus koreanus</i>	참호박뒤영벌
<i>Bombus speciosus</i>	띠호박벌
<i>Bombus tersatus</i>	어리황뒤영벌
<i>Bombus diversus</i>	어리뒤영벌
<i>Psithurus syluestris</i>	떡벌
Braconidae	고치벌科
<i>Eunurobracon yokohamae</i>	말총벌
Cynipidae	혹벌科
<i>Dryocosmus kuriphilus</i>	밤나무혹벌

Apidae	꿀벌科
<i>Bombus ignitus</i>	호박벌
<i>Apis mellifera</i>	양봉꿀벌
<i>Apis cerana</i>	재래꿀벌
Tipulidae	각다귀科
<i>Tipula(Nippotipula) coquilleti</i>	잠자리각다귀
<i>Tipula aino</i>	아이노각다귀
<i>Conosia irrorata</i>	상제각다귀
<i>Tipula(Acutipula) bubo</i>	좀잠자리각다귀
<i>Ctemophora yejoaa Matsumura</i>	애조각다귀
Culicidae	모기科
<i>Aedes dorsalis</i>	등줄모기
<i>Aedes togoi</i>	토고모기
<i>Aedes(Finlaya) koreicus</i>	한국숲모기
<i>Anopheles hyrcanus</i>	학질모기
Tabanidae	등에科
<i>Tabanus budda</i>	부처등에
<i>Tabanus chrysurus</i>	왕소등에
<i>Tabanus takasagoensis</i>	타카사코등에
<i>Tabanus trigonus</i>	소등에
<i>Tabanus amaenus Walker</i>	대만재등에
Stratiomyidae	등애등에科
<i>Piecticus tenebrifer</i>	등애등에
<i>Tabanus trigeminus</i>	재등에
<i>Tabanus trigonus</i>	소등에
Bombyliidae	재니등에科
<i>Cephenius nitobei</i>	나나니등에
<i>Anastoechus nitidulus Fabricius</i>	털보재니등에

Adilidae	파리매科
<i>Laphria mitsukurii</i> Coquillett	뒤영벌파리매
<i>Laphria rufa</i> Roeder	빨강뒤영벌파리매
<i>Antipalus pedestris</i>	홍다리파리매
<i>Cophinopoda chinensis</i>	왕파리매
<i>Machimus scutellaris</i>	검정파리매
<i>Neoitamus angusticornis</i>	광대파리매
<i>Philonicus albiceps</i>	쥐색파리매
<i>Promachus yesonicus</i>	파리매
Syrphidae	꽃등애科
<i>Chrysotoxum japonicum</i>	일본수염치레꽃등애
<i>Dideoides lautus</i>	끝노랑꽃등애
<i>Epistrophe balteata</i>	호리꽃등애
<i>Eristalis arbustorum</i>	덩굴꽃등애
<i>Eristalomyia tenax</i>	꽃등애
<i>Eristalis cerealis</i>	배짧은꽃등애
<i>Volucella nigricans</i>	검정꽃등애
<i>Helophilus sapporensis</i>	삿포로수중다리꽃등애
<i>Metasyrphus corollae</i>	별납작꽃등애
<i>Metasyrphus nitens</i>	물결납작꽃등애
<i>Sphaerophoria menthastri</i>	꼬마꽃등애
<i>Tubifera virgatus</i>	수중다리꽃등애
<i>Baccha maculata</i>	알락꽃등애
<i>Cheilosia luteipes</i>	먹꽃등애
Dryonizidae	대모파리科
<i>Stenodry omyza formosa</i> Weidemann	대모파리
Sarcophagidae	쉬파리科
<i>Helicophagella melanura</i>	검정불기쉬파리
<i>Parasarcophaga macroauriculata</i>	마크로쉬파리
<i>Parasarcophaga misera</i>	애기풀쉬파리

<i>Sinonipponia musashinensis</i>	무사시노쉬파리
<i>Sarcophaga striata</i> Fabricius	애기쉬파리
Calliphoridae	검정파리과
<i>Calliphora lata</i>	큰검정파리
<i>Lucilia caesar</i>	금파리
<i>Phaenicia cuprina</i>	꼬마구리금파리
<i>Phaenicia sericata</i> Meigen	구리금파리
Phasiidae	땅보꽃파리과
<i>Ectophasia sinensis</i>	중국땅보꽃파리
<i>Hermysia beelzebul</i>	검정수염꽃파리
Tachinidae	기생파리과
<i>Echinomyia mikado</i>	등줄기생파리
<i>Servillia jakovlewii</i>	뒤병기생파리
<i>Servillia luteola</i>	노랑털기생파리
Dexiidae	풍덩이파리과
<i>Dexia flavipes</i>	왕풍덩이파리
Cecidomyiidae	흑파리과
<i>Thecodiplosis pinicola</i>	솔잎흑파리
<i>Rhabdophaga salicis</i> Schrank	버들흑파리
<i>Diplosis mori</i>	뽕나무순흑파리
Scatophagidae	똥파리과
<i>Scatophaga stercoraria</i>	똥파리
Muscidae	집파리과
<i>Musca domestica</i>	집파리
Anthomyiidae	꽃파리과

<i>Hylemya antiqua</i>	고자리파리
Agromyzidae	굴파리科
<i>Agromyza albipennis</i>	보리굴파리
<i>Phytomyza atricornis</i>	완두굴파리
Gryllotalpidae	땅강아지科
<i>Gryllotapa africana</i>	땅강아지
Phasmidae	대벌레科
<i>Phraortes elongatus Thunberg</i>	대벌레
Mantodea	사마귀科
<i>Paratenodera sinensissure</i>	사마귀
<i>Statilia Maculata Thunberg</i>	좀사마귀
Naucoridae	물등구리科
<i>Ilyocoris exclamationis</i>	물등구리
Nepidae	장구애비科
<i>Ranatra chinensis</i>	게아재비
<i>Laccotrephes japonensis</i>	장구애비
Araeopidae	멸구科
<i>Sogata furcifera</i>	흰등멸구
<i>Laodelphax striatellus</i>	애멸구
<i>Nilaparvata lugens</i>	벼멸구
Aphididae	진딧물科
<i>Acyrthosiphin pisum</i>	완두수엽진딧물
<i>Brevicoryne brassicae</i>	양배추가루진딧물
<i>Macrosiphum lactucicola</i>	썩진딧물
<i>Macrosiphum pisi</i>	콩진딧물

<i>Aphis medicagnis</i>	아카시아진딧물
<i>Aphis maidis</i>	옥수수진딧물
<i>Lachnus tropicalis</i>	밤나무진딧물
<i>Cinara pinea</i>	소나무큰진딧물
<i>Eriosoma lanigera</i>	사과면충
<i>Lachnus quercihabitans</i>	참나무왕진딧물
<i>Lipaphis ersimi</i>	무체두리진딧물
<i>Macrosiphum auenae</i>	보리수염진딧물
<i>Myzus malisuctus</i>	사과혹진딧물
<i>Myzus persicae</i>	목숭아혹진딧물
<i>Nippolachnus piri</i>	배나무왕진딧물
<i>Sappaphis piri</i>	배나무둥굴밑진딧물
<i>Aphis odinae</i>	붉나무진딧물
Ipidae	나무좀科
<i>Mylophilis piniperda</i>	소나무좀
Tetranychidae	응애科
<i>Bryobia praetiosa</i>	클로버응애
<i>Petrobia latens</i>	보리응애
<i>Metatetranychus ulmi</i>	사과응애
<i>Panonychus citri</i>	귤응애
<i>Tetranychus urticae</i>	점박이응애
Acaridae	진응애科
<i>Rhizglyphus echinopus</i>	뿌리응애
<i>Acarus siro</i>	가루응애
Eriophyidae	흑응애科
<i>Eriophyes kuko</i>	구기자흑응애
<i>Eriophyes pyri</i>	배흑응애
<i>Eriophyes salisis</i>	배들흑응애
<i>Eriophyes SP.</i>	밤나무흑응애

<i>Eriophyes SP.</i>	붉나무응애
Tylenchidae	참선충科
<i>Anguina tritici</i>	밀씨알선충
<i>Tylenchoihynchus claytoni</i>	담벼위축선충
<i>Pseudhalinthus anchilisposmus</i>	콩구근선충부치
Heteroderidae	흑선충科
<i>Heterodera glycines</i>	콩씨스트선충
<i>Meloidogyne halpe</i>	당근흑선충
<i>Meloidogyne incognita</i>	고구마흑선충
Hoplolaimidae	씩이선충科
<i>Hirschmaniella oryzae</i>	삐뿌리선충
<i>Pratylenchus vulnus</i>	사과씩이선충
<i>Pratylenchus pentrns</i>	파씩이선충
Criconematidae	배낭선충科
<i>Tylenchulus semipenetrans</i>	감귤선충

4. 양서파충류

거제도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서류는 2목 5과 7종이고, 파충류는 1목 3과 8종이다. 무미류로는 청개구리가 우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참개구리, 무당개구리의 순으로 우세하다. 사류는 유혈목이가 우세하며 그 다음으로 살모사, 누룩뱀의 순이다.

양서류중에 내륙지방에서는 흔히 분포되어 있는 황소개구리가 본 거제지역에서는 관찰할 수 없으며, 과거의 조사 중, 1987년도 환경처주관 자연생태계조사 중의 거제군 동부면 노자산 일대의 탐문 및 문헌조사 결과에서 구천리 일대에서 멥꽂이(*Kaloula borealis*)가 조사된 기록이 있으나, 멥꽂이의 경우는 서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거나 또는 이미 절멸한 것으로 보인다.

제1편 자연

거제도는 산복도로의 개설이 최근들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소형 동물종들의 이동이 단절되고 있고, 이에 따라 도로상에서 치여 죽은 동물의 사체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이에 거제도지역에 대한 동물 이동통로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1) 대금산 일대

거제도 북동측에 위치한 대금산은 좌측으로 연초 상수댐이 들어서 있고, 우측으로는 장목의 외포리 해안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본 지역의 수계는 수량이 그다지 풍부하지 못하나, 연초댐 상수원으로 인해 주변에 일부 농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서·파충류의 서식은 주로 연초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동물상을 보이고 있다. 그중 제석산방면의 도천 상류에서 연초댐까지의 소하천 주변에는 부분적으로 천수답이 형성되어 있으나, 어류의 서식은 물론이고, 양서·파충류의 서식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초댐을 중심으로 한 하천에서는 무당개구리, 참개구리, 청개구리 등이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파충류로서는 까치살모사를 포함하여 살모사, 유혈목이, 누룩뱀, 아무르장지뱀 등이 서식한다.

2) 산방산 일대

산방산은 거제만 내측의 둔덕지역과 북측으로는 사등리를 권역으로한 지역이다. 수계는 산방산에서 둔덕면 일대를 흐르는 둔덕천 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하천의 수량은 빈약한 편이다. 특히 본 지역은 거제만의 내측에 위치하고 있고, 남동풍의 기후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다. 산방산 일대에서는 무당개구리, 참개구리, 청개구리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유혈목이, 살모사, 누룩뱀 등이 서식한다.

3) 계룡산 일대

거제만 내측에서 거제도 중심부로 향하는 지역인 계룡산 남서부 일대는 비교적 산세도 깊어지고 있으며, 하천도 많은 지류를 만들면서 형성되어 있다. 특히 홍골, 사슴골 등지에는 비교적 넓은 농경지가 이어지다 갑자기 산세가 높아지는 지세를 가지고 있다. 본 지역의 하천은 오수리로 이어지며, 바다로 향해 나있다. 그러나 하류방면의 지역은 대부분이 농경지와 도로개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소하천의 하상정비 및 기타 인공적인 보수작업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계룡산 일대에서는 무당개구리, 참개구리, 청개구리, 그리고 옴개구리가 나타나고 있

으며, 유혈목이, 살모사, 누룩뱀이 서식한다.

4) 북병산 일대

구천담이라는 상수원, 그리고 구천계곡, 망골을 끼고 있는 북병산은 산세가 의외로 험하여 인간의 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며, 이에 따라 주변의 지형도 양호한 보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북병산 일대에서는 참개구리, 청개구리, 산개구리, 그리고 두꺼비가 나타나고 있으며, 살모사, 능구렁이가 서식한다.

5) 노자산

거제도에서 노자산은 그 식생이 우수하고, 온난다습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이 잘 반영된 다양한 생물상을 이루는 지역이다. 노자산 정상에서 연담리로 흐르는 하천과 동부저수지와 오망천이라는 긴 하천을 가지고 있다. 노자산 일대에서는 무당개구리, 참개구리, 청개구리, 두꺼비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유혈목이, 살모사가 서식한다.

6) 망산(한산도)

한산도는 통영시에 속하는 섬으로서, 거제도 남서부에 위치하고 식수는 주로 지하수를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빈약한 하천의 수환경으로 인해 양서·파충류의 번성은 기대할 수 없었으나, 1997년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아무르장지뱀이 한산도 전 지역에서 빈번히 출현하고 있으며, 참개구리, 청개구리, 무당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다.

7) 가덕도

1997년 환경부 조사에서 무당개구리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청개구리, 참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사류로서는 유혈목이가 우세하며, 살모사도 서식하고 있다. 저수되어 있는 담수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하천도 수량이 부족하여 한산도와 같이 다소 빈약한 양서·파충류상을 보이고 있다.

5. 양서류

1) 도롱뇽(*Hynobius leechii*)

제1편 자연

한국의 특산종으로 4~5월 초에 산란하며, 산간이나 구릉지역에 흔히 서식하였으나 최근 수환경의 변화로 인해 감소추세에 있는 종이다. 거제도 전반에 걸쳐 내륙의 하천이나 계류, 특히 바위나 수풀로 가려진 그늘쪽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2) 무당개구리(*Bombina orientalis*)

우리나라에 흔히 서식하고 있는 종으로서, 저지대에서 고지대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제도 전 지역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3) 두꺼비(*Bufo bufo gargarizans*)

평지나 산간에도 서식하고, 과거에는 한국 전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종이며, 인가주변에까지 출현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종의 수가 격감되고 있는 종이다.

4) 청개구리(*Hyla japonica*)

인가주변의 잡목숲이나 풀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인데, 비오기 전이나 산란기에 큰소리로 우는 특성이 있다. 거제도 전역의 물가주변의 활엽수림에서 매우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그 개체수 또한 많은 수가 관찰되었는데, 양서류 중에서 우점을 차지하고 있는 종이다.

5) 참개구리(*Rana nigromaculata*)

대표적인 저지성(低地性) 양서류로서 서식장소는 평지의 못이나 물가근처의 풀숲이며, 위험을 느낄 때면 물로 뛰어들어 물속의 진흙이나 돌 밑에 몸을 감추는 특성이 있다. 거제도 지역에서 청개구리, 무당개구리와 함께 관찰이 매우 용이한 종이다.

6) 옴개구리(*Rana rugosa*)

물가나 흙위의 구멍에서 지내는 일이 많다. 마치 옴이 오른 것처럼 피부에 많은 융기가 돌아 있어서 다른 개구리와 구별이 쉬우며, 들밑이나 흙속에서 동면한다.

7) 산개구리(*Rana dybowskii*)

흔히 식용으로 포획되기도 하여, 최근에는 그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계류나 하천 저지대 등지에서도 발견되는 종이다. 거제도에서는 그 개체수는 많지 못한 듯하며, 대금산에서 제석산방면의 도천과 해양사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 보고되었다.

6. 파충류

1) 아무르장지뱀(*Takydromus amurensis*)

과거 야산의 등산로나 돌담 등에서 쉽게 발견이 되는 종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근년에 이르러서는 그리 쉽게 관찰되지 않고 있는 종이다. 1997년 환경부 조사에서는 대금산, 산방산, 북명산, 노자산, 한산도 일대에서 아무르장지뱀이 조사되었고, 특히 한산도에서는 출현이 매우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유헤목이(*Rhabdophis tigris tigris*)

한국, 일본, 시베리아의 연해주, 중국 등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평지, 구릉지, 초원의 물가에서 흔히 발견된다. 몸의 빨간 무늬때문에 꽃뱀 또는 화사라고도 알려져 있다. 거제도 전 지역에서 쉽게 목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종이며, 거제지역에서 가장 우점하고 있는 종으로 판단된다.

3) 구렁이(*Elaphe schrenekii*)

평지 또는 산지에도 서식하며, 인가근처의 돌담이나 지붕 등에도 숨어 있다가 주로 쥐, 새, 그리고 새알 등을 잡아 먹는다. 최근까지도 계룡산 일대의 부락에서 드물게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누룩뱀(*Elaphe dione*)

유헤목이와 같이 전국적(울릉도 제외)으로 서식하고 있는 종이다. 주로 밭둑과 돌담 등지에서 발견되는 흔한 종이다.

5) 능구렁이(*Dinodon rufozonatus rufozonatus*)

우리나라의 전역에 걸쳐 저지대의 농경지 주변이나 바위가 있는 곳에서 발견되며, 개구리 또는 쥐류 등을 포식한다. 농사주 등의 식용목적으로 고가로 거래되므로 남획되고 있는 종이며, 그 개체수가 격감하고 있다.

6) 무자치(*Elaphe rufodorsata*)

한국, 중국 북부지역 등에 분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쳐 흔히 볼 수 있는 물뱀이다. 주로 강변의 물가, 수로, 연못, 논둑 등지에 서식하는데, 최근에는 농약 등의 사용으로 논에서의 서식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서식지의 변화 및 남획 등으로 그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는 종이다.

거제도의 양서 · 파충류 목록

양서류

Family Hynobidae	도롱뇽과
<i>Hynobius leechi</i>	도롱뇽
Family Discoglossidae	무당개구리과
<i>Bombina orientalis</i>	무당개구리
Family Bufonidae	두꺼비과
<i>Bufo bufo gargarizans</i>	두꺼비
Family Microhylidae	맹꽁이과
<i>Karoula borealis</i>	맹꽁이
Family Hylidae	청개구리과
<i>Hyla arborea japonica</i>	청개구리
Family Ranidae	개구리과
<i>Rana nigronaculata</i>	참개구리

<i>Rana dybowskii</i>	산개구리
<i>Rana rugosa</i>	옴개구리
<i>Rana plancyi chosonica</i>	금개구리

파충류

Family Scincidae	도마뱀과
<i>Leiopisma laterale laterale</i>	도마뱀
Family Lacertidae	장지뱀과
<i>Takydromus amurensis</i>	아무르장지뱀
<i>Takydromus auroralis</i>	장지뱀
<i>Takydromus wolteri</i>	줄장지뱀
<i>Eremias argus</i>	표범장지뱀
Family Colubridae	뱀과
<i>Rhabdophis tigrina tigrina</i>	유혈목이
<i>Amphiesma vibakari ruthveni</i>	대륙유혈목이
<i>Elaphe schrenckii</i>	구렁이
<i>Elaphe dione</i>	누룩뱀
<i>Dinodon rufozonatum rufozonatum</i>	능구렁이
<i>Elaphe rufodorsata</i>	무자치
<i>Zamenis spinalis</i>	실뱀
Family Viperidae	살모사과
<i>Agkistrodon blomhoffii brevicaudus</i>	살모사
<i>Agkistrodon caliginosus</i>	쇠살모사
<i>Agkistrodon saxatilis</i>	까치살모사

제2절 담수어류

개발과 오염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자연환경의 파괴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없어지고 좁아지게 되고 있는데, 담수어류는 다른 야생동물과는 달리 극히 제한된 수역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서식처의 변화는 그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멸종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김, 1995).

지금까지 알려진 한반도 담수어류의 종수는 145종(최 등, 1990)으로 알려져 있으나, 낙동강 하류(김, 1993), 섬진강 하류(이와 김, 1995) 및 도서지방의 담수어류(김 등, 1993; 김과 이, 1994)를 조사한 결과로 기수역과 하구에 사는 주연성 어류가 추가되었고, 북한지역의 일부 담수어류(손, 1993)도 포함되어 한반도의 담수어류는 모두 38과 189종으로 정리되었다. 이 가운데 북한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14종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외국에서 도입된 어류가운데 이미 정착되었거나, 정착 중에 있는 12종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실제 국내에서 서식하는 담수어류의 종수는 약 200여 종이 된다고 본다.(김, 1995)

우리나라 담수어류에 관하여 분류군별로 보면, 주로 순 담수역에서 서식하는 잉어과 Cyprinidae 어류가 30속 65종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기수역과 하구에 주로 서식하는 망둑어과 Gobiidae 어류가 15속 23종(12.2%)이며, 하천의 중상류의 바닥에서 생활하는 미꾸리과 Cobitidae 어류가 6속 17종(9.0%)으로서 이들은 우리나라 전 담수어류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담수어류는 염분에 저항이 비교적 약하고, 용존산소 요구량이나 서식하는 습성도 종마다 달라서 대체로 하천의 상류, 중류, 하류 및 하구에 제한되어 서식하고 있다. 계류와 여울이 많고, 수심이 깊지 않은 상류에서 주로 생활하는 어류는 버들치, 금강모치, 쉬리 등 37종이고, 강폭이 넓고 유속이 비교적 느린 중류 수역에서는 잉어, 붕어, 각시붕어, 모래무지, 돌마자, 피라미 등 65종이다. 한편, 염분의 영향이 많고 강폭이 넓은 하류에서는 송어, 학공치, 뱀어, 꼭저구 등 23종이고, 바다와 직접 연결되는 강하구에서는 문절망둑, 풀망둑, 모치망둑, 황복, 웅어 등 54종이 출현하고 있다.

일생동안 순수한 담수역에서만 생활하는 1차 담수어는 96종으로 잉어목과 메기목 어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생활사의 일정한 기간을 정기적으로 담수와 해수를 왕래하는 회유성 어류는 모두 28종인데, 그 가운데는 생활방식에 따라 소하회유성(anadromous), 강화회유성(catadromous) 및 양측회유성(amphidromous)으로 구분된다. 즉, 바다로 내려가 산란하는 강하성 어종은 뱀장어, 무태장어, 황어, 꺾정어 등 4종이고, 바다에서 성장하다가 담수에서 산란하는 소하성 어종은 칠성장어, 빙어, 뱀어,

국수뱅어, 붕통뱅어, 도화뱅어, 쫄뱅어, 실뱅어, 송어, 자치, 홍송어, 낙연어, 곱사연어, 큰가시고기, 가시고기, 황복 등 16종이다. 그리고 기수역의 부근에서 산란과 성장하는 양측회유성 어종으로는 은어, 한독중개, 모치망둑, 갈문망둑, 검정망둑, 구굴무치, 꼭저구, 사백어 등 8종이다.

그리고 원래는 해수와 담수를 왕래하는 주연성이었으나, 이제는 담수에 적응한 육복종은 빙어, 열목어, 산천어, 송어, 가시고기, 밀어, 독중개, 참독중개 등 8종이다.

1997년 거제도의 담수어류에 관한 환경부 조사보고에 의하면, 손영목·권철선(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학과)의 조사에서 총 10과 23종이 조사되었다. 조사된 어종 중, 잉어과(Cyprinidae)가 7종(30.4%), 망둥어과(Gobiidae)가 5종(21.7%), 미꾸리과(Cobitidae)가 4종(17.4%)이었으며, 뱀장어과(Anguillidae) 등 7과는 각각 1종씩이었다. 각 과별 채집개체수는 망둥어과가 507개체(46.3%), 잉어과는 324개체(29.6%), 송사리과 107개체(9.8%), 미꾸리과는 97개체(8.9%)였다.

채집 어류 중 우점종은 밀어(*Rhinogobius brunneus*, 222개체, 상대풍부도: 20.29%)였으며, 아우점종은 갈겨니(*Zacco temmincki*, 213개체, 19.46%)였다. 그밖의 우세종으로는 꼭저구(*Chaenogobius urotaenia*, 189개체, 17.28%), 송사리(*Oryzias latipes*, 107개체, 9.78%), 검정망둑(*Tridentiger obscurus*, 83개체, 7.59%), 왕중개(*Iksookimia longicorpus*, 81개체, 7.40%), 붕어(*Carassius auratus*, 48개체, 4.39%) 등이었다.

조사된 어종 중 희소종으로는 치리(*Hemiculter eigenmanni*), 쉬리(*Coreoleuciscus splendidus*), 찰미꾸리(*Lefua costata*), 미유기(*Silurus microdorsalis*), 은어(*Plecoglossus altivelis*), 꺾저기(*Coreoperca kawamebari*) 등이었다. 채집 조사된 23종 중, 한국 고유종은 5종으로 쉬리, 왕중개, 미유기, 자가사리(*Liobagrus mediadiposalis*), 동사리(*Odontobutis platycephala*) 등이었으며, 전체 어종의 21.7%를 차지하였다. 한편, 환경부지정 특정 물고기는 꺾저기 1종이었다. 어류의 생태형을 보면, 1차 담수어가 16종이었으며, 강하성과 소하성이 각각 1종, 주연성 4종, 육복형 1종이었다.

또한, 거제도지역에 서식하는 어류 중, 특별히 보호대책이 필요한 종은 쉬리, 미유기, 꺾저기 등이었으며, 쉬리와 꺾저기는 현재 거의 멸종단계에 이르러 각별한 보호가 요망된다. 보호가치가 있는 하천으로는 산양천과 연초천 그리고 장목면 외포리의 외포천 등으로 하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인위적 영향을 배제하고, 철저한 오수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고령하수계의 영향을 받아 중국계의 잉어과 어류가 주종을 이루고, 개체수 역시 가장 많은 우리나라 내륙의 어류상과는 달리 본 지역에서는 주연성 어류인 망둥어과가 가장

많은 개체수를 차지하여, 섬지방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우점종과 우세종들은 주연성 어류인 망둥어과 어류와 염분에 대한 내성이 비교적 강한 송사리 등으로서 섬지역의 특징을 강하게 나타내었으며, 내륙의 중·상류역에서 우세하게 서식하고 있는 어류인 갈겨니는 중·상류역이 많은 거체의 하천에서도 역시 많은 개체가 서식하고 있어 아우점종으로 나타났다. 왕종개는 비교적 거제도 전역에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었으며, 붕어의 경우는 각 하천의 상류에 축조되어 있는 저수지와 이곳에 방류된 개체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손과 송, 1998)

본 지역의 어류상에 관하여 최와 전(1980)은 27종의 서식어류와 함께 6종의 고유종을 보고한 바 있으며, 손(1995)은 18종의 서식어류와 7종의 고유종을 보고하였다. 거제도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의 생활형을 보면 조사된 23종 중, 1차 담수어가 16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회유성 및 주연성 어류는 7종이었다. 이들 중 소하성과 강하성 어류는 은어와 뱀장어(*Anguilla japonica*)로 각각 1종, 주연성 어류는 망둥어과의 문절망둑(*Acanthogobius flavimanus*), 꼭저구, 갈문망둑(*Rhinogobius giurinus*), 검정망둑, 밀어 등 5종이었다.

이와 같이 회유성 어류를 포함한 주연성 어류들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것은, 본 지역이 섬지역으로 하천의 하구가 바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주연성 어류의 출현 빈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개체수에 있어서도 주연성 어류인 밀어가 20.29%로 우점종이었으며, 꼭저구 역시 17.28%로 우세종으로 나타났다.(손과 권, 1997)

거제도와 같은 섬지방과 같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담수자원은 유수량이 부족한 관계로 매우 귀중하게 취급되어 왔다. 따라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의 담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하천 상류에 저수지나 소류지를 축조하거나, 하천 개수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 하천이며, 유로가 짧고, 유량이 많지 않은 특징을 가진 섬지방의 소하천에 인공적인 변화가 가해져 교란되었을 경우, 하천생태계가 급속도로 파괴되거나 변모되어 버리며, 일단 파괴 또는 변모된 생태계는 정상상태를 회복하기가 불가능하여 많은 종이 멸종되어 버리거나 회복되는데, 매우 오랜 시일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섬지방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는 지사학적인 변화와 이에 따른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손, 1995)

따라서 외부의 하천과 고립되어 있는 섬지방의 하천은 매우 신중하게 관리·보호되어야 하며, 각 수계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상과 이들의 서식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과학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단순히 담수어류 자원을 보호하는 것 뿐아니라, 생태계의 생물자원 보존과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거제도의 담수어류 목록

학 명	국 명
Anguilliformes	뱀장어목
Anguillidae	뱀장어과
<i>Anguilla japonica</i> (T. et S.)	뱀장어
Cypriniformes	잉어목
Cyprinidae	잉어과
Cyprininae	잉어아과
<i>Cyprinus carpio</i> Linnaeus	잉어
<i>Carassius auratus</i> (Linnaeus)	붕어
Leuciscinae	황어아과
<i>Moroco oxycephalus</i> (Bleeker)	버들치
<i>Zacco platypus</i> (T. et S.)	피라미
<i>Zacco temmincki</i> (T. et S.)	갈겨니
Gobioninae	모래무지아과
<i>Pseudorasbora parva</i> (T. et S.)	참붕어
<i>Punlungia herzi</i> Herzenstein	돌고기
<i>Pseudogobio esocinus</i> (T. et S.)	모래무지
<i>Coreoleuciscus splendidus</i> Mori	쉬리
<i>Microphysogobio yaluensis</i> (Mori)	돌마자
<i>Microphysogobio lonfidorsalis</i> Mori	배가사리
Acheilognathinae	납자루아과
<i>Rhodeus uyekii</i> (Mori)	각시붕어
<i>Rhodeus sericeus</i> (Pallas)	납줄개
<i>Rhodeus suigensis</i> (Mori)	납줄갱이
<i>Acheilognathus intermedia</i> (T. et S.)	납자루

제1편 자연

Cobitidae	기름종개과
<i>Misgurnus anfullicaudatus</i> (Cantor)	미꾸리
<i>Misgurnus mizolepis</i> Gunther	미꾸라지
Amblycipitidae	통가리과
<i>Liobagrus mediadiposalis</i> Mori	자가사리
Siluridae	메기과
<i>Silurus asotus</i> (Linnaeus)	메기
Gobiidae	망둑어과
<i>Odontobutis platycephala</i> Iwata et Jeon	동사리
<i>Odontobutis obscura interrupta</i> Iwata et Jeon	얼룩동사리
<i>Acanthogobius flavinamus</i> (T. et S.)	문절망둑
<i>Rhinogobius giurinus</i> (Rutter)	갈문망둑
<i>Rhinogobius brunneus</i> (T. et S.)	밀어
<i>Tridentiger obscurus</i> (T. et S.)	검정망둑
Serranodae	농어과
<i>Coreoperca herzi</i> Herzersteni	꼭지
Oryziidae	송사리과
<i>Oryzias latipes</i> (T. et S.)	송사리

참 고 문 헌

1. 김익수, 1995. 한국의 위기 담수어류의 현황과 보존. 1995 한국생태학회·어류학회 공동 심포지움 발표 논문집, pp. 31-50.
2. 손영목, 1995. 우리나라 도서지방 담수어류의 생물지리. 1995 한국생태학회·어류학회 공동 심포지움 발표 논문집, pp. 51-62.
3. 송영목·송호복, 1998. 거제도의 담수어류상과 분포상의 특징. 한국어류학회지, 10(1), 87-97.
4. 최기철, 1983. 경남의 자연(담수어편).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311pp.
5. 최기철, 전상린, 1980. 우리나라 도서에 서식하는 담수어의 분포에 관한 연구. 자연보존연구보고서 제 2집: 119-136.
6. 최기철, 전상린, 김익수, 손영목, 1989. 한국담수어분포도. 한국담수생물연구소.
7. 최기철·전상린·김익수·손영목, 1990. 원색한국담수어류도감. 향문사, 서울, 257pp.